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김 태 환

국 문 초 록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김 태 환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대학생의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인과적 구조 모형을 검정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표집크기는 층화표집, 군집 표집, 비율 표집을 활용하여 총 7개 대학, 490명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측정도구로 구성하였다. 이중 진로선택몰입의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였는데, 내적 일치도 계수가 .85~.93이었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론적 하위요인에 따라 문항이 구분되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외에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연구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525부의 설문지 중 49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490부 중 결측치,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46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t검정, F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Mplu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으로 구성된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을 예측하는데 적합하다. 셋째,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취업불안 및 진로탐색행동 각각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진로선택몰입, 진로탐색행동 각각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친다. 취업불안은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연하고, 그 결과 진로선택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대학생의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조절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대학생 진로지도 실천을 위해 제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자신에 대한 탐색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이 취업불안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가족지지가 부족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직업에 대한 탐색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진로선택몰입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관련 변인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측정 및 활용에 있어 통제된 동기의 영향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취업불안을 보다 면밀히 측정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소재지(수도권/지방)에 따른 대학생 진로발달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대학생, 잠재조절 모형

학 번: 2013-30319

목 차

국문초록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 가설 ····· 5
4. 용어의 정의 ····· 6

Ⅱ. 이론적 배경 ····· 9
1. 대학생의 진로선택 ····· 9
2. 진로선택몰입 ····· 19
3. 진로선택몰입 관련 주요 변인 ····· 37
4.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주요 변인 간의 관계 ····· 55

Ⅲ. 연구 방법 ····· 69
1. 연구 모형 ····· 69
2. 연구 대상 ····· 70
3. 조사 도구 ····· 75
4. 자료 수집 ····· 87
5. 자료 분석 ····· 88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95
1. 관찰변인 분석 결과 ·····95
2. 측정 모형 분석 결과 ·····103
3.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결과 ·····105
4. 조절효과 분석 결과 ·····107
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112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27
1. 요약 ·····127
2. 결론 ·····129
3. 제언 ·····130

참 고 문 헌 ·····137

부 록 ·····167
[부록 1]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개발 과정 ·····167
[부록 2]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측정도구 번역 결과 ·····189
[부록 3] 예비조사용 설문지 ·····191
[부록 4] 본조사용 설문지 ·····203

Abstract ·····215

표 목 차

<표 Ⅱ-1> 대학생 진로선택이론의 자기(self) 관련 개념 정의 ……14
<표 Ⅱ-2> 대학생 진로 관련 commitment 용어의 번역 ……19
<표 Ⅱ-3> 몰입의 정의 및 특징 ……26
<표 Ⅱ-4> 진로선택몰입 유사개념 비교 ……27
<표 Ⅱ-5> 직업적 선호 및 애착 측정도구 ……31
<표 Ⅱ-6> 정체성 몰입 측정도구 ……33
<표 Ⅱ-7> 가족지지 측정도구 ……40
<표 Ⅱ-8> 취업불안 측정도구 ……43
<표 Ⅱ-9>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47
<표 Ⅱ-10>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측정도구 ……53
<표 Ⅱ-11> 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정적 관계 분석 연구 ……63
<표 Ⅱ-12>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주요 변인 간의 관계 종합 ……68

<표 Ⅲ-1> 2017년 지역별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 ……70
<표 Ⅲ-2> 2017년 전공 및 성별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 ……71
<표 Ⅲ-3> 조사 도구의 구성 ……75
<표 Ⅲ-4> 기존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문항 종합 ……77
<표 Ⅲ-5>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 ……78

<표 Ⅲ-6>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통계치 검토 기준 ·····80
<표 Ⅲ-7> 진로선택몰입 내적 일치도 계수 ·····81
<표 Ⅲ-8> 가족지지 내적 일치도 계수 ·····82
<표 Ⅲ-9> 취업불안 내적 일치도 계수 ·····83
<표 Ⅲ-10> 진로탐색행동 내적 일치도 계수 ·····84
<표 Ⅲ-11>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내적 일치도 계수 ·····85
<표 Ⅲ-12>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86
<표 Ⅲ-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7
<표 Ⅲ-14> 적합도 판단 기준 ·····90
<표 Ⅲ-15>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방법 ·····91

<표 Ⅳ-1> 관찰변인 기술 통계량 및 정규성 검토 ·····95
<표 Ⅳ-2> 관찰변인 상관행렬 ·····97
<표 Ⅳ-3>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98
<표 Ⅳ-4>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99
<표 Ⅳ-5> 전공 계열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101
<표 Ⅳ-6>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102
<표 Ⅳ-7>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요인적재량 ·····104
<표 Ⅳ-8>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104
<표 Ⅳ-9> 직접효과 분석 결과 ·····106

<표 Ⅳ-10> 매개효과 분석 결과 ·····107
<표 Ⅳ-11> 조절변인 투입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 ·····108
<표 Ⅳ-12>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109
<표 Ⅳ-13> 잠재조절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109
<표 Ⅳ-14> 최종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110
<표 Ⅳ-15> 최종 잠재조절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111
<표 Ⅳ-16>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건부 효과 ·····111
<표 Ⅳ-17> 가설별 채택여부 종합 ·····112

그 림 목 차

[그림 Ⅱ-1] Gottfredson(1981)의 진로포부 발달의 구조 ·····10

[그림 Ⅲ-1] 연구 모형 ·····69

[그림 Ⅲ-2] 표집 방법 ·····74

[그림 Ⅳ-1] 측정 모형 분석 결과 ·····103

[그림 Ⅳ-2]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결과 ·····10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성공적인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위해서는 진로선택몰입(commitment to a career choice)이 필요하다. 진로선택몰입이란 자신의 진로목표 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의미한다(Blustein, Ellis, & Devenis, 1989). 진로선택몰입은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동기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촉진한다(Duffy, Dik, & Steger, 2011; Jiang, 2016). 이러한 이유로 그간 진로이론은 직업세계 이행을 위한 중요한 과업(task)으로 진로선택몰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왔다(Harren, 1979; Porfeli, Lee, Vondracek, & Weigold, 2011; Savickas et al., 2009).

다른 시기에 비해 대학생 시기의 진로선택몰입은 더욱 중요하다. 대학생은 구체적인 취업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눈높이와 현실적인 요인(취업 가능성, 연봉 등)의 상충으로 인해 진로선택에 주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rown et al., 2012; Kelly & Lee, 2002; Saka, Gati, & Kelly, 2008). 특히 경기 침체, 취업난 등 취업의 불확실성을 마주한 대학생은 진로선택에 있어 불안과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불안과 혼란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졸업유예 및 비효율적인 취업준비를 초래한다(조규형, 임정훈, 송수종, 정철영, 김진모, 2016; Jaensch, Hirschi, & Freund, 2015; Santos, Ferreira, & Goncalves, 2014).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취업난에 직면하여 진로선택몰입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욱(2018)은 2009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2009년 졸업자: 14.0% → 2017년 졸업자: 18.3%). 특히 2017년 신규 대졸자의 체감실업률(취업을 준비하면서 비정규직에 취업해 있거나 구직활동은 하지 않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실업률)은 33.6%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계열에 편중된 수치가 아니었다(인문・사회계열: 40.2%, 자연・공학계열: 40.1%; 김종욱, 2018). 대학생 관련 기관에서는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으로 진로 고민을 분석하고 있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5;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2016).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2017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는 우리나라 대학생 21,780명 중 약 60.0%가 '졸업 후 진로'를 자신의 가장 큰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장현진, 2018).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은 취업난에 직면하여 취업에 대한 고민 속에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이 예상된다(김은애, 진성미, 2015; 이아라, 이주영, 2016; 이지은, 이제경, 2015).

취업과 관련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은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을 형성해야 한다. 대학생은 취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당면한 진로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Krumboltz; 1996; Savickas, 2012; Savickas et al., 2009). 진로이론에서는 대학생이 의도적인 진로탐색을 통해 신념 및 가치 등의 자기개념(self-concept)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한 진로선택몰입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왔다(Blustein et al., 1989; Harren, 1979; Savickas et al., 2009). 따라서 취업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로탐색 기반, 진로선택몰입의 형성 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Blustein 외(1989)가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한 이후, 선행연구는 진로선택몰입 예측변인을 실증해 왔다. 그 결과, 주요 예측변인으로는 진로발달 과업으로써 강조되는 진로탐색행동 관련 변인 및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부모지지 등의 가족지지 관련 변인이 나타났다(Blustein, Pauling, Demania, & Faye, 1994;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Caldera, Robitschek, Frame, & Pannell, 2003; Leal-Muniz & Constantine, 2005; Scott & Church, 2001). 최근에는 진로선택몰입 형성 과정이 심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등의 인지적·정서적 변인이 탐색되고 있다(Hardin, Varghese, Tran, & Carlson, 2006; Jiang, 2016; Jin, Watkins, & Yuen, 2009; Wang, Jome, Haase, & Bruch, 2006).

그러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제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형성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Brown et al., 2012; Saka et al., 2008; Serling & Betz, 1990).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진로선택몰입의 선행변인을 가족지지 관련 변인(애착, 심리적 독립, 부모지지 등)과 진로탐색행동 변인으로 제한하였기에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진로선택몰입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및 정서지능 등의 인지적·정서적 변인들이 2000년대부터 탐색되고 있지만(Hardin, 2006; Jiang, 2016; Jin et al., 2009; Wang et

al.,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인지진로이론 및 정서지능이론 등의 주요 이론을 실증하는 목표로 수행되었기에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고찰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 과정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동기 및 정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진로이론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가족지지의 영향이 정서적 안정을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Fouad et al., 2016; Whiston & Keller, 2004). 또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수행되는 맥락에 있어 동기 및 정서적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공윤정, 2014; 이지은, 이제경, 2015; Blustein, 2008, 2011; Duffy & Dik, 2009; Savickas, 2012; Savickas et al., 2009; Zikic & Hall, 2009). 따라서 이 연구는 진로선택몰입의 예측변인으로 가족지지 및 진로탐색행동과 더불어, 취업불안 및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변인을 연구 모형에 포함하고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진로탐색행동이 의도(intention)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여 왔지만, 의도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Zikic & Hall, 2009).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취업이라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의도로 수행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Porfeli & Skorikov, 2010; Zikic & Hall, 2009). 이러한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다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진로선택을 어렵게 한다(Storme & Celik, 2018; Vignoli, 2015). 이에 반해 자율적 동기로 수행되는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자율적 동기란 행동에 주인의식을 느끼고 흥미 및 관심,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의도를 의미하며, 주도적인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한다(Guay, 2005; Ryan, & Deci, 2006; Sheldon, Osin, Gordeeva, Suchkov, & Sychev, 2017). 따라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보다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자율적 동기는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도 조절할 것이다. 대학생은 취업불안을 경험하면서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낮은 기대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취업불안을 변화의 신호로 이해하고 진로탐색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명진, 김정남, 2011; Park, Woo, Park, Kyea, & Yang, 2017; Vignoli, 2015). 진로

탐색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가 형성된 대학생은 취업불안을 자신의 흥미 및 관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Reeve, 2015). 이렇게 볼 때, 자율적 동기가 형성된 대학생에게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Hardin et al., 200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의 형성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의 인과적 구조 모형을 검정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동기 및 정서적 맥락에 따라 진로선택몰입의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인과적 구조 모형을 검정한다.

둘째,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대학생 대상,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영향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은 서로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2-1.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가족지지는 취업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가족지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취업불안은 진로선택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취업불안은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진로탐색행동은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취업불안은 가족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4. 진로탐색행동은 취업불안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5. 가족지지는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1.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2.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이란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identification)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의미한다(Blustein et al., 1989; Luyckx et al., 2008; Porfeli et al., 2011; Waterman, 2015). 이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가족지지

가족지지란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족의 지원을 의미한다(박지원, 1985; 박현미, 2011). 이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박현미(2011)가 수정・보완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취업불안

취업불안이란 취업이란 당면과제에 직면하여 유발되는 정서적 불편함 및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조규판, 2008; Pisarik et al., 2017). 이 연구에서 취업불안은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조규판(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이란 앞으로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최동선, 2003; Stumpf et al., 1983). 이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은 탐색의 대상에 따라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되며 최동선(2003)이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란 진로탐색행동에 주인의식을 느끼고 흥미 및 관심,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 의도를 의미한다(Guay, 2005; Ryan & Deci, 2006; Sheldon et al., 2017). 이 연구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내적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Sheldon 외(2017)가 개발하고 연구자가 번역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선택

가. 대학생의 진로선택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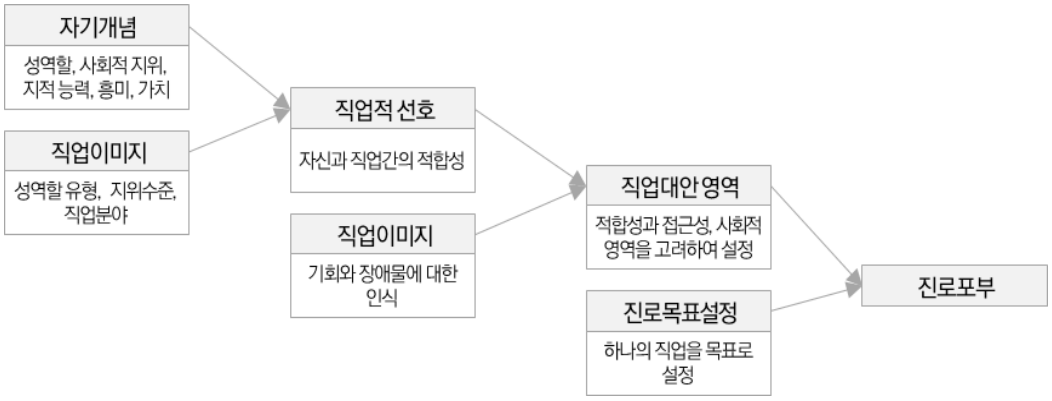
1) 진로발달이론

진로발달이론(career developnet theory)은 개인의 생애에 거쳐 일어나는 발달(development)의 개념을 진로라는 측면에서 조망한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진로발달이론은 대학생 시기를 발단단계의 한 단계로 바라본다. 대학생은 발달과업완수를 통해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을 위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준비를 수행해야 한다(Gordon, 2007).

Super(1957)의 발달이론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로 정의된다. 대학생 시기 이전에 개인은 성장기(growth stage)를 거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요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자기개념을 발달시켜 나간다(김봉환 외, 2006). 대학생 시기에 개인은 잠정기(tentative substage), 전환기(transition substage), 시행기(trial substage)를 거치며 직업탐색, 역할시행, 자기개념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즉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자기개념을 평가하고 재탐색함으로써 최초의 진로선택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Super(1957, 1980)는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해 자기개념(self-concept)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기개념은 개인이 어떤 역할, 상황, 지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기와 관련된 이미지를 의미한다(Super, 1990). Super(1957)는 개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직업, 즉 자기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미지를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개인은 보다 도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하며 이에 알맞은 직업선택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Gottfredson(1981)은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해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로포부란 인지적인 발달을 거치면서 성역할, 사회적 가치 및 지위, 흥미나 능력과 같은 자기개념을 인식함으로써 설정된 자신의 미래 진로대안이라 볼 수 있다(류지은, 정진철, 2017). 대학생 시기는 이전까지 형성한 자기개념과 더불어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가능한 진로대안을 제한한 후 최종 진로포부를 획득하는 시기로 간주된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볼 때, 직업포부란 대학생이 자신의 자기개념을 토대로 현실성을 고려한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갖게 되는 진로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Ⅱ-1] Gottfredson(1981)의 진로포부 발달의 구조

자료: Gottfredson.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Monograph, 28(6), p.547

대학생 시기는 이렇게 형성된 진로포부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포부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생 시기는 위와 같은 진로포부가 새롭고 능동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학생은 자신의 경험과 주변 환경 탐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개념을 수정하고 이를 실험 및 검증하는 시기로 이해되기 때문이다(Arnett, 2006). 따라서 대학생 시기는 활발한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로포부를 설정하며 종국에는 진로목표를 선택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황매향, 2009).

2) 진로의사결정이론

진로의사결정이론(career decision-making theory)은 의사결정자가 어떠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 즉 진로선택에 이르는지에 관심을 둔다. 즉 진로발달이론과 달리 진로의사결정이론은 의사결정이란 국면에서 개인의 진로선택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이론은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학생이 자신과 직업세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현가능성과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종합하고 선택하는 심리적 과정에 관심을 둔다(Harren, 1979; Jepsen & Dilley, 1974).

Harren(1979)은 대학생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의사결정과정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는 대학생 시기의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인식단계(awareness), 계획단계(planning), 몰입(commitment)단계, 이행(implementation)단계로 제시하였다. 인식단계에서 개인은 진로계획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계획단계에서 개인은 탐색활동을 통해 잠정적인 진로선택을 수행할 준비를 하게 된다. 몰입단계에서 개인은 잠정적 선택을 내리고 개인의 선택에 확신을 더하게 된다. 이행단계에서 개인은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특히 Harren(1979)은 위와 같은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정이 다양한 대안들 중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정적 진로를 선택한 후 이를 확신하는 심리적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몰입단계에서 대학생은 잠정적 진로선택이 미래의 나의 모습, 즉 자기개념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경우, 대학생은 높은 자부심(self-esteem)을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Krieshok 외(2009)는 적응적 진로의사결정(adaptive career decision-making)이론을 제시하면서 오늘날 대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잠정적 진로선택을 확신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Krieshok 외(2009)는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적 체계(rational mode of processing, rational system)와 더불어 통찰적 체계(intuitive mode of processing, experiential system)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pstein, 1994; Kahneman, 2003). 이성적 체계란 대학생이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하며, 통찰적 체계란 대학생이 그동안의 경험 및 체험을 통해 형성해 놓은 자기 및 외부세계와 관련한 인지도식(schema)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Krieshok 외(2009)의 설명에 따르면 이성적 체계에서 정보는 추상적 상징, 단어, 숫자로 저장되어 있는 반면, 통찰적 체계에서 정보는 이미지, 은유, 이야기(narrative)로 구조화되어 인지도식에 내포되어 있다. 개인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정서에 기반해 자연스럽게 이미지, 은유, 이야기를 구조화 한다고 가정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인지도식은 이후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데에 활용된다(Epstein, 1994).

오늘날 대학생은 이러한 인지도식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진로선택에 확신할 수 있으며 주체적이고 적응적인 취업 준비에 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지도식은 자신의 진로선택의 이유를 이미지, 은유, 이야기로 설명해줌으로써 진로선택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Savickas(2012)는 이러한 인지도식 개념을 정체성(identity)이란 자기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체성을 더욱 구조화하여 다양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생애 진로지도의 모습이라 설명하였다.

3) 진로구성주의이론

진로구성주의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이론으로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을 발달과업 완수의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및 노동시장의 변화는 대학생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진로선택 및 직업세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20세기의 직업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다면 현재 21세기의 직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Blustein, 1997; Savickas, 1997, 2012). 이에 따라 기존 진로발

달과업 완수를 통한 진로선택이라는 가정은 달성하기 어려우며, 대학생은 지속적인 환경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볼 수 있다.

Savickas(1997)는 이러한 관점 변화를 '적응(adaptation)' 이란 관점으로 통합하였다. Savickas는 적응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여 적합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적응이란 단어는 대응과정에서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발달의 개념이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고, 따라서 변화에 적응한 상태, 즉 적합(fit)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개인에게 있어 적합상태를 강조하기 보다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즉 적응을 강조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Savickas(1997)는 기존 대학생의 진로발달과업 완수정도를 의미하는 진로성숙(maturity)의 개념을 진로적응력(adaptability)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진로적응력은 새로운 직업적 상황에 적합(fit)할 수 있도록, 큰 어려움 없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개인은 진로적응력을 통해 준비 가능한 예측과제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Flum & Blustein, 2000; Savickas, 1997, 2012; Super & Knasel, 1981).

Savickas 외(2009)에 따르면 진로구성이란 개인의 고유한 흥미, 능력, 가치관을 사회적 환경에서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개인의 발달과업완수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목표에 의미를 부여하고 준비해가며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또한 대학생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하고 나아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며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자로 이해된다(Savickas, 2010, 2012). 따라서 진로구성주의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정체성을 구성하고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진로목표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진로구성주의에서 진로선택은 이미 완성된 자기개념에 부합하는 진로목표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신의 생애 주제(life theme)를 구성하고 설계(life designing)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4) 종합

지금까지 대학생 진로선택 관련 이론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정철영, 1997). 이에 따라 대학생 진로선택 관련 이론들은 진로선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시기는 진로선택을 위해 자기(self)[1]와 관련된 개념을 정립해야하는 시기이다(<표 Ⅱ-1> 참조). 대학생 진로선택 관련 이론에서는 성숙한 진로선택을 위해 자기와 관련된 개념을 강조하여 왔다(고재성, 2006; Blustein, 1994; Blustein & Noumair, 1996; Blustein & Palladino, 1991). 대학생의 성숙한 진로선택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개념을 진로라는 맥락에서 구현하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이다(Super, 1957; Harren, 1979).

<표 Ⅱ-1> 대학생 진로선택이론의 자기(self) 관련 개념 정의

구분	용어	정의
Super (1954, 1980)	자기개념 (self-concept)	개인이 어떤 역할, 상황, 지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기와 관련된 이미지
Gottfredson (1981)	직업포부 (occupational aspiration)	인지적인 발달을 거치면서 성역할, 사회적 가치 및 지위, 흥미나 능력과 같은 내적인 특성을 인식함으로 인해 설정된 자신의 미래 진로대안
Harren (1979)	자기개념 (self-concept)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 또는 특성으로 자기개념 인식 수준이 높은 개인은 진로선택에 높은 자존감(self-esteem)을 형성
Krieshok 외 (2009)	인지도식 (schema)	경험을 통해 축척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 은유, 이야기 등의 비형식적 지식으로 구조화한 인지구조
Savickas (2012)	정체성 (identity)	자기를 사회적 맥락으로 위치시킨 도식,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답을 제공

자료: Blustein, D. L., & Noumair, A. (1996). Self and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5), p. 434에서 재구성

1) 국내 연구에서는 self라는 용어가 '자기' 및 '자아'로 혼용되어 활용되고 있다(김나래, 김대원, 이기학, 2013; 박아청, 2003; 임용자, 1995). 그러나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자기(self)는 자신과 관련한 총체적인 신념의 개념으로써 이해되는데 반해 자아(ego)는 인간의 무의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이부영, 2002). 일반적으로 진로이론에서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개념을 '일반화된 총체적인 신념,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Blustein & Noumair, 1996), '자아'라는 용어보다는 '자기'라는 용어의 활용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교적 최근 대학생 진로선택 관련 이론들은 자기개념이 진로선택에 전제하기보다는 진로선택 과정 자체가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lustein, 2008; Duffy & Dik, 2009; Savickas, 1997; 2012). 예를 들어 Savickas(2012)는 개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생애주제(life-theme)를 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가정하며 구성의 대상으로써 '정체성(identity)'이란 자기개념을 정의한다. 그가 말하는 정체성이란 자기를 사회적 맥락, 즉 역할(role)로 위치시킨 인지도식을 의미하는데(Markus, 1977), 진로라는 맥락에서 정체성은 자신이 향후 수행해야할 직업 역할과 관련한 신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Savickas(2012)는 이러한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가정하며 진로탐색뿐만 아니라 진로선택 또한 정체성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대학생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진로목표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여 생애주제 및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자기개념을 보다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 시기는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활발한 탐색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물론 진로발달이론을 통해 볼 때, 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이전 시기 발달과업과 연속선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은 중·고등학생 시기에 주된 과업이라 볼 수 있다(Ginzberg et al., 1951; Gottfredson, 1981; Super, 1957). 그러나 대학생은 진로선택이라는 당면과제를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됨에 따라 이전까지 형성해온 자기개념을 진로라는 맥락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험 및 검증해야 한다(유혜승, 2016; Arnett, 2000, 2006, 2007; Schwartz et al., 2013). 이러한 실험 및 검증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생 시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은 반드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 시기의 탐색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탐색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면이 있다(Arnett, 2000, 2006). 중·고등학생 시기의 탐색은 직업의 성격과 자신과의 일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대학생 시기의 탐색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자들은 대학생 시기를 구분하는 요인으로서 Erikson이 제시한 역할실험(role experimentation)을 강조하기도 한다(Mayseless & Scharf, 2003; Nelson, Badger, & Wu, 2004). 이는 대학생 시기의 탐색을 '이전까지

형성해온 자기개념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써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Arnett, 2000, 2006; Schwartz et al., 2013).

셋째, 대학생 시기는 진로선택이라는 과제에 마주한 불안정한 시기이다.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향후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기개념을 완성하고 준비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이 시기 대학생은 직업세계로의 이행, 즉 성인으로의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최동선, 2003; 황매향, 2009). 물론 진로이론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학생이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 및 학습해 나아가는지 설명하고 있다(Krumboltz; 1996; Savickas, 2012; Savickas et al., 2009). 하지만 대학생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적절히 해결해야할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더욱이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문제 뿐만이 아니라 향후 성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해야하는 시기이다(Arnett, 2000). 즉 대학생은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결혼,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생은 불안 및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Blustein, 1988a; Hardin et al., 2006; Marcia, 1980). 더욱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안 및 불확실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Savickas, 1997, 2012; Zikic & Hall, 2009). 따라서 진로 관련 개입에 있어 대학생 시기의 불안정성은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이지은, 이제경, 2015; Caporoso & Kiselica, 2004; Hinkelman & Luzzo, 2007).

나. 대학생의 진로선택 실태

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자신과 직업세계 이해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21세기의 직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Krieshok et al., 2009; Savickas, 2012). 이에 따라 최근 진로선택 관련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대학생이

진로선택을 졸업시점까지 지연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Jaensch et al., 2015; Santos et al., 2014).

Krumboltz(1993)는 대학생이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의심하고, 진로를 선택한 후 자신의 기대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여 진로선택을 지연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그는 대학생이 진로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다고 분석하였다. 진로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대학생은 더욱 완벽한 진로선택을 위해 최종 선택을 지연하게 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Krumboltz, 1996). 그는 이러한 현상을 '선택에 대한 공포(zeteophobia)' 라고 명명하였다.

진로미결정 관련 연구에서는 진로 미결정현상을 발달적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과 만성적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veness)으로 구분하여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설명한다(Jaensch et al., 2015; Santos et al., 2014). 발달적 진로미결정은 진로탐색 관련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발달단계 상 자연스러운 미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미결정은 진로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해석함으로써 진로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만성적인 진로미결정은 불안, 낮은 자존감 및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로선택을 지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Brown et al., 2012; Gati et al., 1996; Saka et al., 2008).

만성적 진로미결정은 Krumboltz(1993)가 제시한 '선택에 대한 공포' 와 관련된 현상으로써 대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에 중요한 문제로 간주된다(Gordon, 2007). 또한 이러한 진로선택의 어려움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부족, 진로장벽 인식, 불안 등 자기개념 및 정서적 변인과 관련되어 있기에 대학적응, 삶에 대한 만족 등 발달영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Germeijs & De Boeck, 2002; Germeijs & Verschueren, 2011; Rassin, Muris, Franken, Smit, & Wong, 2007). 이에 따라 진로미결정 연구에서는 만성적 진로미결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자기개념 및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제로 유형화하고 측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Brown et al., 2012; Saka et al., 2008).

위와 같은 설명에 기반해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선택 실태를 살펴보면, 다수의 대학생이 취업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여 진로선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임은미(2011)는 4년제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진로결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중점 현상으로 자신감 부족과 혼란, 초점 없는 진로준비행동,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기평가, 갈등과 방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은애, 진성미(2015)는 대학생 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진로탐색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가속화되는 취업난과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시간과 재원, 취업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막연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난에 직면하여 경험하는 대학생의 불안과 혼란은 진로목표 선택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홍월, 2017; 선혜연 외, 2012). 이지연, 정숙영, 방혜진(2009)은 대학생의 진로목표 부재 현상이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임은미(2011)는 4년제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진로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진로미결정자의 경우, 취업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가운데 목표 없는 진로준비행동으로 분주한 일상을 보내나 진로선택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하여 무분별한 취업 준비, 이른바 스펙에 집중하고 있어 오히려 적절한 진로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취업난에 직면하여 자신의 진로목표를 어떻게 선택하고 몰입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홍월, 2017). 이는 대학생이 진로관련 심리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해 진로목표 선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학생 진로결정 관련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단순히 구분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고홍월, 김계현, 2008; 임은미, 2011; 조규형, 2018), 정서적 문제로 인해 다수의 대학생이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도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Fuqua, Seaworth, & Newman, 1987; Gordon, 2007).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진로선택몰입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이해된다.

2. 진로선택몰입

가. 진로선택몰입의 개념

1) 진로선택몰입의 정의

commitment란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Becker, 1960). 그간 국내연구에서는 commitment를 몰입, 전념, 확신, 관여 등의 용어로 번역하여 왔다. 이 중 대학생의 진로 관련 목표에 대한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commitment는 몰입이라 번역되어 왔다(<표 II-2> 참조). 몰입이란 용어가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 동기라는 특징이 강조된다는 점에서(권성호, 2011; 김민규, 박수정, 2017), 몰입의 개념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는 심리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2> 대학생 진로 관련 commitment 용어의 번역

구분	용어	번역	연구
Harren (1979)	commitment stage	몰입단계	① 김미영, 이재신, 이지혜(2015), ② 최수정, 정철영(2007)
		확신단계	① 고향자(1992), ② 김지영(2015), ③ 최영임, 임정섭(2013)
Blustein 외 (1989)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진로선택몰입	① 김형수, 방희명(2014), ② 이미라(2015), ③ 이순영, 정창숙(2017)
		진로결정몰입	① 김지근, 이기학(2011), ② 민지애, 유금란(2015), ③ 최수정, 정철영(2007), ④ 하정, 홍지영(2013)
Porfeli 외 (2011)	career commitment:	진로몰입	① 김유리, 이제경(2016), ② 이보라, 정지희, 정림(2014), ④ 박한샘, 조희진(2016)
		진로전념	① 유혜승(2016)
		진로관여	① 오보영(2012), ②이상희, 심희준(2014)

몰입이란 개념은 주로 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에서 다루어져 왔다. 정체성 이론에서 몰입은 미래에 대한 자기개념으로써, 신념(belief), 가치(value), 목표(goal) 등을 달성하고자 전념하는 태도를 의미한다(Luyckx et al., 2008; Marcia, 1980; Markus &

Nuris, 1986; Waterman, 2015). 이러한 정의에 따라 몰입의 개념적 특징으로는 바람직한 상태(신념, 가치, 목표 등)를 이룩하고자 하는 확신, 자신감, 동기화 등이 제시되어 왔다(Crocetti, 2008; Luyckx et al., 2008; Marcia, 1980; Waterman, 2015). 몰입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갖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성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Waterman, 2015).

대학생 진로결정관련 연구 또한 몰입이란 개념에 관심을 가져왔다(Blustein et al., 1989; Harren, 1979; Savickas et al., 2009). 진로결정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최종 진로목표를 선택하는 행위로써 하나의 목표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Harren, 1979). 이에 따라 그간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진로결정의 하위요인으로 몰입관련 개념(확신, 정체성 등)을 포함하여 왔다(Harren, 1984; Holland, Daiger, & Power, 1980; Jones, 1989; Gati, Krausz, & Osipow, 1996). 또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도구들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불안, 자기개념 혼란, 동기부족 등)을 진로미결정 요인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다(Brown et al., 2012; Gati et al., 1996; Saka et al., 2008).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결정의 개념을 '몰입에 기반한 진로목표 선택'으로 간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은 몰입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진로결정과 진로선택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은 진로결정을 위해 잠정적 진로목표 선택을 반복하기 때문이다(고홍월, 2017; 임은미, 2011; Gati & Asher, 2001; Sampson et al., 1996; Savickas, 2012). 대학생은 잠정적 진로목표 선택을 통해 진로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자기개념과의 일치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이 적절히 일어날 경우, 대학생은 목표에 대한 몰입을 형성하여 잠정적 진로선택을 진로결정으로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탐색과정에서 진로목표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대안이 등장할 경우, 대학생은 다른 진로목표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진로결정이란 개념은 의사결정과정의 최종 결과로써 '몰입에 기반한 진로목표 선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진로선택이란 개념은 의사결정과정 중 몰입을 형성하기 위해 시도되고 형성 여부에 따라 반복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Phillips & Blustein, 1994; Serling &

Betz, 1990). 또한 몰입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진로선택이 몰입으로 이어지는 조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 따라 Blustein 외(1989)는 진로선택몰입(career commitment choice)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그간 정체성 이론에서 제시하여 왔던 몰입의 개념이 진로목표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진로결정과정 중에 형성되는 몰입의 특징으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감(self-confidence), 긍정적인 인식, 장애물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진로선택몰입이란 개념을 '대학생이 진로선택과정을 거치면서 인식하게 되는 자신의 진로목표(vocational goal)에 대한 인식으로써 강한 애착(firm attachment)을 동반하는 직업분야 선호(occupational preference)' 라 정의하였다. 이후 다수의 실증 연구에서는 '직업분야 선호' 를 중심개념으로 진로선택몰입을 정의하여 왔다(Jiang, 2016).

그러나 직업분야 선호란 개념이 반드시 강한 애착을 동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orfeli et al., 2011; Schwartz et al., 2013; Waterman, 2015). 대학생은 취업요구 및 사회적 기대에 직면하여 진로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특별한 애착 없이 특정 직업분야를 선호할 수 있다(고홍월, 김계현, 2009; Jones, 1989; Savickas, 2012). Blustein 외(1989)는 이러한 직업분야 선호가 '다른 진로목표 대안들을 의도적으로 배재하고 자신의 직업적 선호를 유지하려는 경향' 으로 이어질 경우, 진로배제경향(Tendency To Foreclose Scale)의 확신으로써 몰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은 현실적인 요인에 의해 요구된 확신이거나 특별한 대안이 없어 나타난 확신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몰입의 개념인 '동기화된 태도로써의 확신 및 애착' 과 차이가 있다(Luyckx et al., 2008; Waterman, 2015). 즉, 직업분야 선호라는 개념은 취업이라는 요구 및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나타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동반한다고 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Waterman(2015)은 이와 같은 몰입을 피상적 몰입(committed as label)이라 정의하고 일반적인 몰입과 구분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직업분야 선호는 대학생활 중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선택몰입을 대표하기 어렵다. 다양한 직업세계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특정 직업분야 선호는 취업가능성 및 연봉 등의 현실적 요인에 따라 비교적 쉽게 변할 수

있다(조규형, 2018; Duffy & Dik, 2009; Porfeli et al., 2011; Savickas, 1997, 2012; Savickas et al., 2009). 이러한 직업분야 선호의 가변성은 몰입의 개념이 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감, 특별한 애착 등의 충분한 동기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몰입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신 및 애착을 동반한 직업분야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대학생 진로 관련 연구들은 대학생이 진로목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업분야가 아닌 미래 직업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함을 밝히고 있다(김진숙, 2004;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Ferrari, Nota, Soresi, Blustein, Murphy, & Kenna, 2009; Murphy, Blustein, Bohlig, & Platt, 2010). 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삶의 목적과 의미와 관련한 진로목표를 선택하고 준비해 나아간다(Arnett, 2000). 따라서 이들은 특정 직업분야를 선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직업의 역할, 의미를 반영한 보다 추상적이고, 장기적이며 높은 위계에 위치한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한다(Duffy & Sedlacek, 2007; Lips-Wiersma & Wright, 2012; Nurmi, 1993; Rosso, Dekas, & Wrzesniewski, 2010). 이러한 진로목표를 표현하는 개념으로는 소명(calling)(Duffy & Dik, 2009; Praskova, Creed, & Hood, 2015), 가능한 직업 자기(future work selves)(Strauss, Griffin, & Parker, 2012)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확신 및 애착을 동반한 직업분야 선호'는 해당 분야의 취업이라는 목표가보다 본질적인 목표(소명, 가능한 직업 자기 등)와 동일시 될 때,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상태라 이해된다(Savickas, 2012, Savickas et al., 2009).

최근 정체성 이론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으로 몰입이 형성되는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대학생은 자신의 궁극적인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정체성 영역(직업, 종교, 정치 등)내 하위 목표를 인식할 때, 몰입이란 심리적 상태를 성취할 수 있다(Luyckx et al., 2008; Waterman, 2015). 자기실현의 수단으로써 목표가 인식될 때만이 대학생은 선택한 목표가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에 관한 물음에 답을 얻음으로써,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도전하겠다는 심리적 상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Markus & Nuris, 1986; Ryan & Deci, 2000; Sheldon & Elliot, 1998; Waterman, 1990, 1993).

최근 정체성 관련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해석을 반영하기 위해 몰입의 개념을 몰입 형성(commitment making)과 몰입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로 구분하고 있다. 몰입 형성이란 자신의 목표 및 미래 방향을 선택한 수준을 의미하며, 몰입 동일시는 선택한 목표 및 미래 방향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으로 동일시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몰입 동일시는 몰입 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선택의 이유를 제공한다(Grotevant, 1987). Waterman(2015)은 몰입 형성이 자신의 목표와 관련한 의사결정 수준만을 의미하는데 반해 몰입 동일시는 몰입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며 확신, 애착 등의 심리적 반응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볼 때, 몰입이란 개념은 특정 목표 실현을 자신의 궁극적인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 실현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목표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에는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태도를 가능케 하는 기제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Cheung & Liu, 2017; Porfeli et al., 2011; Urbanaviciute, Pociute, Kairys, & Liniauskaite, 2016). 이는 확신 및 애착이 나타나는 기제를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취업이라는 맥락에서 요구된 직업분야 선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직업분야 선호를 진로선택몰입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체성 이론의 설명을 반영하여 진로선택몰입이란 개념을 '대학생이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Blustein et al., 1989; Luyckx et al., 2008; Porfeli et al., 2011; Waterman, 2015).

이러한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대학생 진로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판단된다(Savickas et al., 2009). 비교적 최근 진로이론들은 기존 이론들의 가정, 즉 개인의 내적 특성, 직업의 특성, 이 두 요소간의 매칭이란 가정을 보완하고자 개인의 주도적인 진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동선, 2005; Blustein, 2008, 2011; Duffy & Dik, 2009; Savickas, 2012; Savickas et al., 2009; Zikic & Hall, 2009). 주도적인 진로개발을 수행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급변하는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진로 미결정 현상 및 심리적 문제를 대학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Gati & Asher, 2001, Krieshok et al.,

2009; Vertsberger & Gati,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은 대학생이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에 따라 진로선택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의 모습을 표현한다(고홍월, 2017; 김은애, 진성미, 2015; Krumboltz, Foley & Cotter, 2013; Savickas et al., 2009; Schwartz et al., 2013; Vianen et al., 2009). 즉 진로선택몰입의 관점에서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은 현실적인 조건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념에 기반한 진로선택을 통해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진로선택몰입의 특징

이 연구에서 정의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진로목표를 선택했다는 '진로목표 선택' 인식과 진로목표를 자신의 진정한 목표로 동일시하는 '진로목표 동일시' 인식이 구분된다는 점이다(Bosma, 1985; Grotevant, 1987; Luyckx et al., 2006). Waterman(2015)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 방향을 선택했다고 인식하는 상태는 사회적 바람직함 및 변화라는 요구에 따라 피상적인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이 내적인 수준에서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선택한 미래 방향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동일시하는 심리적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대학생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결정 관련 이론에서는 대학생의 잠정적 직업분야 선택이 최종 진로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할실험(role experimentation)', '자기로의 초점화(focus on self)' 등, 역할 기반 자기개념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왔다(Arnett, 2006; Schwartz et al., 2013; Super & Knasel, 1981). 이렇게 볼 때,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로써 직업분야 선택을 인식하는 수준과 선택을 통해 갖게 될 직업역할을 자신의 자기개념과 동일시하는 수준, 즉 진로목표로써 직업역할을 동일시하는 수준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대학생의 역동적인 진로결정과정을 제시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chwartz et al., 2013; Waterman, 2015).

우선 개인은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진로탐색을 통해 호기심 및 직업의 매력에 따라 잠정적인 직업분야를 선택(진로목표 선택)한다. 이후 개인은 구체적

탐색을 통해 잠정적인 직업분야에서 자신이 가지게 될 역할을 자기개념, 즉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비교하고 통합하게 된다(진로목표 동일시). 잠정적 직업선택에서 역할과 자기개념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개인은 진로목표와 높은 일치감 및 이에 따른 자기 존중감,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 및 애착 등의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고 진로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잠정적 진로선택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광범위한 진로탐색을 수행하게 되며 앞서 설명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볼 때,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로목표 선택 수준과 더불어 진로목표 동일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attitudinal)라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Blustein et al., 1989; Farmer, 1985; Harren, 1979). 여기서 태도란 진로목표에 대한 마음가짐,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확신 및 애착 등의 용어로 표현하여 왔다(<표 Ⅱ-3> 참조). 이렇게 볼 때 진로선택몰입이란 개념은 진로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화된 태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로선택몰입이란 개념은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믿음 및 자신감, 이러한 확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단, 비교적 최근의 조직심리학 관련 연구자들은 몰입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태도를 넘어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Allen & Meyer, 1990; Carson & Bedeian, 1994). 이러한 연구들이 몰입의 개념에 행동을 포함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상태를 몰입의 특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장현진, 2001).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몰입이란 개념의 등장 배경이 개인의 목표추구 행동을 예측하는 마음가짐, 또는 심리적 태도를 설명하기 위하였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Becker, 1960). 또한 commitment란 개념은 어떠한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 동기라는 특징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행동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권성호, 2011; 김민규, 박수정, 2017). 더욱이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적 요구에 의한 규범적 행동을 몰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몰입의 개념을 행동까지 확장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Gifford, 2003, 2009).

<표 Ⅱ-3> 몰입의 정의 및 특징

구분	정의	특징
Harren (1979)	• 자신의 주관적 신념(subjective conviction)을 자기개념체계에 통합(intergration with self-concept system)하는 과정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자기 확신(self-confidence), 미래 지향성(future orientation)	• 통합 • 자기 확신 • 미래 지향성
Farmer (1985)	• 진로동기의 한 요인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에서 인식하는 중요성 및 가치(importance or value a person places on pursuing a career)	• 중요성 및 가치 인식
Blustein 외 (1989)	• 진로목표(vocational goal)의 강한 애착(firm attachment)을 동반하는 직업적 선호(occupational preference) • 진로결정수준은 ① 진로선택에 대한 결심(decidedness)을 의미하지만 진로선택몰입은 이와 더불어 목표달성을 위한 ② 자신감(self-confidence), ③ 미래 직업방향(vocational future)과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 ④ 장애물 인식을 포함	• 강한 애착 • 직업적 선호 • 결심 • 자신감 • 긍정적인 인식 • 장애물 인식
Crocetti 외 (2008)	• 자신의 신념, 가치, 삶의 방향을 선택한 수준과 이러한 선택에서 느끼는 확신(feels certain) 및 동일시(identifies with this choice)	• 확신 • 동일시
Luyckx 외 (2008)	• 자신이 추구할 방향을 선택하였다고 인식하는 상태(degree to choice)와 이러한 방향을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표로써 내재화 및 동일시하는 상태(identify with, and internalize their choices)	• 선택 인식 • 내재화 및 동일시
Porfeli 외 (2011)	• 직업(occupation)을 선택한 상태와 이러한 선택을 자신과 동일시 하는 상태	• 선택 인식 • 동일시
Waterman (2015)	•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전제하지 않은 목표 인식 수준(commitment as labels)과 이러한 목표에서 인식하는 동기화 및 자기표현의 느낌(committed self-expression), 그리고 정서적 반응(emotional tone)	• 피상적 몰입 • 자기표현적 몰입 • 정서반응

3) 유사개념과의 비교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으로 정의하였을 때, 대학생 진로결정과 관련된 개념과 개인의 목표의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유사개념을 구분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관련개념으로써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을, 목표의식과 관련 개념으로써 진로 정체성(career identity), 소명의식(career calling)을 선정하고 진로선택몰입과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Ⅱ-4> 참조).

<표 II-4> 진로선택몰입 유사개념 비교

구분		정의	비고
진로결정 관련 유사개념	진로결정 수준	• 다양한 진로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진로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준비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고향자, 1992)	•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진로목표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Taylor & Betz, 1983)	•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수행의 결과로 성취할 수 있는 인식을 의미
목표의식 관련 유사개념	진로 정체성	• 자신의 진로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 통일된 자아상을 인식하는 수준(이상희, 서유란, 2012)	•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정체성을 성취한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특징을 의미
	소명 의식	• 자신의 직업생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식으로써 의미가 충만함을 느끼거나 사회적 헌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Dik & Duffy, 2009)	• 진로선택몰입은 목표관련 의식으로 자기개념과의 동일시를 통한 의미 형성에만 제한

먼저 진로결정수준이란 다양한 진로목표 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진로목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준비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고향자, 1992; 김봉환, 김계현, 1997; Gottfredson, 1981). 이러한 관점은 진로결정과정 종료 후, 특정 직업분야의 진입을 확신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Blustein et al., 1989).

그러나 진로선택몰입은 하나의 직업분야 최종 결정수준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최종 결정을 위해 잠정적 선택을 자기개념과 동일시하는 수준 및 진로목표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목표를 최종 결정하여 준비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진로선택몰입은 이러한 결정수준과는 별도로 이러한 결정을 위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고 볼 수 있다(Blustein et al., 1989).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진로선택몰입이란 관점에서 진로미결정은 몰입을 형성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반해, 진로결정수준이란 관점에서 진로미결정은 진로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진로선택몰입을 진로결정수준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Harren, 1979). 실제 하정과 홍지영(2013)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진로선택몰입을 진로결정수준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물론 비교적 최근 연구들은 진로결정수준을 정의하는데 있어 진로선택몰

입의 특징을 반영하고는 있으나(조규형, 2018; Gati & Ahser, 2001; Super, 1990), 이러한 개념들의 주요 관심사가 진로결정과정에서 인식하는 개인의 목표 및 태도보다는 행동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수준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개인의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접목시킨 개념으로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정의된다(Taylor & Betz, 1983).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보건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진로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높고 이에 따라 진로결정을 위해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반해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발달과업 수행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한 긍정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이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하면서 갖게 되는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태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발달과업이라는 기준 하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과업 수행 전에 선행하는 개념이라면 진로선택몰입은 과업 수행과정을 통해 개인이 인식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최수정, 정철영, 2007).

진로정체성이란 자신의 진로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 통일된 자아상을 인식하는 수준(이상희, 서유란, 2012; Gupta, Chong, & Leong, 2015; Holland et al., 1980)을 의미한다. 이는 Erikson(1968)이 제시한 정체성의 개념인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 등과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 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Blustein & Noumair, 1996). Marcia(1980)는 이러한 정체성 획득이 청소년기 진로발달에서 핵심적인 과업임을 제시하면서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탐색(exploration)과 몰입(commitment)을 정의하였다. 이후 진로 관련 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정체성의 지위(status)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정체성 지위는 탐색과 몰입을 기준으로 혼미(diffusion) 지위, 유실(foreclosure) 지위, 유예(moratorium) 지위, 성취(achievement) 지위로 구분됨을 밝혀왔다(Kroger & Marcia, 2011). 혼미 지위는 탐색과 몰입의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 유실 지위는 탐색의 수준은 낮으나 몰입의 수

준이 높은 집단, 유예 지위는 탐색의 수준은 높으나 몰입의 수준이 낮은 집단, 성취 지위는 탐색과 몰입의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볼 때, 진로정체성과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포함하고 이를 자신의 자기개념에 통합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또한 Gupta 외(2015) 및 Holland 외(1980)가 제시한 정체성의 개념은 진로선택몰입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Porfeli et al., 2011). 하지만 진로정체성은 본래 정체성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복잡한 관점을 전제한다. 즉 진로정체성은 과거의 경험, 현재, 또한 미래 목표 간의 일관성, 영속성을 전제하며 의식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경험을 개념에 포함한다(박아청, 2003; Waterman, 2015). 이에 따라 진로정체성은 일차원 수준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무의식적 작용을 통한 획득 또는 성취의 개념으로써 이해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다수의 심리학자들은 탐색과 몰입이란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여 정체성의 지위를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정체성을 획득한 사람이라 가정되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특징, 기능을 통해 정체성을 판단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Adams & Marshall; 1996; Serafini & Maitland, 2013). 따라서 진로선택몰입은 정체성 획득의 결과로써 이해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소명의식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직업생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식으로써 의미가 충만함을 느끼거나 사회적 헌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의미한다(Dik & Duffy, 2009; Duffy & Dik, 2009). Praskova 외(2015)는 이러한 개념을 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개인적 목표,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목표, 이러한 목표지향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소명의식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보건데 소명의식은 진로선택몰입과 공통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진로선택몰입 또한 미래 직업생활을 통해 나 자신의 역할을 동일시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Porfeli et al., 2011; Schwartz et al., 2013; Stryker, 2003). 다시 말하면 단순히 직업 분야가 아니라 직업을 통해 자기 자신의 자기실현을 분명히 인식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소명의식과 진로선택몰입의 공통점이 존재한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은 자기실현에만 초점을 두지 않으며 목적의식 이유로써

자기개념과의 통합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실제 Duffy와 Dik(2009)은 소명의식을 다른 진로 관련 개념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자신을 초월한 의미부여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Praskova 외(2015)는 의미충만함, 친사회적인 특징을 소명의식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진로선택몰입은 자기 자신이 직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반면 소명의식은 직업을 통해 나 자신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관심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나. 진로선택몰입의 측정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는 진로발달 및 결정이론의 관점에 따라 직업적 선호 및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 실현으로 진로목표를 동일시하고 이에 따라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개념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정체성 몰입을 측정하는 도구에서도 관련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적 선호 및 애착 측정도구, 정체성 몰입 측정도구로 구분하여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업적 선호 및 애착 측정도구

직업적 선호 및 애착 측정도구는 Blustein 외(1989)의 도구, Colarelli와 Bishop(1990), 고향자(1992)의 도구 등이 있다(<표 Ⅱ-5> 참조).

Blustein 외(1989)는 그간의 진로선택몰입이란 변인이 개별 도구의 하위요인으로 제시되어 명확한 측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2가지 요인의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CCC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를 제작하였다. 이중 하나는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로써 직업탐색몰입을 측정한다. 직업탐색몰입이란 진로목표에 대한 분명한 의식으로써 애착을 동반한 직업적 선호, 확신 및 자신의 진로 미래를 향한 긍정적 의식 및 잠재적 장애물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TTFS(Tendency To Foreclose Scale)로써 진로배제경향을 측정한다. 진로배제경향이란 다른 진로대안들을

고려하지 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적 선호를 유지하려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한다. Blustein 외(1989)의 연구에서는 56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CCCS의 확인적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정하였다.

<표 II-5> 직업적 선호 및 애착 측정도구

구분		Blustein 외(1989)	Colarelli와 Bishop(1990)	고향자(1992)
조사대상		대학생	MBA 대학원생 및 근로자	대학생
도구의 구성	명칭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 (CCCS)	Career Commitment Scale (CCS)	직업선택확신 검사
	문항 수	27문항	17문항	20문항
	구성	• 직업탐색몰입: 19문항 • 진로배제경향: 9문항	단일 요인	단일 요인
	응답 범위	1-7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예, 아니오 형태
	채점 방식	합산	평균	문항 수 합산
도구의 적절성	타당도	구인타당도 교차타당도	예측타당도 교차타당도	예측타당도
	신뢰도	• 직업탐색몰입: .91 - .92 • 진로배제경향: .78 - .84	• 전체: .94 - 대학원생: .94 - 근로자: .92	.85
특징		• VECS 중심으로 활용됨.	-	Harren(1984)이 개발한 도구 번역

Colarelli와 Bishop(1990)은 MBA 대학원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에 몰입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CCS(Career Commitment Scale)를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대상에게 높은 신뢰도가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은 회귀분석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멘토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높은 몰입이 형성됨을 분석하였고 이를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제언하였다.

고향자(1992)는 Harren의 진로의사결정이론에 따라 개발된 ACDM(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을 구성하는 요인 중 직업적 명확성을 측정하는 DMT-O(Decision Making Task-Occupations)를 번역하여 직업선택확신 검사를 제작하였다. 이 도구는 단일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며, Harren의 이론에 따라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은 예, 아니오로 응답한다. 고향자(1992)는 이 도구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2) 정체성 몰입 측정도구

정체성 기반 몰입 측정도구는 Balistreri, Buschrossnagel와 Geisinger(1995), Crocetti 외 (2008), Luyckx 외 (2008), Porfelli 외(2011)도구 등이 있다(<표 Ⅱ-6> 참조).

Balistreri 외(1995)는 그간 정체성 지위 측정도구의 문항들이 성, 직업 등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상태(결혼, 직업 획득 등)를 강조함에 따라 역할 및 목표와 관련한 탐색 및 몰입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채점방식으로 예, 아니오의 이분형 척도가 활용되어 수준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개선하고자 EIPQ(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도구에서 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은 16문항이며, 정체성의 영역 중 8개의 영역(이상적 영역: 직업, 종교, 정치, 가치, 대인관계 영역: 가족, 친구관계, 연예, 성 역할)에서의 목표 및 선호 상태 명확성 수준을 측정한다. 연구자들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전체 67문항 중 32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대학생 대상 확인적 요인분석 및 준거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도구가 개발된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정체성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왔다(Waterman, 2015). 그러나 이 도구는 정체성의 넓은 영역을 측정하기 때문에 영역별 정체성 연구에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McLean, Syed, & Shucard, 2016; Schwartz et al., 2013).

<표 II-6> 정체성 몰입 측정도구

구분		정체성			진로정체성
		Balistreri 외 (1995)	Crocetti 외 (2008)	Luyckx 외 (2008)	Porfelli 외 (2011)
조사대상		대학생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도구의 구성	명칭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 (EIPQ)	Utrecht-Management of Identity Commitments Scale (UMICS)	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DIDS)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
	문항 수	16문항	5문항	10문항	10문항
	구성	단일 요인	단일 요인	• 몰입 형성: 5문항 • 몰입 동일시: 5문항	• 진로몰입 형성: 5문항 • 진로몰입 동일시: 5문항
	응답 범위	1-6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합산	평균	평균	평균
도구의 적절성	타당도	구인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예측타당도
	신뢰도	.75	• 중학생: .89 • 고등학생: .93	-	• 진로몰입 형성: .81 - .83 • 진로몰입 동일시: .62 - .64
특징		-	• 몰입 동일시의 개념 측정 (Waterman, 2015)	• 몰입을 2가지 요인으로 구분	• Crocetti 외 (2008)와 Luyckx 외 (2008) 도구에 기반해 개발

Crocetti 외(2008)는 그간 정체성 지위 측정도구들이 정체성 형성의 과정 즉, 혼미 지위에서 유예, 성취지위로 발달하는 과정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 지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 탐색과 몰입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몰입의 형성 및 통합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측정도구에서 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은 5문항이며, 이러한 문항은 교육, 대인관계 영역별로 5문항 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측정도구에서 몰입은 현재 내가 받고 있

는 교육 및 내가 형성한 친구 관계와 나 자신의 일치성, 적합성을 측정한다는 점(ex: 내가 받고 있는 교육은 나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에서 앞서 EIPQ 도구의 몰입개념과 구분되는 면이 있다(Waterman, 2015).

Luyckx 외(2008) 또한 그간 정체성 지위 측정도구들이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 지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미래 목표설정을 위한 탐색을 광범위한 탐색과 구체적 탐색으로 구분하였고 몰입을 몰입 형성과 몰입 동일시로 구분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몰입 형성은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즉 목표를 선택하고 결정한 수준을 의미하고 몰입 동일시는 이러한 방향설정을 자기개념과 통합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 자신의 의미 및 자기존중감을 의미한다.

Porfeli 외(2011)는 Crocetti 외(2008), Luyckx 외(2008)의 정체성 측정도구의 특징을 진로정체성 측정에 반영하고자 VISA(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를 개발하였다. VISA에서 몰입은 Luyckx 외(2008)의 구분대로 진로몰입 형성 5문항과 진로몰입 동일시 5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내용은 진로장면에 적합하도록 수정되었다(예: I know which direction I am going to follow in my life → I know what kind of work is best for me).

3) 종합

지금까지 진로선택몰입 관련 측정도구를 살펴본 결과,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측정한다는 공통점과 더불어 이론적 기반에 따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차이점에 따라 몇 가지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적 선호 및 애착 측정도구들은 직업분야결정이라는 명확한 진로목표를 기준으로 이를 향한 확신 및 애착 등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한다(Blustein et al., 1989). 이러한 측정은 분명한 확신 대상(직업분야, 진로대안 등)과 확신 및 애착의 상태(확신, 자신감, 불안 등)를 문항에 표현할 수 있기에 진로선택을 향한 확신 및 애착 수준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직업적 선호 및 애착측정도구는 진로선택몰입수준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인

지적, 정서적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신뢰로운 측정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정은 개인이 어떻게 그러한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제시하지는 못한다(Waterman, 2015).

더욱이 이러한 측정은 직업분야에 한정된 확신 및 애착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학생은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며 진로미결정과 결정을 반복한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고홍월, 2017; 임은미, 2011; Gati & Asher, 2001; Sampson et al., 1996).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분야 선호에 대한 확신 및 애착 수준만을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학생이 처한 맥락에 따라 직업분야 선택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Luyckx et al., 2006; Luyckx et al., 2008; Schwartz et al., 2013; Waterman, 2015). 왜냐하면 취업시점에 임박해 적절한 고려 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향해 진로선택을 수행하고 이러한 선택을 확신하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은 충분한 탐색을 통해 자신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형성한 진로선택몰입 수준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Waterman, 2015).

둘째, 최근 정체성 몰입 측정도구는 삶의 방향 선택 수준(몰입 형성)과 삶의 방향과 자신의 일치성 수준(몰입 동일시)를 구분하여 몰입을 측정함으로써 몰입 측정을 보완하고 있다(Luyckx et al., 2006; Luyckx et al., 2008; Waterman, 2015). 실제 정체성이론은 정체성 성취를 위해 대학생이 구분된 몰입을 모두 높게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을 선택한 개인은 이러한 선택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이란 자기개념에 내면화함으로써 삶의 방향과 관련한 확신 및 애착 등의 정서적 반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Luyckx et al., 2008; Waterman, 2015). 이를 통해 볼 때, 삶의 방향을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동일시하는 작업은 탐색의 결과로써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이루고자 확신하고 특별한 감정, 즉 애착을 갖는 본질적인 이유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Waterman(2015)은 특정 목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몰입을 핵심몰입(core commitment)이라 명하기도 하였다.

단, 이러한 측정은 실제 문항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몰입 형성과 몰입 동일시의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몰입 형성이 현재 시점에서 선택 수준을, 몰입 동일시가 향후 자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상태와 자기개념의

일치감을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Waterman, 1993, 2015). 하지만 앞서 살펴본 정체성 몰입 측정도구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Waterman, 2015). 실제 Porfeli 외(2011)의 확신 통합을 측정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나의 가족은 내가 선택한 진로로 입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My family feels confident that I will enter my chosen career)"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항은 몰입 형성의 개념과 몰입 동일시의 개념이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aterman(2015)은 정체성 몰입 측정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몰입 동일시와 몰입 형성의 상관관계가 .7 이상임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Waterman(2015)은 몰입 형성 및 몰입 동일시와 구분된 정서적 태도로써 확신 및 애착을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기존의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연구자들은 국외 정체성 측정도구를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타당화 했다(오보영, 2015; 유혜승, 2016;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항개발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기존 국외 문항을 번역하여 통계치를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의 연구는 통계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문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문항풀을 개발·확보하여 하위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검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인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측정도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3. 진로선택몰입 관련 주요 변인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선택몰입 관련 주요 변인을 선정하였다.

첫째, 진로탐색확신을 촉진하는데 있어 환경적 영향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발달은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Lent, Ezeofor, Morrison, Penn, & Ireland, 2016; Super, 1957). 특히 최근 대학생의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자신의 진로발달과업 참여 수준이 제한됨을 제시하고 있다(Blustein, 2008; Dik & Duffy,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으로 가족지지를 가정하고자 한다.

둘째,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생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래 대학생의 진로목표 선택은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써 불확실성을 전제한다(김은애, 진성미, 2015; 임은미, 2011; Harren, 1979). 더욱이 21세기의 직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에 대학생은 진로를 탐색하고 목표를 선택하는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Savickas, 2012; Savickas et al, 2009).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취업불안을 가정하고자 한다.

셋째, 진로선택몰입의 전제 조건으로써 진로발달과업 수행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로선택몰입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확신 및 애착하는 상태라 볼 수 있다(Blustein, 1988a; Blustein et al., 1989; Harren, 1979). 이러한 확신 및 애착을 갖기 위해 대학생은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평가해야한다(Blustein et al., 1994; Krieshok et al., 2009). 이를 통해서 대학생은 자신의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만족할만한 목표선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의 전제조건으로써 충분한 진로탐색행동을 가정하고자 한다.

넷째,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생은 능동적으로 진로탐색행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불확실한 직업환경을 고려할 때, 대학생이 진로탐색과정에 임하는데 있어 다양한 동기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Zikic & Hall, 2009). 그간 진로이론들은 진로탐색행동이 호기심 및 자신의 가능성, 즉 자율적인 의도로 유발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진로결정을 촉진할 것이라 설명하여 왔다(Blustein, 1992). 하지만 실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취업이라는 요구에 따라 비자율적인 의도로 수행되는 경우도 많다(Porfeli & Skorikov, 2010; Zikic & Hall, 2009). 또한 비자율적 진로탐색행동은 호기심 및 자신의 가능성이 아닌 취업 후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수집된 정보를 판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로선택몰입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Luyckx, Duriez, Green, & Negru-Subtirica, 2017).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가족지지

1) 가족지지의 개념

가족지지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지원의 사용가능성을 개인이 인지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Nota, Ferrari, Solberg, & Soresi, 2007). 이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원의 종류에는 보살핌, 관심, 사랑 인정, 도움, 이해, 의사전달 등이 있다. 그간 사회적 지지란 개념은 대상에 따라 가족, 친구, 이웃, 기타의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김정숙, 서리나, 탁정미, 2006).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정의는 실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의미 있게 관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지를 제공받는지, 또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제공받는지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Thoits, 1982).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연구의 맥락에 따라 가족지지, 또래지지 등 의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

Way와 Rossmann(1996)은 가족지지의 하위요소를 재정적(financial)지지, 정서적(emotional)지지, 도구적(instrumental)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금전적적인면, 관심이나 배려를 받음으로서 생기는 안정감 등의 정서적인 면,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적인 면으로 나누어 본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Fouad 외(2016)는 그간의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대학생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족지지를 재정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기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가족기대를 추가하였다.

박현미(2011)는 가족지지를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환경적 자원으로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서적이며 실제적인 도움 및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지지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정서적 지지란 가족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존경, 애정, 신뢰를 포함한다. 평가적 지지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제공받는 것이다. 정보적 지지란 개인이 실제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물질적 지지란 돈이나 물건 등 실제 물건 및 도움이 개인에게 제공받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가족지지란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족의 지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지원, 1985; 박현미, 2011). 이러한 가족지지는 정서적인 면에서부터 정보, 평가, 물질적인 면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2) 가족지지의 측정

가족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Nota 외(2007), Way와 Rossmann(1996), 박현미(2011)의 측정도구가 있다(<표 II-7> 참조).

Nota 외(2007)는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과 Cutrona’s(1984)가 개발한 Social Provisions Scale(SPS)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SPS는 개인이 인식하는 가족의 지원정도를 나타낸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

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Nota 외(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는 .79이다.

<표 II-7> 가족지지 측정도구

구분		Russell, Cutrona's(1984)	Way, Rossmann(1996)	박현미(2011)
조사대상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도구의 구성	명칭	Social Provisions Scale(SPS)	Perceived family support(PFS)	가족지지
	문항 수	7문항	5문항	4요인 24문항
	구성	-	-	• 정서적 지지 7문항 • 평가적 지지 6문항 • 정보적 지지 6문항 • 물질적 지지 5문항
	응답범위	1-5점 (Likert scale)	1-3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채점방식	합산	합산	합산
신뢰도		.79	.83	.89 - .90

Way와 Rossmann(1996)은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erceived family support(PFS)를 개발하였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3가지 영역에 가족지지에 정도를 측정한다. 응답방식은 지원 없음, 약한 지원, 상당한 지원에 3점 Likert방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Way와 Rossmann(1996)의 연구에서 PFS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기반으로 박현미(2011)가 개발한 '가족지지척도'가 있다.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에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현미(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지지척도'에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이다.

나. 취업불안

1) 취업불안의 개념

일반적으로 불안이란 불쾌한 정서 상태. 안도감이 상실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8). 학문적 불안의 개념은 복잡하고 다원적인 특징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어 왔다(Pisarik et al., 2017). 김연수(2002)는 불안에 관한 정의를 크게 실존철학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인지적 관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심리적 현상으로써 불안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현상으로써 불안은 ① 부정적 느낌, ② 걱정(worried), ③ 비관적 사고라는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Pisarik et al., 2017).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심리적 현상이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두려움(fear)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여 왔다(Lovibond & Lovibond, 1995; Pisarik et al., 2017; Serling & Betz,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두려움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두려움은 미래 위험에 대한 '막연함'을 기저로 한 반응인데 반해, 불안은 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반응이며 위험에 대한 통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험되는 정서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Pisarik et al., 2017). 따라서 불안이란 개념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개인의 행동 및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된다.

Spielberger(1972)는 상태-특성(state-trait anxiety) 이론을 통해, 불안을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상태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되는 인간 유기체의 정서적 상태 또는 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태불안은 주관적이고, 긴장이나 염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이며 자율신경계통의 활동을 일으킨다. 객관적 위험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어떤 환경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상태불안의 수준은 높아진다. 반면,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위험이 내재된 환경이라도 개인이 그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지 않으면 상태불안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상태불안과 비교하여 특성불안은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동기나 획득된 행동성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안이다. 특성불안은 학습된 개인의 성향으로써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위험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 강한 상태 불안을 경험한다. 즉 개인에 따라 광범위한 자극상황을 위험한 것이나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성향이 다르며, 이러한 위협에 대해 상태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 역시 다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Spielberger(1972)의 상태-특성 이론은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수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보다 복잡한 관점을 제시한다. 즉 상황에 따른 개인의 불안 수준은 상황자체가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상태(상태불안)와 더불어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차이(특성불안)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몇몇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특징인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을 구분하여 구분된 불안이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 왔다(Hardin et al., 2006; Vignoli, 2015; Vignoli, Croity-Belz, Chapeland, DePhilippis, & Garcia, 2005).

한편, 조규판(2008)은 다수의 대학생이 취업이라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느끼는 불안을 취업불안으로 정의하였다. 취업불안은 일반적인 불안의 개념과 달리 직면한 취업상황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취업불안은 불안의 한 유형으로써, 개인의 원인 지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심리적·신체적 반응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조규판(2008)은 취업불안을 취업이란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심리적·신체적 반응으로써의 불안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취업불안이란 취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두려움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의 취업불안이란 취업이란 당면과제에 직면하여 유발되는 정서적 불편함 및 긴장 상태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조규판, 2008; Pisarik et al., 2017). 취업불안은 취업이라는 상황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에서 상태불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이 인식하는 정서적 불편함 및 긴장 수준은 대학생의 특성불안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취업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생일지라도 취업불안의 수준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취업불안의 측정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관련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상태-특성불안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왔다(주명진, 김정남, 2011; Crossley & Stanton, 2005; Park et al., 2017; Reed et al., 2004; Vignoli et al., 2005). 그러나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취업이란 문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이란 맥락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조규판, 2008). 이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이라는 맥락을 반영하여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Ⅱ-8> 참조).

<표 Ⅱ-8> 취업불안 측정도구

구분		Chartrand 외(1990)	Serling과 Betz(1990)	조규판(2008)
조사대상		대학생		
도구의 구성	명칭	Career Factor Inventory(CFI)	Fear of Commitment Scale (FOCS)	Job-Seeking Anxiety Test (JSAT)
	문항 수	4문항	40문항	3요인 28문항
	구성	단일요인	단일요인	•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7문항 •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11문항 •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10문항
	응답 범위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평균	합산	합산
도구의 적절성	타당도	구인타당도 예측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신뢰도	-	.91	.87~.94
특징		진로를 결정할 때 편안한지 불안한지를 극단으로 하여 측정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불안을 정의	취업이라는 상황과 관련한 불안 측정

Chartrand, Robbins, Morrill 및 Boggs(1990)는 발달적 진로미결정과 만성적 진로미결정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CFI(Career Factor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진로미결정 요인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미결정의 영역을 크게 ‘자기이해 및 정보부족’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기이해 및 정보부족 요인의 하위요인은 ‘진로정보 필요’ 및 ‘자기이해 필요’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진로선택 불안’과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도인 ‘일반화된 미결정’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중 진로선택 불안은 총 4문항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한다.

Serling과 Betz(1990)는 발달적 진로미결정과 만성적 진로미결정을 구분하기 위해 FOCS(Fear of Commitment Scale)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만성적 진로미결정자에 경우,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결정에 대한 확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불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선택에 따른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결정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75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2번의 조사를 걸쳐 40문항을 확정하였다. 대학생 257명 대상, 최종 보고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이었으며,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과는 정적 상관관계,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조규판(2008)은 다수의 국내 대학생이 취업이란 문제에 직면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하고 대학생을 위한 취업불안 측정도구(Job-Seeking Anxiety Test)를 개발하였다. 조규판(2008)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불안의 공통된 특징으로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을 분석하고 이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문헌연구 및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33개의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576명의 대학생에게 조사한 결과, 최종 28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몇몇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발달의 수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취업불안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오고 있다(김지현, 2018; 방희원, 조규판, 2018; 소용준, 박준성, 2016; 윤성원 2016).

다. 진로탐색행동

1) 진로탐색행동의 개념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성공적인 직업세계 진입을 위해 '진로탐색' 이란 과업(task) 수행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이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정의하여 왔다. 이러한 탐색행동은 개인에게 진로 관련 의사결정 및 진로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간주된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Jordaan, 1963; Taveira & Moreno, 2003; Zikic & Hall, 2009).

Taveira & Moreno(2003)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진로탐색행동이 직업적 흥미(vocational interest), 미래 지향성(future time perspective)등 직업적 성숙과 자기개념 구체화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밖에 다양한 실증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이 긍정적인 진로의사결정, 취업 및 나아가 직장생활 만족과 결과물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여왔다(Blustein et al., 1994; Robitschek & Cook, 1999; Werbel, 2000).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진로탐색행동은 대학생이 직업세계진입을 준비함에 있어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과업이라 판단된다.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은 사회적인 맥락의 변화 및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이론이 등장함에 따라 강조점이 변해왔다. Taveira & Moreno(2003)는 이를 4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진로탐색행동 개념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은 정보수집활동 및 진로문제해결활동으로 정의되었다(Krumboltz & Thoresen, 1964). 이러한 정의는 진로 관련 초기 이론인 특성-요인 이론의 가정에 기반한다. 특성-요인 이론은 자기에 대한 정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기와 직업세계의 특징이 매칭되는 직업세계로 개인이 진입할 때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Savickas, 1997). 따라서 개인은 자기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진로탐색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비교적 단순한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진로탐색행동의 중심개념 및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서진숙, 1998; 최동선. 2003)

진로탐색행동 개념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진로탐색행동을 규범적(normative) 진로발달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고 특정시기(14세~24세), 진로발달을 위해 완수해야하는 과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Ginzberg et al., 1951; Super, 1957). 이러한 관점은 대학생 시기, 첫 직장 진입을 위해 진로탐색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정보수집이 자기개념 형성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Blustein & Noumair, 1996).

진로탐색행동 개념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 진로탐색행동을 진로의사결정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고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국면(phase)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Harren, 1979; Tiedeman & O' Hara, 1963).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탐색행동은 정보수집활동과 더불어 직업적 대안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최동선, 2003). 즉 진로의사결정 관점에서 진로탐색행동은 최종적으로 진로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획득한 정보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진로탐색행동 개념에 대한 네 번째 관점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는 관점으로 진로탐색행동을 학습 및 적응을 위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자기개념 및 역량 향상을 촉진하는 행동으로 바라본다. Krumboltz(1996)는 진로탐색행동을 학습의 관점으로 명하였다. Flum과 Blustein(2000)은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을 교육, 직업 및 기타 환경과 관련된 외적 선택사항과 제약에 대해 탐색하고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 대한 수집된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Savickas(2012)는 진로탐색행동을 생애전반에 걸쳐 나타날 변화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정체성 발달을 위한 의미형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으로 이해하였다.

최동선(2003)은 위와 같은 4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앞으로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self-appraisal)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 으로 정의하였다. 의도성을 동반한 정보수집행동과 평가 및 해석과 관련한 인지적인 행동이 진로탐색행동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동선(2003)은 진로탐색행동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입직을 바로 앞둔 대학생에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2) 진로탐색행동의 측정

대학생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는 Stumpf 외(1983), 최동선(2003), Cox(2008), Porfeli와 Skorikov(2010)의 도구 등이 있다(<표 II-9> 참조).

<표 II-9>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구분		Stumpf 외(1983)	최동선(2003)	Cox(2008)	Porfeli와 Skorikov(2010)
조사대상		대학생			
도구의 구성	명칭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진로탐색행동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Student (OES-S)	Specific &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문항 수	3영역, 16요인 59문항	2요인 28문항	14문항	2요인 5문항
	구성	• 탐색과정 •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 • 탐색행동에 대한 신념	• 자신에 대한 탐색: 12개 • 직업에 대한 탐색: 16개	단일 요인	• 포괄적 탐색: 3개 • 구체적 탐색: 2개
	응답 범위	1~5점 및 7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합산	평균	평균	평균
도구의 적절성	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
	신뢰도	.67 - .89	.81 - .92	-	.72 - .88
특징		•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위주로 활용되고 있음	-	• 이론적 예측 (탐색, 강화)과 달리 단일 요인 도출	• 자아정체성 연구를 반영하여 도구 개발

Stumpf 외(1983)는 진로탐색을 '이전까지 개인의 자극영역 내에 있지 않던 직업, 직무, 직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의도적인 행동 및 인지과정(p. 192)'으로 정의하고, 진로탐색에 대한 종합적인 모형을 구성한 뒤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진로

탐색이 ① 탐색행동에 관한 신념(beliefs about exploratory behavior, 6개의 하위 척도), ② 탐색과정(exploration Process, 7개의 하위 척도), ③ 탐색반응(reactions to exploratory, 3개의 하위 척도)등의 3가지 영역과 1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3가지 영역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들 16개의 하위요인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된 50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된 7문항, 그리고 빈도를 측정하는 2문항 등 총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은 각각의 하위 척도에 대한 응답자의 점수를 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Stumpf 외(1983)는 이렇게 개발된 도구를 241명의 경영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의 하위 척도별 내적 일치도 계수를 .67~.89로 보고하였다.

도구가 개발된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는 CES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여 왔으며, 이는 최근의 연구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구의 개발 목적인 '진로탐색의 다면적 특성 평가'는 이후 연구에서 제한되어 왔는데 이는 실제 도구가 활용됨에 있어 탐색과정 내 행동 척도를 중심으로 측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최동선, 2003; Cheung & Arnold, 2014; Cheung & Jin, 2016; Lent et al, 2016; Taveira & Moreno, 2003). 이와 관련하여 Flum & Blustein(2000)은 CES가 실제 개발됨에 있어 Jordaan(1963)의 이론보다는 인지적 기대 이론(cognitive expectancy theory)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 풀이하기도 했다.

최동선(2003)이 개발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는 진로탐색행동을 '앞으로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self-appraisal)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 진로탐색의 인지적 과정을 포함하였다.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는 자신에 대한 탐색(self-exploration), 직업에 대한 탐색(environment-exploration)으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는 문항은 한국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5가지 활동(전문가와의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 매체의 이용, 가족 및 동료와의 대화, 직업인과의 접촉 및 직업현장 방문, 실제적인 활동)에 따라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자신에 대한 탐색: 12문항, 직업에 대한 탐색: 16문항). 최동선(2003)은 이러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를 국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81-.92의 내적 일치도계수를 보고하였다.

Cox(2008)는 자신과 직업세계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인 탐색행동과 더불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강화(enrichment)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직업적 관여 행동 측정도구(Occupational Engagement Scale-Student: OES)를 개발하였다. Cox(2008)는 Krieshok 외(2009)가 제시한 적응적 진로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탐색과 강화 행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관여(engagement)라 명칭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57개 행동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14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응답자들은 문항별로 5점 수준의 Likert 척도에 응답하게 된다. Cox(2008)는 31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85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보고하였다. 단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과 강화라는 2가지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문항별 요인적재량은 .47-.68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정보수집과 이해를 위해 수행되는 행동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Porfeli와 Skorikov(2010)는 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진로탐색행동을 구체적 진로탐색(specific career exploration)과 포괄적 진로탐색(diversive career exploration)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응답자들은 5점 수준의 Likert 척도에 응답하게 된다. Porfeli와 Skorikov(2010)의 연구에서는 308명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 학생(19-22세)을 대상으로 총 3번에 걸쳐 2년 간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요인에 따라 문항별 요인적재치는 .7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단, 이 도구는 Kashdan, Rose와 Rincham(2004)이 개발한 호기심과 탐색 측정도구(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 CEI) 다섯 문항에 '진로'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개발이 이루어져 문항수가 적다는 한계를 가진다(Porfeli & Skorikov, 2010).

라.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1)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개념

일반적으로 동기란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 볼 수 있다(Reeve, 2015). 그간 동기 이론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동기를 정의하여 왔다. 예를 들어 목표-설정 이론(Locke & Latham, 1990), 기대-가치 이론(Vroom, 1964)에서는 동기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 수준, 혹은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으로 정의한다. 이에 반

해 성취목표이론(Elliot & McGregor, 2001) 및 조절초점이론(Higgins, 1997)에서는 동기를 행동의 이유로 정의하고 이유에 따른 차이가 행동의 결과 및 정서 상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Van den Broeck, Lens, De Witte, & Van Coillie, 2013).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위와 같은 동기이론들이 제시하는 행동 의도 및 기대 수준, 이유의 차이를 종합하여 동기를 정의하고 양적인 차이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Ryan & Deci, 2000, 2006; Vansteenkiste, Sierens, Soenens, Luyckx, & Lens, 2009).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ci와 Ryan(1985)은 그간 지각된 인과소재(perceived locus of control)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오던 내적(intrinsic) 동기와 외적(extrinsic) 동기의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외적 동기라 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즉 행동 수행 이유가 보상, 외적인 압력 및 요구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행동 이유 인식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동의 이유로써 외적인 조건 또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중요도에 따라 내재화(internalization)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외적 동기를 외재적 조절 동기(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 동기(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 동기(identified regulation)로 구분하였다.

외재적 조절 동기란 개인에게 내재화가 전혀 안된 동기로써 행동을 하는 이유가 보상, 타인으로부터 인정, 칭찬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동기는 자신 스스로 결정한 행동이란 인식을 전혀 동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부과된 조절 동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부적 정서가 행동을 추구하는 이유인 경우이다. 이러한 동기는 어느 정도 개인의 가치에 내재화되었지만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의식한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 감정의 예로는 죄책감, 불안 등이 있다. 확인된 조절 동기란 개인적으로 행동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나름의 가치부여를 한 경우이다. 이는 외적동기이긴 하나 상당히 내재화된 동기로써,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유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행동 수행 이유가 행동 자체에서 느껴지는 만족, 즐거움이 아니기에 내적 동기라 할 수는 없다. 내적 동기는 개인에게 완전히 내재화된 동기로써 행동자체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흥미, 성취감, 만족으로 인해 행동하는 동기이다. 이후 후속 연구에

서 Deci와 Ryan(2000)은 행동할 의도가 전혀 없는 무동기(amotivation)와 외적 동기가 완전히 내재화된 상태로 발현하는 통합된 조절(integrated)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통합된 조절 동기는 확인된 조절 동기의 유사성으로 인해 실증연구에서는 활용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김아영, 2002; Sheldon et al., 2017).

Deci와 Ryan(1985)은 위와 같은 동기의 구분이 일차원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고 이를 자율성(autonomy)이라 정의하였다. 이들은 동기의 질적인 유형을 나타나게 하는 양적인 관점의 개념으로 자율성을 정의한 것이다. 따라서 자율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흥미 및 관심에 따라 행동에서 느끼는 주인의식 수준 및 외적 조건의 내재화를 통한 중요성 인식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앞서 설명한 내적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부과된 조절 동기, 외재적 조절 동기의 질적 차이의 기준이라 볼 수 있다.

Ryan과 Connell(1989)은 위와 같은 자율성의 개념에 따라 앞서 제시된 4가지 유형의 동기를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와 통제된 동기(controlled motivation)로 새롭게 구분하였다. 자율적 동기는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 동기를 의미한다. 이 동기는 자율성이 높은 수준으로써 개인의 적응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rolnick & Ryan, 1989; Vansteenkiste, Simons, Lens, Soenens, & Matos, 2005). 그러나 통제된 동기는 부과된 조절 동기, 외재적 조절 동기로써 영향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Ryan & Deci, 2006).

이러한 구분은 이전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란 구분과 달리 대학생이 스스로 행동의 이유를 선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eci와 Ryan(2000)은 보상의 소재가 내·외재해 있음을 넘어 개인이 행동의 이유를 자신의 선택으로 인식할 때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개인은 외적인 조건 및 요구를 스스로 이해하고 중요성을 확인하여, 외적인 요구라 할지라도 스스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Ryan & Deci, 2006). 이에 따라 최근 국내 대학생의 학습동기를 실증적으로 유형화한 연구에서도 학습동기를 자율동기 복합체(autonomous motivation composite)와 타율동기 복합체(controlled motivation composite)로 구분하고 있다(고홍월, 2015).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율적 동기란 대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주인의식을 느끼고 흥미 및 관심,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 의도라고 볼 수 있다(Ryan & Deci, 2006; Sheldon et al., 2017). 자율적 동기를 갖고 행동을 수행하는 대학생은 자신의 선택 및 의지(will)에 따라 목표 달성 행동을 수행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다(Guay, 2005; Ryan & Deci, 2000). 또한 이러한 대학생은 자신의 가치와 흥미에 일치하고, 자신이 승인(self-direction)한 행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통제된 동기를 갖고 행동을 수행하는 대학생은 사회적 압력 및 요구를 포함한 외적인 조건 때문에 행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6).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자율적 동기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진정한 자기탐색(self-exploration)등 긍정적인 행동 및 성과를 촉진한다고 설명한다(Ryan & Connell, 1989; Weinstein, Przybylski, & Ryan, 2012)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Guay(2005)는 진로탐색행동의 성과에 있어서도 자율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 몇몇의 후속 연구들은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자율적 동기와 진로결정수준의 유의한 관계를 실증하였다(박소영, 정영숙, 2011; 최윤정, 구본정, 2010; Guay, Ratelle, Senécal, Larose, & Deschênes, 2006; 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Paixao & Gamboa, 2017). 이러한 실증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란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탐색행동에 주인의식을 느끼고 흥미 및 관심,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 의도라 볼 수 있다(Guay, 2005; Ryan & Deci, 2006; Sheldon et al., 2017)

2)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측정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Ryan과 Connell(1989), Guay(2005), Sheldon 외(2017)가 개발한 도구가 있다(<표 Ⅱ-10> 참조). 이 측정도구의 문항들은 행동의 수행 이유만을 질문하며(예: 재미있기 때문이다.), 특정 행동은 지시문(왜 숙제를 합니까?)으로 제시된다. 연구자는 연구의 맥락에 맞게 지시문을 수정하여 자율적 동기 측정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시문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측정할 수 있다.

<표 II-10>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측정도구

구분		Ryan과 Connell(1989)	Guay(2005)	Sheldon 외(2017)
조사대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학생	대학생 및 직장인
도구의 구성	명칭	Self-Regulation Questionnaires (SRQ)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	Relative Autonomy Index (RAI)
	문항 수	26문항	32문항	24문항
	구성	• 자율적 동기 - 내적 동기: 6문항 - 확인된 조절 동기: 7문항 • 통제된 동기 - 부과된 조절 동기: 7문항 - 외재적 조절 동기: 6문항	• 자율적 동기 - 내적 동기: 8문항 - 확인된 조절 동기: 8문항 • 통제된 동기 - 부과된 조절 동기: 8문항 - 외재적 조절 동기: 8문항	• 자율적 동기 - 내적 동기: 4문항 - 확인된 조절 동기: 4문항 -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4문항 • 통제된 동기 - 부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4문항 - 외재적 조절 동기: 4문항 - 무동기: 4문항
	응답 범위	1-4점 (Likert scale)	1-7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평균	합산	평균
도구의 적절성	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예측타당도	교차타당도 구인타당도 예측타당도
	신뢰도	• 학업: .62 - .82 • 친사회적 행동: .62 - .87	.91 - .95	.74~.81

자기결정이론에 따라 Ryan과 Connell(1989)은 학업(academic)과 친사회적(prosocial) 행동의 자율적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SRQ(Self-Regulation Questionnaires)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측정대상으로 한다. SRQ는 학생들에게 학업 및 친사회적 행동(예: 왜 숙제를 합니까?)을 지시문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앞서 제시한 내적,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동기로 질문하여 행동 별 네 개의 동기 수준을 측정한다. 이러한 동기 유형별 점수는 안정적인 특징으로 간주되며, 신뢰도 또한 동기 유형별로 보고된다. 이 연구에서 학업과 관련

된 동기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62-.82,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동기 내적 일치도 계수는 .62-.87 이었다.

SRQ에서 자율적 동기 수준은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 동기의 합산으로 계산 된다. 이는 부과된 조절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자율성 수준이 거의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Deci & Vansteenkiste, 2004). 단, 이러한 측정방식은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 동기의 자율성 수준의 차이가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율성을 갖고 있는 개인은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확인된 조절 동기 수준도 높다고 가정되며, 실제 측정에서 동기별 가중치를 두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율적 동기 수준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에 합산으로 계산된다(Sheldon et al., 2017).

SRQ가 개발되고 활용됨에 따라 학업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의 자율적 동기를 측정하고 있다. 이중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관련된 자율적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Guay(2005)가 개발한 CDMAS(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가 있다.

Guay(2005)는 도구 개발을 위해 먼저, 진로결정을 촉진하는 진로탐색행동 표본을 선정하였다. 행동표본의 선정은 대학생 및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14개의 행동이 도출되었으나 이중 여섯 개의 행동은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적절한 문항 수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삭제되었다. CDMAS는 이러한 여덟 개의 행동 별로 네 가지의 동기를 질문한다. 이에 따라 총 문항은 32개로 구성된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7점 Likert척도에 응답한다. 네 가지 동기 유형별에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95로 나타났다.

한편, Sheldon 외(2017)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자율적 동기 측정도구가 질문 방식 및 문항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RAI(Relative Autonomy Index)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그간 자율적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가 부과된 조절 동기의 자율성은 측정하지 못하였음을 분석하고, 부과된 조절동기를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positive introjection), 부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negative introjection)로 구분하였다.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는 외적 조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인식한 동기를 의미하며 부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는 외적 조건에 기인한 부정적

정서, 즉 죄책감 및 불안을 피하고자 인식한 동기를 의미한다(Assor, Vansteenkiste, Kaplan, 2009). 또한 통제된 동기로써 무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총 6개 요인, 24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중 자율적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은 3개 요인, 15개이다. 연구자들은 미국 대학생과 러시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자율적 동기를 측정하여 교차타당도 및 예측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중다원축적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74~.81로 나타났다.

4.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주요 변인 간의 관계

가. 변인 간의 직접효과

1)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그간 진로관련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 관련 변인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왔다(Paa & McWhirter, 2000; Whiston & Keller, 2004). Roe(1957)의 욕구이론(need theory), Bowlby(1982)의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등을 기반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관련 변인이 대학생 진로결정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여 왔다. 또한 Whiston과 Keller(2004)는 대학생 시기의 진로의사결정과 가족관련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 29개의 연구를 종합하여, 가족 과정 변인(정서적 지지, 자율성지지, 격려, 온화한 태도 등)이 가족 구조 변인(부모학력, 직업 등) 및 가족 환경 변인(사회적 지위 등)에 비해 대학생 진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연구를 고려할 때,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은 개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진로 관련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촉진할 것이라 기대된다(Blustein et al., 1991; Fouad et al., 2016).

실제 Leal-Muniz와 Constantine(2005)는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와 진로선택몰입에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집단주의문화가 강한 집단에서는 가족관련 요인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지지가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

에 따라 집단주의가 강한 멕시코계 미국인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지지가 개인으로 하여금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진로탐색에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여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최수정, 정철영(2007)은 가족관련 변인들을 종합하여 진로선택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관련 변인을 가족구조변인, 가족과정변인, 가족결과변인으로 구분하였고 가족 구조변인으로 부모의 결혼상태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족 과정변인으로 비정서적 가족과정과 인지적 가족과정을, 가족결과변인으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비정서적 가족과정이 진로결정몰입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서적 가족과정은 가족결과변인을 통해 진로결정 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이 가족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애착도 떨어지게 된다는 Leal-Muniz와 Constantine(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지지와 취업불안의 관계

Roe(1957)의 욕구이론, Bowlby(1982)의 애착이론을 통해 볼 때,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유는 정서적 안정이라 볼 수 있다(Fouad et al., 2016). 즉 가족의 지원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매개변인 이라는 것이다(Flum, 2001; Fouad et al., 2016). 이에 따라 몇몇의 연구에서는 가족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특성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왔다.

Larson과 Wilson(1998)은 1,00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체계 및 특성불안,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족 내 대학생이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고(Individuation), 가족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특성불안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된다. 특히 가족의

역기능은 청소년기부터 경험이 축적되어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영선 외(1999)는 국내 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특성불안,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특성불안 및 진로미결정에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애착은 두 변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미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가족지지는 취업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성불안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 경향성을 의미하며(Spielberger, 1972), 따라서 오랫동안 형성된 가족지지가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할 때, 이는 취업불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족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Bowlby(1982)의 애착이론은 부모애착이 학생의 안정적 정서를 촉진시킴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탐색을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탐색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식수준을 넓힐 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최동선, 2003). 또한 이러한 경험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개인에게 세상을 해석하는 인지적 도식을 형성함으로써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 청년기, 나아가 성인기까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된다(최동선, 2003).

Blustein, Prezioso와 Schultheiss(1995)는 위와 같은 설명에 기반하여 애착을 통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제시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은 자신과 직업세계 이해를 위해 낯선 사람을 만난다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등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행동을 포함한다(Greenhaus & Sklare, 1981). 따라서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생은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할 수 있다. Blustein 외(1995)는 이러한 진로탐색행동의 성격을 가정할 때,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대학생의 경우, 재충전(emotional refueling)을 통해 진로탐색행동을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Guan 외(2015)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부모 지원과 낮은 수준의 간섭이 대학생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부모의 진로탐색행동을 학생에게 질문하지 않고 실제 해당 학생 부모에게 질문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영향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로는 이득연, 홍경자(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 4학년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심리적 독립, 부모애착, 가족지지를 선정하고 이 변인들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부모애착, 가족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4)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대학생의 진로관련 행동연구에서 정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공윤정, 2014; 이지은, 이제경, 2015). 이는 최근 진로 관련 이론들이 진로발달과정에서 마주하는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고 이를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맥락적 행동 이론(contextual action theory)(Young & Popadiuk, 2012; Young, Valach, & Collin, 2002)은 진로행동이 일어나는 맥락 중 정서적 맥락을 중요하게 간주하며 정서에 따라 진로관련 행동이 강화되기도 하고, 억제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정서적 맥락 중 특성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Park et al., 2015; Vignoli et al., 2005). 특성불안이란 학습된 불안으로써 개인차를 지닌 경향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불안이 높은 개인은 외부사건에 대해 정서적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인은 진로탐색행동 결과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가지며,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 중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환기되어 행동을 지속하기 어렵다(Vignoli, 2015).

이에 따라 몇몇의 실증 연구들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특성불안의 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Park et al., 2015; Vignoli et al., 2005).

예를 들어 Vignoli 외(2005)는 프랑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성불안, 학업관련 두려움, 부모기대에 대한 두려움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학업관련 두려움 및 부모기대에 대한 두려움은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특성불안은 성별에 상관없이 진로탐색행동을 저해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김경태(2003)는 전문대학생의 경우, 특성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진출분야가 존재하는 일반대학생의 특성불안은 진로준비행동을 저해한다고 보고하였고, 오은주(2014) 또한 대학생의 특성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실증연구들을 고려할 때, 취업불안은 특성불안의 영향을 받는 정서적 상태로써 진로탐색행동을 저해할 것이라 고려된다. 즉 높은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낮은 기대, 비관적 사고를 유발하여 진로탐색행동 관련 동기화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취업불안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최근 진로미결정 관련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자를 발달적 진로미결정자와 만성적 진로미결정자를 구분하고 있다(Jaensch et al., 2015; Santos et al., 2014). 발달적 진로미결정자는 진로정보와 탐색관련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인간의 발달단계 상 자연스러운 미결정자를 의미하고 만성적인 미결정자는 불안, 낮은 자존감, 및 진로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을 고질적으로 호소하는 자를 의미한다(Brown et al., 2012; Gati et al., 1996; Saka et al., 2008). 따라서 만성적 미결정자는 불안한 정서로 인해 진로결정을 미루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Brown et al., 2012; Gati et al., 1996; Saka et al., 2008), 다양한 연구에서는 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실증하고 있다(Fuqua et al., 1987; Kaplan & Brown, 1987).

불안과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Hardin 외(2006)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그간 불안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들이 일반

적인 불안(특성불안)과 사회불안(상태불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일반적 불안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불안이 진로선택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6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특성불안과 사회불안 모두 진로선택몰입에 부적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취업불안과 진로선택몰입의 영향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현주(2008)는 국내 대학생 469명을 대상으로 사회불안과 진로정체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차이 없이 사회불안이 진로정체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이미라(2015)는 국내 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선택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6)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진로탐색과 관련되어 이론을 정립하였다고 평가받는 Jordaan(1963)의 연구 이후,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이 정의되고 이론적 모델이 정립됨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은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기초적이고 근간이 되는 과업으로 가정되어 왔고, 특히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대학생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제시되어 왔다(Taveira & Moreno, 2003; Zikic & Hall, 2009). 실제 선행연구 및 이론은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과정에서 진로탐색행동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왔는데, Taveira와 Moreno(2003)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진로탐색행동이 직업적 흥미(vocational interest), 미래 지향성(future time perspective) 등 직업적 성숙과 자기개념 구체화를 촉진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밖에 다양한 실증연구에서도 진로탐색행동이 긍정적인 진로의사결정과정과 더불어 취업 및 직장만족과 직업생활 결과물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왔다(Ferrari, Ginevra, Santilli, Nota, Sgaramella, & Soresi, 2015; Lent et al., 2016; Pott, 2015; Werbel, 2000).

Robitschek와 Cook(1999)은 미국 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구명하였다. 이들은 Harren(1979)의 모델을 기반으로 진로탐색행동이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성향과 진로정체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

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위해 진로탐색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Blustein 외(1994)는 미국 대학생 134명을 대상으로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적 선호 일치도,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진로탐색행동만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진로발달과업의 수행에 있어 진로탐색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적 선호 일치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진로선택에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진로탐색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적 선호 일치도는 다른 진로 대안들을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풀이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지근, 이기학(2011)은 서울소재대학에 재학 중인 2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수준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 직업탐색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하정, 홍지영(2012)은 진로탐색행동 유사 변인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쳐 진로결정수준을 촉진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경아, 김진현(2015)은 간호대학생 569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간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나.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진로선택몰입 관련 변인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고찰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대학생 진로발달에서 가족관련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여 왔다(Bowlby, 1982; Fouad et al., 2016; Whiston & Keller, 2004). 즉 가족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획득한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몇몇의 선행연구는

대학생의 특성불안이 가족관련 변인과 진로결정에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다(이영선 외, 1999; Larson & Wilson, 1998).

특히, Braunstein-Bercovitz 외(2012)는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애착관계 형성이 진로 관련 불안을 촉진하고 나아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불안을 특성불안과 진로 관련 불안으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진로관련 불안만이 애착과 진로 미결정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정서적 상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러한 정서적 상태는 오랫동안 형성해온 가족관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과정을 진행하면서 형성되는 자신의 진로결정을 향한 태도로써 진로탐색이란 과업을 요구한다(Blustein et al., 1989; Blustein et al., 1994; Harren, 1979). 적절한 진로탐색 없이는 진로선택몰입을 형성하기 어렵고, 설사 진로결정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진정으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Duffy & Dik, 2009; Waterman, 2015). 따라서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는 가족지지는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Downing & Nauta, 2010; 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마지막으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가족지지는 취업불안을 낮추어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고, 종국에는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Vignoli 외(2005)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부모애착, 양육방식)과 불안(특성불안 및 학업관련 두려움, 부모기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학생은 진로선택이라는 상황에 특성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이중 매개효과를 가정하고자 한다.

다.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

1)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취업불안은 특성불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써 진로탐색행동을 저해하는 변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최근 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이론적 가정과 달리 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주명진, 김정남, 2011; Vignoli, 2015).

<표 II-11> 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정적 관계 분석 연구

구분		연구 대상	해석
정적 효과 분석	주명진, 김정남, (2011)	대학생	• 특성불안은 진로탐색행동과 관계없음 • 상태불안은 진로탐색행동 촉진
	Vignoli (2015)	프랑스 고등학생	• 특성불안, 상태불안 모두 진로탐색행동 촉진 • 특히 상태불안의 영향력이 높음
정적 효과 및 부적 효과 동시 분석	Park 외 (2017)	대학생	• 4년 종단연구 수행 • 초기 특성불안은 초기 진로탐색행동은 저해하지만 진로탐색행동 변화량은 촉진
	Vinoli 외 (2005)	프랑스 고등학생	• 특성불안은 남학생과 여학생 구분 없이 진로탐색행동 저해 • 여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두려움은 진로탐색행동 촉진

실제 Park 외(2017)는 국내 대학생을 501명을 대상으로 특성불안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미결정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기 특성불안이 초기 진로탐색행동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후 진로탐색행동 변화량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특성불안이 상황에 따라 상태불안을 자극하고 상태불안은 동기를 자극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주명진, 김정남, 2011; Reed et al., 2004; Vignoli, 2015).

특히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취업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한 조규판(2008)은 취업불안이 적정한 수준에서 형성된 경우, 긍정적인 긴장을 촉진하여 오히려 진로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박찬웅, 김현주(2018)는 직업훈련시설 및 보호 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태불안, 진로탐색행동, 멘토링 기간

의 관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멘토링이라는 처치가 청소년의 불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상태불안은 진로탐색행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멘토링 기간의 조절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단순히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 환경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라 볼 수 있다(Bandura, 1977; Lent et al., 2016).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자율적 동기 형성을 위한 내재화 과정으로 이해한다(Ryan & Deci, 2000, 2006). 즉 대학생은 취업과 관련하여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정서를 변화의 신호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Reeve, 2015).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통해볼 때, 적정 수준의 취업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취업불안이 일정 수준 내재화 되었을 때 가능한 결과라 풀이되며, 이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형성을 전제 한다. 즉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낮은 학생에게 취업불안은 낮은 기대, 비관적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지만, 높은 학생에게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 수행의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ardin 외(2006)는 특성불안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상태불안의 맥락으로 사회불안(social anxiety)과 직업탐색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개념(self-construal)이 명확하지 않은 남학생의 경우, 사회불안이 직업탐색행동을 저해하나, 자기개념이 명확한 남학생의 경우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적 동기의 특징으로 명확한 자기개념 형성이 전제된다는 점에서(Ryan & Deci, 2006),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취업불안의 부적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더욱이 Higgins(1997)는 조절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을 통해 불안이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기는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와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동기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는 향상초점(promotion focus),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으로 작용한다. 이 중 예방초점의 동기는 불안에 의

해 유발되며, 개인은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천석준, 이기학(2008)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이 진로탐색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이라는 정서적 상태가 동기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최근 몇몇 선행연구는 진로탐색행동이 개인의 진로발달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이론적인 예측보다 낮게 보고하고 있다(Porfeli & Skorikov, 2010; Taveira & Moreno, 2003; Vignoli, 2015). 실제 Cheung과 Arnold(2014)는 홍콩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수행하여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자기이해 향상 및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Xu와 Tracey(2014)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직업에 대한 탐색이 역기능적 진로신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오히려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torme와 Celik(2018)은 개인이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진로선택을 확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임은미(2011)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면과 대면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 이론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막연한 진로탐색을 하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체성 및 진로정체성과 관련된 이상희, 서유란(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진로탐색을 일정 수준 이상 수행하고 있으나 진로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김지근, 이기학(2011)은 진로탐색행동 중 자기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오히려 부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간 진로탐색행동 관련 연구자들은 진로탐색행동의 의도성(intention)을 강조하며, 진로탐색행동이 긍정적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임을 설명하여 왔다(최동선, 2003; Stumpf et al., 1983). 예를 들어 진로구성주의이론에서는 개인의 의도적인

진로탐색행동이 향후 진로전환을 위한 적응력(adaptability)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임을 제시한다(Blustein, 1992; 1997; Flum & Blustein, 2000; Savickas, 2012). 개인은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주변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미래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Savickas et al., 2009).

하지만 앞서 제시한 진로탐색행동의 의도성이 반드시 자율적인 행동, 즉 자신의 관심 및 인식된 중요성에 따라 유발된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취업이라는 요구에 따라 비자율적인 의도로 수행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Blustein, 1997; Porfeli & Skorikov, 2010; Zikic & Hall, 2009).

이에 따라 최근 진로탐색행동관련 연구자들은 진로탐색행동이 일어나는 맥락, 즉 자율적인 행동인지, 비자율적인 행동인지 여부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의 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Zikic & Hall, 2009). 진로탐색행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해 가는 과정으로써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개인은 진로탐색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만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Savickas, 1997; 2012). 하지만 비자율적인 진로탐색행동으로 수집된 정보는 개인이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비자율적 진로탐색행동은 자기개념 형성을 위한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정보를 해석하는데 있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lustein et al., 1995; Richardson & Zikic, 2007; Vignoli, 2015).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이론적 예측과 다른 결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형성에 따른 차이라 판단된다(Flum & Blustein, 2000). 실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는 자율적 동기가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행동과 행동에 따른 성과를 조절하는 변인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Littman-Ovadia, Oren, & Lavy, 2013; Luyckx, Soenens, Berzonsky, Smas, Goossens, & Vansteenkiste, 2007; Moller, Deci, & Ryan, 2006). 더욱이 불확실성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대학생들이 진로탐색행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한 자율성 수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Guay et al., 2006; Paixao & Gamboa, 2017).

실제 Guay 외(2006)는 대학생 진로결정과정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바 있다. 연구자들은 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3년간의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진로미결정자가 발달적 진로미결정자와 만성적 진로미결정자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로미결정자의 구분에서 만성적 진로미결정자를 규정하는 핵심 특징은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임을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높은 대학생은 진로미결정자라 하더라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반면, 낮은 대학생은 지속적으로 진로미결정 관련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진로 관련 경험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조절효과를 갖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대학생 진로 관련 연구는 주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지지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낮게 보고되기도 하였다(박고운, 이기학, 2007; 송현심, 홍혜영, 2010). 이러한 결과는 국내 대학생이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는 이유가 주로 외적 동기 및 통제된 동기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최동선,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 분석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라. 종합

지금까지 논의한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Ⅱ-11>과 같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및 이론에 따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인과적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 자율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취업이라는 문제 상황에 따라 불안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를 변화의 신호로 인식하고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Reeve, 2015; Ryan & Deci, 2000, 2006). 또한 자율적인 진로탐색행동은 비자율적인 진로탐색행동보다 진로선택몰입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리라 풀이된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Zikic & Hal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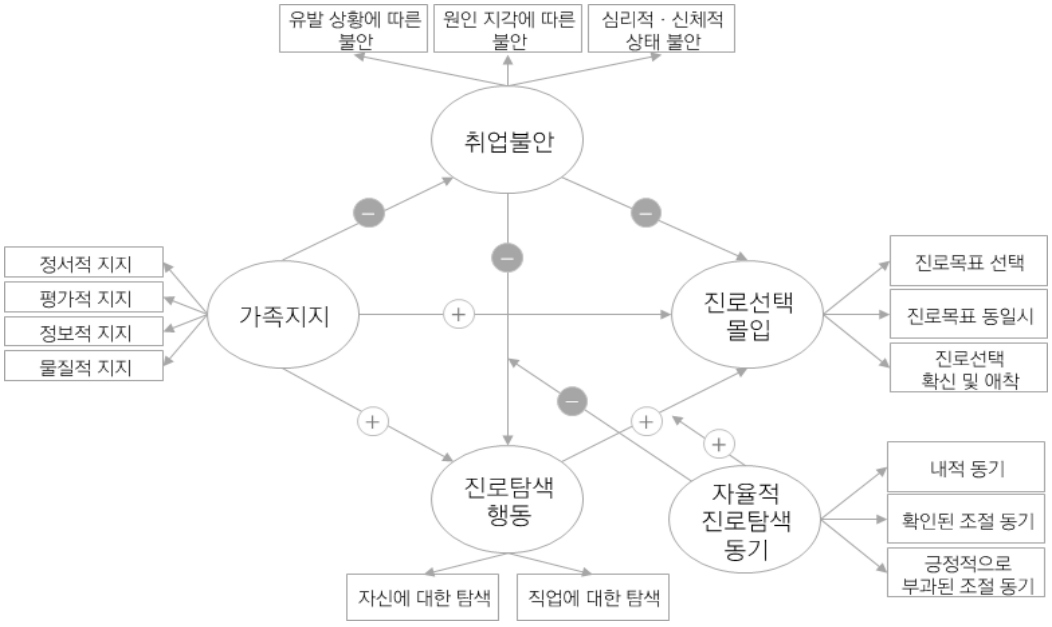
<표 II-12>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주요 변인 간의 관계 종합

구분		선행연구	관련 이론
직접효과	가설 2-1.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 최수정, 정철영(2007) • Blustein 외(1991) • Leal-Muniz와 Constantine(2005)	• 욕구 이론 • 애착 이론
	가설 2-2.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이영선 와(1999) • Braunstein-Bercovitz 외(2012) • Larson과 Wilson(1998) • Vignoli 외(2005)	
	가설 2-3.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 이득연, 홍경자(2004) • Blustein 외(1995) • Guan 외(2015)	
	가설 2-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김경태(2003) • 오은주(2014) • 이현주(2009) • Park 외(2015) • Vignoli 외(2005)	• 맥락적 행동 이론
	가설 2-5.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 이현주(2008) • 이미라(2015) • Hardin 외(2006) • Meldahl과 Muchinsky(1997)	• 진로의사 결정이론 • 진로발달 이론
	가설 2-6.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김지근, 이기학(2011) • 이경아, 김진현(2015) • 하정, 홍지영(2012) • Blustein 외(1994) • Germeijs와 Verschueren(2006) • Robitschek와 Cook(1999)	
매개효과	가설 3-1.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 이영선 와(1999) • Braunstein-Bercovitz 외(2012) • Larson과 Wilson(1998)	• 진로구성 주의이론
	가설 3-2.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Downing과 Nauta(2010) • Tokar 외(2003)	
	가설 3-3.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Vignoli 외(2005)	-
	가설 3-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
	가설 3-5.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
조절효과	가설 4-1.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	• 천석준, 이기학(2008) • Hardin 외(2006)	• 조절초점 이론 • 자기결정 이론
	가설 4-2.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	• Guay 외(2006) • Paixao와 Gamboa(2017)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론적 배경을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주: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 부호 '-'는 완화 효과, '+'는 강화 효과를 의미함.

연구 모형에 따르면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정적 영향을, 취업불안에 부적 영향을,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 영향을, 진로선택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완화할 것이며,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을 강화할 것이다.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교는 총 189개교, 재학생 수는 총 1,467,125명이다(<표 Ⅲ-1> 참조). 지역별로 학교 수와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학교 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70개교, 비수도권에 119개교로 약 1:1.7의 비율이고 재학생 수는 수도권에 572,418명, 비수도권에 894,707명으로 약 1:1.6의 비율이었다.

<표 Ⅲ-1> 2017년 지역별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재적학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수도권	서울	38	499,021	370,041	128,980
	인천	3	43,768	29,957	13,811
	경기	29	241,244	172,420	68,824
	소계	70	784,033	572,418	211,615
비 수도권	부산	12	198,348	141,723	56,625
	대구	3	64,336	45,458	18,878
	광주	10	84,814	61,314	23,500
	대전	11	112,638	83,245	29,393
	울산	2	22,305	15,083	7,222
	세종	1	18,712	12,751	5,961
	강원	8	103,770	69,864	33,906
	충북	10	102,420	70,807	31,613
	충남	13	159,783	114,762	45,021
	전북	9	89,230	62,214	27,016
	전남	10	48,619	35,382	13,237
	경북	18	159,290	111,313	47,977
	경남	10	84,580	59,132	25,448
	제주	2	17,741	11,659	6,082
	소계	119	1,266,586	894,707	371,879
합계		189	2,050,619	1,467,125	583,49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7 교육통계연보. 충북: 교육과학기술부.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 모집단으로 설정한 대학교 재학생 수

전공 계열 및 성별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자연·공학계열 전공 재학생 수와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각각 549,720명과 578,425이고, 이는 약 1:1.1의 비율이다. 또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각각 748,832명과 718,293명으로 약 1:1.0의 비율이다. 단 자연·공학계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각각 370,522명과 179,198명으로 약 1:0.5의 비율이었으며, 인문·사회계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각각 259,517명과 318,908명으로 1:1.2의 비율이었다.

<표 Ⅲ-2> 2017년 전공 및 성별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

구분		재학생 수		
		남학생	여학생	합계
자연·공학계열	자연계열	82,685	89,886	172,571
	공학계열	287,837	89,312	377,149
	소계	370,522	179,198	549,720
인문·사회계열	인문계열	66,742	113,626	180,368
	사회계열	192,775	205,282	398,057
	소계	259,517	318,908	578,425
기타계열	교육계열	22,760	45,944	68,704
	의약계열	36,717	73,270	109,987
	예체능계열	59,316	100,973	160,289
	소계	118,793	220,187	338,980
합계		748,832	718,293	1,467,12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7 교육통계연보. 충북: 교육과학기술부.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 모집단으로 설정한 집단 재학생 수

나. 표집

1) 표집크기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크기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표집크기를 고려하여 표집크기를 설정하였다. 우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크기와 관련하여 Krejcie와 Morgan(1970)은 모집단의 크기가 1,000,000명 이상일 경우, 신뢰도 95% 수준에서 적절한 표집크기가 384명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류근관(2005)은 사회과학분야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한 경우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설명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표집크기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정법과 모형 적합도의 2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표집크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할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이다. 최대우도법에 권장되는 최소한의 표집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명 이상이며 200명 이상이 되어야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위험이 낮아진다(김대업, 200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모형 적합도는 x^2검정 통계량을 기준으로 도출된다. x^2검정 통계량은 사례 수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사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한 표본 수가 500개 이상이면 모형설정에 관계없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김대업, 2008).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2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표본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집크기를 490명으로 설정하였다. 단,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75부, 총 52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 표집방법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층화표집 및 군집표집 그리고 비율표집을 활용하였다. 층화표집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층화표집은 모집단 안에 어떤 속성에 의하여 여러 개의 하부집단이 있을시 이를 표집에 반영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용이하게 만드는 표집방법이다(성태제, 1998). 특히 집단 간 차이가 집단 내 차이보다 큰 경우, 층화 표집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집방법으로 준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학 소재지(수도권/지방), 전공 계열, 성별, 학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해왔다. 우선 대학 소재지는 대학생의 취업성과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연구되어 왔고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왔다(박환보, 2011; 박환보, 김성식, 2011). 특히, 류장수(2005)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 대학생은 구직정보를 획득하는 경

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데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소재지 차이는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공 계열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지선, 2004; 이성식, 2007; 임은미, 박승민, 엄영숙, 2009). 이는 전공 계열에 따라 졸업 후 취업률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공 계열에 따라 대학생이 진로선택을 수행하는 데 있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라(2015)는 전공 계열에 따라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성별 또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 판단된다. 이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진로선택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느끼는 불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Hardin et al., 2006). 실제 국내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분석한 실증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여왔다(민지애, 유금란, 2015; 이현주, 2008).

마지막으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년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저학년에 비해 자신의 진로목표 선택에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윤경 외, 2017). 이와 관련하여 이미라(2015)는 학년에 따라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선택몰입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학 소재지(수도권/지방), 전공 계열, 성별, 학년으로 구분된 집단에 따라 진로선택몰입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수도권/지방), 전공 계열, 성별, 학년을 층화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단 층화기준의 수가 많아지면, 집단 별 최소 적정 표집 수가 3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외에 변인들은 기준에서 제외하였다(최동선, 2003).

또한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수도권 3개 대학, 비수도권 4개 대학을 무선 군집표집하였다. 군집표집은 표집의 단위를 개인으로 하지 않고 집단으로 하는 표집방법이다(성태제, 1998). 이러한 방법은 표집목록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무선표집으로 선정된 7개 대학에는 대학별로 70명을 기준으로 표집하였다. 선정된 7개 대학에서의 표집은 전공 계열과 성별, 학년을 기준으로 층화하여 비율 표집하였다. 재학생들의 진로 방향이 어느 정도 특화된 전공(예: 의약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자연・공학계열의 학생 35명, 인문・사회계열 학생 35명을 표집하였으며(약 1:1), 자연・공학계열 남학생 23명, 여학생 12명(약 1:0.5), 인문・사회계열 남학생 16명, 여학생 19명(약 1:1.2)을 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별 남학생 39명과 여학생 31명을 표집하였다(약 1:0.8). 또한 계열별, 성별로 구분된 각 집단의 저학년(1-2학년), 고학년(3학년 이상) 비율이 약 1:1이 될 수 있도록 표집하였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표집 방법

3. 조사 도구

이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 <표 Ⅲ-3>과 같은 조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개별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 및 일반적 사항을 측정하는 영역을 포함하여 총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3> 조사 도구의 구성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Ⅰ. 진로선택몰입[1]	① 진로목표 선택	Ⅰ - 1 - 7	7
	② 진로목표 동일시	Ⅰ - 9 - 14	7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Ⅰ - 15 - 21	7
Ⅱ. 가족지지	① 정서적 지지	Ⅱ - 1 - 7	7
	② 평가적 지지	Ⅱ - 8 - 13	6
	③ 정보적 지지	Ⅱ - 14 - 19	6
	④ 물질적 지지	Ⅱ - 20 - 24	5
Ⅲ. 취업불안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Ⅲ - 1 - 7	7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Ⅲ - 8 - 18	11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Ⅲ - 19 - 28	10
Ⅳ. 진로탐색행동	① 자신에 대한 탐색	Ⅳ - 1 - 12	12
	② 직업에 대한 탐색	Ⅳ - 13 - 28	16
Ⅴ.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① 내적 동기	Ⅴ - 1 - 4	4
	② 확인된 조절 동기	Ⅴ - 5 - 8	4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Ⅴ - 9 - 12	4
Ⅵ.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전공 등	Ⅵ - 1(1-1) - 5	6
합계			119

주 1)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는 이 연구를 통해 개발·활용하였으며 본조사 문항 분석 결과, 9번 문항과 15번 문항은 기준에 부적합 하여 삭제됨.
2) 문항순서의 경우,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해 무작위 순서로 배열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응답오차가 일정치 않음을 보고하고 있고(고길곤, 2012; 이주현, 2011), 무작위 순서 배열의 피로효과 및 불성실 응답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순차적으로 배열
3) 예비조사 분석 결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식, 취업 및 가족과 관련된 인식 순서로 묻는 것이 응답의 편의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순서를 진로선택몰입,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취업불안, 가족지지 순서로 재배치하여 본조사 활용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개별 변인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및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검정,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학생 진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을 대상으로 개별 측정도구의 문항내용이 적합한지, 대학생의 상황 및 특성에 적합한지,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 받음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문항 별로 7점 Likert 척도(1= 전혀 타당하지 않음, 7= 매우 타당함)로 평정을 받은 후, 평균값 4.0 미만인 문항은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 받음으로써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대학생에게 문항 별로 5점 Likert 척도(1=매우 어려움, 5=전혀 어렵지 않음)로 평정을 받은 후, 평균값 3.0 미만인 문항은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수도권 2개 대학, 1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결측치 3부 및 불성실 응답 2부를 제외한 총 145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될 관찰변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단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의 경우, 문항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3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가.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이란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의미한다(Blustein et al., 1989; Luyckx et al., 2008; Porfeli et al., 2011; Waterman, 2015).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결과, 국내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도구 개발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먼저 구인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진로선택몰입의 개념 및 개념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에는 몰입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

하기 위해 선호, 결심, 확신, 애착, 동일시 등의 용어가 활용됨을 확인하였다(<표 II-3> 참조).

도출된 개념적 특징을 기준으로 기존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문항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문항별 행동의 특징으로 ① 직업분야 선호(preference), ② 직업분야 결심(decidedness), ③ 직업역할 통합(internalization), ④ 자기표현(self-expression), ⑤ 확신(certainty), ⑥ 애착(attachment)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II-4>참조).

<표 III-4> 기존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문항 종합

구분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① 선호[1]	② 결심[2]	③ 통합[3]	④자기표현[4]	⑤ 확신[5]	⑥ 애착[6]
직업 선호 및 애착	Blustein 외(1989)	●	●	△[7]	-	●	-
	Colarelli와 Bishop(1990)	●	●	●	-	●	●
	고향자(1992)	●	●	●	-	●	●
정체성 몰입	Balistreri 외(1995)	-	●	-	-	●	-
	Crocetti 외(2008)	-	-	-	●	-	●
	Luyckx 외(2008)	●	●	●	●	●	●
	Porfelli 외(2011)	●	●	●	-	●	

주 1) 선호: 관심 및 흥미가 있는 직업분야 인식 수준
(예: 나는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 결심: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입직할 직업분야 결정 인식 수준
(예: 나는 내가 추구할 직업을 분명히 결정했다.)
3) 통합: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에 자신의 신념, 가치, 삶의 방향을 반영한 수준
(예: 나의 가치를 실현시켜 줄 진로를 선택했다.)
4) 자기표현: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가 곧 자기(꿈, 자신 등)을 표현한다고 인식하는 수준
(예: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 나는 나 자신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5) 확신: 진로선택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이루고자 하는 태도
(예: 나는 나의 진로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6) 애착: 진로선택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의미
(예: 앞으로 나의 진로가 분명해져서 정말 기쁘다.)
7) 선호로써의 '흥미'와 통합으로써의 '가치관'이 문항에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
8) 측정도구 명칭
- Blustein 외(1989)의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VECS)
- Colarelli와 Bishop(1990)의 Career Commitment Scale(CCS)
- 고향자(1992)의 직업선택확신 검사
- Balistreri 외(1995)의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EIPQ)
- Crocetti 외(2008)의 Utrecht-Management of Identity Commitments Scale(UMICS)
- Luyckx 외(2008)의 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DIDS)
- Porfelli 외(2011)의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VISA)

진로선택몰입 개념의 특징과 문항별 행동의 특징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을 ① 진로목표 선택(choice of career goal), ② 진로목표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areer goal),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certainty & attachment toward career choice)으로 구성하였다(<표 Ⅲ-5> 참조).

<표 Ⅲ-5>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

구분	① 진로목표 선택	② 진로목표 동일시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정의	• 진로목표로써 자신이 입직할 직업분야를 선택하였다고 인식하는 수준	• 진로목표 달성을 통해 수행할 직업역할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수준	•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수준
형성 과정	• 다양한 직업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흥미 및 긍정적인 피드백 등에 따라 특정 직업분야 선택	• 자신이 수행할 직업역할이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탐색함으로써 형성	•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면서 확신 및 특별한 감정 형성
특징	• 잠정적 선택일 수 있음 • 사회문화에 따른 바람직함의 기준 및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한 피상적 결정일 수 있음	• 잠정적 선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종국에는 최종 진로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의미 부여	• 진로선택을 달성함에 있어 높은 자신감 및 동기부여 • 진로선택을 통해 행복, 만족감 인식
관련 연구	• Blustein 외(1989) • Harren(1979)	• Harren(1979) • Luyckx 외(2008) • Porfeli 외(2011)	• Blustein 외(1989) • Harren(1979) • Waterman(2015)

① 진로목표 선택이란 진로목표로써 자신이 입직할 직업분야를 선택하였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관심 및 흥미가 있는 직업분야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선호)를 의미하며,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입직할 직업분야를 결정(결정)했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단, 특정 시점에서의 직업분야 결정 인식은 대학생활 동안 변할 수 있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결정보다는 선택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Blustein et al., 1989; Phillips & Blustein, 1994)

② 진로목표 동일시란 진로목표 달성을 통해 수행할 직업역할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에 자신의 신념, 가치, 삶의 방향을 반영한 수준(통합)을 의미한다. 또한 반영결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가 곧 자기개념(꿈, 자신 등)을 표현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자기표현)을 의미한다.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이란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진로목표 선택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이루고자 하는 태도(확신)를 의미하며, 이러한 태도에 동반되는 긍정적인 감정 및 의미(애착)를 포함한다. 즉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이란 진로목표 선택 및 동일시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진로목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 볼 수 있다(Waterman, 2015).

구인화를 수행한 후에는 하위요인의 정의 및 특징에 맞게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측정도구 문항 중 구성된 하위요인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별로 5개씩 총 15개 문항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론적인 문항 작성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문항 작성을 위해 대학생 총 10명을 인터뷰하여 문항을 수집하고 보완하였다.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였으며,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적 특징에 부합하는 질문을 순차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① 진로목표 선택 13문항, ② 진로목표 동일시 16문항,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28문항의 총 57문항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후 수집된 문항을 비교·검토하고 비슷한 인터뷰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하위요인 별 8문항씩, 총 24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7가지 기준을 준용하였다(이종범, 2005; 탁진국, 2011). 첫째, 문장을 현재시제로 작성한다. 둘째, 사실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피한다. 넷째,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많은 문장은 피한다. 다섯째, 문장의 길이를 가능한 짧게 한다. 여섯째, 모두, 항상, 전혀, 결코와 같이 전체 긍정이나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낱말은 피한다. 일곱째, 단지, 거의 등의 부사 사용은 피한다.

문항 작성 및 지시문과 응답양식(5점 liket 척도)을 결정한 이후, 대학생 진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또한 대학생 10명

을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 받음으로써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작성된 모든 문항의 타당도 점수는 기준치(내용 타당도 4.0 이상, 안면 타당도 3.0 이상) 이상이었으나 중복된 문항 및 비교적 점수가 낮은 문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항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응답한 박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생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여 문항을 수정 및 중복된 문항은 삭제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 별로 7문항씩 총 21문항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예비조사에 활용하였다.

<표 III-6>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통계치 검토 기준

구분		내용
문항 분석	평균	• 중앙값에 근접하는 수치여야 하며, Meir와 Gati(1981)에 따르면 평균값이 1.5~4.5일 때 수용 가능(5점 Likert 척도)
	표준편차	•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Meir와 Gati(1981)에 따르면 .75 이상일 때 수용 가능
	왜도	• 분포의 모양이 좌우대칭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종범(2005)은 '왜도 〈 ±2'를 기준으로 제시
	첨도	• 분포의 뾰족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종범(2005)은 왜도와 마찬가지로 '첨도 < ±2'를 기준으로 제시
	문항-전체 상관	• 일반적으로 .3 이상이면 의미 있는 상관이라 여겨짐 • 문항이 해당하는 하위요인이 아닌 다른 하위요인과 상관계수가 더 높을 경우 수정·보완 필요
탐색적 요인분석	KMO값	• 편상관계수가 낮을수록 KMO(Kaiser-Meyer-Okin) 값이 커지며 .6 이상인 경우 문항 간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
	Bartlett 구형성 검정	• 상관행렬이 단위행렬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한 상관행렬이라 판단
	요인 도출 기준	• 카이저(Kaiser) 방법(고유값 1 이상을 하위요인으로 도출하는 방법)과 스크리 도표, 이론적 설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
	요인적재량	• 이론적 해당 하위요인에 .4 이상
상관관계 분석		• 준거변인으로써 선정된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자율적 동기와 상관계수 .3 이상(p 〈 .05)
신뢰도 분석		• 내적 일치도 계수 .7 이상

주: 김계수(2011), 이훈영(2010), 임효신(2015), 탁진국(2011)의 자료를 요약·정리하였음.

예비조사에서는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통계치를 검토함으로써 본조사에 임하기 위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표 III-6> 참

조). 국내 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은 설정된 기준치에 적합하였다. 단 17번 문항은 표준편차가 .74로 기준치 .75보다 낮았고 8번 문항은 해당하는 하위요인(② 진로목표 동일시)의 요인적재량이 .338로 기준치 .4보다 낮았다. 또한 15번과 17번 문항은 본래 해당하는 하위요인(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보다 다른 하위요인(② 진로목표 동일시)에 요인적재량이 더욱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문항들이 이론적 요인에 맞게 적재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제가 된 예비조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앞서 예비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구인타당도 및 준거타당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국내 대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은 설정된 기준치에 적합하였다. 단 8번 문항과 15번 문항은 각각 ② 진로목표 동일시와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이라는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위요인(8번 문항: ① 진로목표 선택, 15번 문항: ② 진로목표 동일시)과의 상관이 높았다. 이 문항은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수정 되었던 문항이기에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는 ① 진로목표 선택 7문항, ② 진로목표 동일시 6문항,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6문항의 3요인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921, .925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 이상이었다(.797~.916).

<표 III-7> 진로선택몰입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예비조사(145명)	본조사(463명)
① 진로목표 선택(7문항)	.907	.916
② 진로목표 동일시(6문항)	.797	.862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6문항)	.853	.851
진로선택몰입 전체(19문항)	.921	.925

주: 예비조사는 진로선택몰입 21문항, ② 직업역할 동일시 7문항,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7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분석함.

나. 가족지지

가족지지란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족의 지원을 의미한다(박지원, 1985; 박현미, 2011).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박현미(2011)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항 수는 총 24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7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5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89에서 .90으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박현미, 2011).

가족지지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7점 만점에 4점 이상),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보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지지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66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97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이었다(.890~.974).

<표 III-8> 가족지지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예비조사(145명)	본조사(463명)
① 정서적 지지(7문항)	.925	.929
② 평가적 지지(6문항)	.890	.902
③ 정보적 지지(6문항)	.912	.921
④ 물질적 지지(5문항)	.974	.912
가족지지 전체(24문항)	.966	.971

다. 취업불안

취업불안이란 취업이란 당면과제에 직면하여 유발되는 정서적 불편함 및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조규판, 2008; Pisarik et al., 2017).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조규판(2008)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항 수는 총 28문항으로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7문항,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11문항,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10문항으

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87~.94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조규판, 2008).

취업불안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7점 만점에 4점 이상),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보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불안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57로 나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95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이었다(.834~.928).

<표 III-9> 취업불안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예비조사(145명)	본조사(463명)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7문항)	.889	.834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11문항)	.911	.877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10문항)	.939	.928
취업불안 전체(28문항)	.957	.934

라.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이란 앞으로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 수준을 의미한다(최동선, 2003; Stumpf et al., 1983).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최동선(2003)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항 수는 총 28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탐색 12문항, 직업에 대한 탐색 16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81에서 .92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최동선, 2003).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먼저, 진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7점 만점에 4점 이상),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로탐색행

동 3번 문항(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은 예시로 들어진 '자기성장 프로그램'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자기성찰 프로그램'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16번 문항(16.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였다.)은 오늘날 대학생이 취업관련 정보를 다양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을 반영해야 한다는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학의 관련기관/부서(예: 경력개발센터 등)를 방문'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로탐색행동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5로 나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89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이었다(.783~.905).

<표 III-10> 진로탐색행동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예비조사(145명)	본조사(463명)
① 자신에 대한 탐색(12문항)	.783	.787
② 직업에 대한 탐색(16문항)	.904	.905
진로탐색행동 전체(28문항)	.905	.900

마.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란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탐색행동에 주인의식을 느끼고 흥미 및 관심,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 의도를 의미한다(Guay, 2005; Ryan & Deci, 2006; Sheldon et al., 2017). 이 연구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Sheldon 외(2017)가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수는 총 12문항으로 내적 동기 4문항, 확인된 조절 동기 4문항,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동기 4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74에서 .81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Sheldon, 2017).

이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 예시문을 선정해야 한다. Sheldon 외(2017)가 개발한 자율적 동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따

라서 이 측정도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 맥락에 맞게 설문이 가능한 행동을 선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을 대표할 수 있는 예시문을 '진로 선택을 위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최동선(2003)이 제시한 진로탐색행동의 특징인 자신에 대한 평가와 정보 수집행동을 적절히 표현한다고 판단된다.

문항 번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부록 2] 참조). 우선 원 문항을 확인 후 연구자가 연구의 맥락에 맞게 1차 번역을 수행하였다. 1차 번역 과정에서는 국내 대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문항을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몇몇 문항은 문장구조를 수정하여 번역하기도 하였다(예: because it is my personal choice to do X → 내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과 미국문화에 익숙한 이중 언어자 1인(교육학 전공 대학원 과정생)에게 원 문항과 연구자에 의해 번역된 문항을 제시하고 불일치하는 문항을 검토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번역된 문항 중 5개의 문항은 원문항의 의미가 다소 왜곡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지적 된 5개의 문항은 연구자와 이중 언어자가 함께 원문항의 의미가 유지 되면서 최대한 간결한 문항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수정하였다.

번역된 문항은 진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7점 만점에 4점 이상),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보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율적 동기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5로 나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92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이었다(.873~.929).

<표 III-11>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예비조사(145명)	본조사(463명)
① 내적 동기(4문항)	.929	.927
② 확인된 조절 동기(4문항)	.873	.883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4문항)	.907	.873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전체(12문항)	.925	.922

또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Sheldon 외(2017)의 측정도구가 처음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조사 463명의 자료는 Kaiser-Meyer-Okin의 표본 적절성 측정치가 .905,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가 4502.701(df=66, p=.000)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또한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도출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가정된 3개의 하위요인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베리맥스(varimax)회전 방식을 활용하여 요인적재량을 확인한 결과(<Ⅲ-13> 참조), 모든 문항은 요인적재량 .4 이상으로 해당하는 하위요인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해당하는 하위요인에 가장 높은 적재량을 나타냈다. 또한 총 3개 요인의 누적 설명 변량은 약 77.339%로 전체 변량의 절반 이상을 설명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측정도구는 적합한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2>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성
1. 행동을 즐기기 때문이다.	.877	.161	.267	.867
2. 행동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893	.183	.222	.881
3. 행동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828	.215	.292	.816
4. 행동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712	.399	.307	.760
5. 행동이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88	.801	.148	.746
6. 행동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15	.884	.160	.821
7.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246	.749	.238	.678
8. 행동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이다.	.151	.815	.240	.745
9. 행동을 통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340	.275	.716	.704
10. 행동을 통해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112	.344	.751	.694
11. 행동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이다.	.291	.156	.828	.795
12. 행동을 통해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317	.111	.813	.773
고유값	3.251	3.145	2.885	-
설명변량(%)	27.094	26.208	24.038	
누적변량(%)	27.094	53.302	77.339	

주 1) 검토 기준(탁진국, 2011)
- 요인적재량: .4 이상
- 이론적으로 문항이 해당하는 하위요인에 가장 높은 적재량 도출

2) 음영표시된 요인적재량은 하위요인별 적재량 중 가장 높은 요인적재량을 의미함.

4. 자료 수집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편조사는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인 7개의 대학 내 학생 1명을 섭외하고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진행하였다. 사전에 전화를 통해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 시에는 연구의 취지 및 설문 안내서(성별 및 계열에 대한 비율표집 등)를 동봉하여 원활한 자료 수집을 도모하였다. 또한 실제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학생에게 안내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배포 및 수집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문지는 7개 대학에 75부(표집크기 70부+여분 설문지 5부)씩 525부가 배부되었으며, 490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70부 기준 100.0%). 이후 결측치가 포함된 설문지 4부, 진로선택몰입 역문항과 다른 문항을 일관된 번호로 체크한 설문지 7부, 같은 번호를 2개 이상 변인에 일괄적으로 체크한 설문지 11부 및 이상치(평균에서의 표준편차 거리 | 3 | 이상) 5부의 총 27부를 제외한 463부의 자료를 최종 활용하였다(유효자료율: 94.5%).

<표 III-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표집 비율
성별	남학생		263	56.8	약 1:0.8
	여학생		200	43.2	
학년	저학년	1학년	116	25.1	약 1:1
		2학년	100	21.6	
		소계	216	46.7	
	고학년	3학년	137	29.6	
		4학년	100	21.6	
		5학년 이상	10	2.2	
		소계	247	53.3	
전공 계열	자연·공학계열		225	48.6	약 1:1
	인문·사회계열		238	51.4	
대학 소재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00	43.2	약 3:4
	비수도권		263	56.8	
합계			463	100.0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Ⅲ-13>과 같다. 남학생은 56.8%로 여학생 43.2%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29.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으로는 1학년 25.1%, 4학년 21.6% 및 2학년 21.6%, 5학년 이상 2.2% 순이었다. 이를 저학년(1학년, 2학년)과 고학년(3학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학년 46.7%로 고학년 53.3% 보다 높았다. 자연・공학계열은 51.4%로 인문・사회계열 48.6% 보다 다소 높았으며 수도권은 43.2%로 비수도권 56.3%로 낮았다. 이러한 분포는 이 연구가 표집방법에서 설정한 층화기준 별 비율과 거의 일치하였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0 및 Mplus 6.0을 활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실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입력자료는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찰변인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정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찰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별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고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단 다변량 정규성은 만족시키기 어렵고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면 분석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단변량 정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변량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skew)와 첨도(kurtosis)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3.0| 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Hong, Malik, Lee(2003)는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본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관찰변인의 상관행렬을 기준으로 최적의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이기에 관찰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 기준 하($p < .05$)에 유의하고 .3 이상의 통계치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입력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관찰변인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층화의 기준으로 성별, 학년, 전공, 대학 소재지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찰변인의 차이가 적절한지 확인함으로써 입력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자연·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수도권이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나. 측정 모형 분석

측정 모형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석오류 발생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배병렬, 2009).

이 연구는 Mplus 6.0을 통해 측정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이란 관찰변인의 상관행렬과 가능한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관행렬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모수를 추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최대우도법은 최소제곱법에 비해 다변량 정규성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모형 적합도 판단은 Mplus 6.0이 제공하는 총 카이제곱(χ^2) 값 및 RMSEA, SRMR, CFI, TRI의 네 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표 Ⅲ-14> 참조). 단 카이제곱 값의 경우, 사

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례수가 500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하였다(이훈영, 2010).

<표 III-14> 적합도 판단 기준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카이제곱(χ^2) 값		p < .05
절대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증분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 .9
	TLI(Tucker & Lewis Index)	

자료: 배병렬. (2016).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모형 적합도 확인 후에는 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판단하였다. 개념 타당도란 모형 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며 집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확인할 수 있다. 집중 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같이 요인적재량 .5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6). 판별 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이 다른 잠재변인과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8 이상이면 판별 타당도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이훈영, 2010).

다.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 후, 실제 이 연구의 가설인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성 및 잠재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인과적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수 추정 및 모형의 적합성 판단은 측정 모형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모형 분석을 수행한 이후, 모형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살펴보고 모형 수정 실시 여부를 판단했다. 모형 수정이란 초기의 모형에 대한 확인적 검정에서 나아가 자료를 통해 도출한 상관행렬에 더욱 적합한 모형상관행렬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

하는 것이다(배병열, 2016). 모형을 수정하는 상황은 모형의 간명도 또는 적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수행된다.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정했던 변인 간의 관계를 제거해야 하며 이는 모형 다듬기에 해당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려되지 못한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해야 하며 이는 모형 만들기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인과적 구조 모형을 확정한 이후에는 인과관계 효과를 분석하였다(<표 Ⅲ-15> 참조).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 간의 효과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효과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하며, 매개효과란 매개변인에 의해 한 변인 다른 변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표 Ⅲ-15>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방법

구분		분석 방법
모형	연구가설 1.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	최대우도법
직접 효과	연구가설 2-1.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임계비 t검정
	연구가설 2-2. 가족지지 → 취업불안	
	연구가설 2-3.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연구가설 2-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연구가설 2-5.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연구가설 2-6.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매개 효과	연구가설 3-1.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델타 방법 및 부트스트래핑 방법
	연구가설 3-2.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연구가설 3-3.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연구가설 3-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연구가설 3-5.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직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임계비(critical ratio)를 통한 t검정으로 수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정은 Mplus 6.0에서 제공하는 델타(delta)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단 델타 방법의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이론적 가정을 포함하여 표준오차를 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경험적 분포를 추정하여 표준오차를 구하는 방법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도 같이 활용하였다(배병열, 2016). 델타

방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변량 정규성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모집단의 분포를 표본자료의 특징으로 추론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준용하여 판단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단변량 정규성 기준은 확보하였으나 다변량 정규성의 기준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란 종속변인 Y에 미치는 독립변인 X의 효과가 조절변인 Z에 의해 변화하는 효과를 의미한다(홍세희, 정송, 2014). 이러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모형에 X와 Z의 곱하기 변인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를 상호작용항이라 정의한다.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모형 식 (1)과 같이 독립변인(X), 조절변인(Z) 상호작용항(XZ)을 투입한 모형은 모형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였던 b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X와 Z의 직접적인 효과는 조건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기에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반드시 X와 Z의 직접적인 효과가 가정될 필요는 없다(이형권, 2016; 홍세희, 정송, 2014).

$$\hat{Y} = b_0 + b_1 X + b_2 Z + b_3 XZ \qquad (1)$$

$$\hat{Y} = b_0 + (b_1 + b_3 Z) X + b_2 Z \qquad (2)$$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조절 모형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였다. Mplus 6.0에서 제공하는 잠재조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일반적인 잠재변인에 대해서는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 추정을 이용하나 잠재변인 간의 곱하기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은 비정규성을 고려하여 추정하기에 조절효과 분석에 적합하다(배병렬, 2016). 또한 잠재조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관찰변인 간의 조작 없이 직접 잠재변인 간의 곱하기를 통해 상호작용항을 도출하기에 평균중심화 및 불필

요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없다(홍세희, 정송, 2014). 단 잠재조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최대우도법이 아닌 유사최우도법(QML: quasi-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기에 적합도 지수(RMSEA, SRMR, CFI, TLI) 및 표준화 계수를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배병렬, 2016).

이에 따라 잠재조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2단계를 통해 진행하였다(배병렬, 2016). 1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은 투입하고 상호작용항은 투입하지 않은 일반 구조방정식 모형(조절변인 투입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적합도가 확보된 모형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잠재조절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형, 즉 잠재조절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1단계에서 분석한 모형과 2단계에서 분석한 두 모형 간 우도비(loglikelihood) 차이를 카이제곱 값으로 변환하고 이러한 차이가 두 모형 간의 자유도 차이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p < .05$). 우도비의 차이를 카이제곱 값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2(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우도비 값 - 잠재조절 모형의 우도비 값)' 공식을 활용하였다(배병렬, 2016).

이후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함으로써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또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절효과의 수준을 살펴보았다(이형권, 2018)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 분석 결과

가.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투입될 관찰변인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관찰변인 기술 통계량 및 정규성 검토

잠재변인	관찰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선택 몰입	① 진로목표 선택	1.000	5.000	3.259	.831	-.215*	-.346
	② 진로목표 동일시	1.667	5.000	3.675	.648	.095	-.280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1.833	5.000	3.609	.640	.155	-.278
가족지지	① 정서적 지지	1.857	5.000	3.990	.733	-.369***	-.535*
	② 평가적 지지	2.000	5.000	4.054	.688	-.373***	-.460***
	③ 정보적 지지	1.333	5.000	3.970	.702	-.406***	.086
	④ 물질적 지지	2.000	5.000	4.159	.688	-.459***	-.497*
취업불안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1.000	5.000	3.254	.704	-.067	.101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1.091	5.000	3.268	.659	-.043	.028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1.000	5.000	2.288	.801	.241*	-.323
진로탐색 행동	① 자신에 대한 탐색	1.833	5.000	3.253	.540	.018	.049
	② 직업에 대한 탐색	1.000	5.000	2.718	.680	-.008	-.077
진로탐색 자율적 동기	① 내적 동기	1.000	5.000	3.332	.862	-.244*	-.091
	② 확인된 조절 동기	1.000	5.000	3.900	.698	-.651***	1.070*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1.000	5.000	3.546	.805	-.322*	-.113
다변량 정규성						12.233	253.387

주: *p < .05, **p < .01 ***p < .001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② 진로목표 동일시(3.675점),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3.609점), ① 진로목표 선택(3.259점)순으로 높았다. 가족지지를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④ 물질적 지지(4.159점), ② 평가적 지지(4.054점), ① 정서적 지지(3.990점), ③ 정보적 지지(3.970점) 순으로 높았으며, 취업불안은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3.268점),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3.254점),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2.288점) 순으로 높았다. 진로탐색 행동은 ① 자신에 대한 탐색의 평균이 3.253점으로 ② 직업에 대한 탐색의 평균 2.718점 보다 높았으며,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② 확인된 조절 동기(3.900점),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3.546점), ① 내적 동기(3.332점)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다변량 정규성은 왜도 12.233, 첨도 253.387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단변량 정규성은 왜도의 경우 .008~.459, 첨도의 경우 .077~1.070으로 나타나 경험적 기준(절대값 왜도 2, 첨도 4 이내)을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기 위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관찰변인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였다. 또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상관계수는 다른 상관계수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인을 도출하는데 타당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단,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 중 ① 자신에 대한 탐색은 취업불안의 관찰변인 중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및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또한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 중 ② 직업에 대한 탐색은 가족지지의 관찰변인 중 ① 정서적 지지, ② 평가적 지지, ④ 물질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볼 때, 실제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에서 진로탐색 행동과 취업불안, 가족지지의 관계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Ⅳ-2> 관찰변인 상관행렬

구분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진로선택몰입	① 진로목표 선택	1														
	② 진로목표 동일시	.417***	1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588***	.649***	1												
가족지지	① 정서적 지지	.178***	.236***	.317***	1											
	② 평가적 지지	.188***	.277***	.324***	.866***	1										
	③ 정보적 지지	.164***	.230***	.303***	.845***	.845***	1									
	④ 물질적 지지	.168***	.308***	.343***	.730***	.781***	.726***	1								
취업불안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307***	-.227***	-.289***	-.113*	-.095*	-.100*	-.083	1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367***	-.237***	-.342***	-.155**	-.111*	-.180***	-.111*	.724***	1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181***	-.188***	-.189***	-.296***	-.267***	-.263***	-.308***	.444***	.481***	1					
진로탐색행동	① 자신에 대한 탐색	.194***	.269***	.304***	.106*	.132**	.172***	.166***	.007	-.068	.011**	1				
	② 직업에 대한 탐색	.403***	.224***	.341***	.067	.081	.116*	.024	-.098*	-.198***	.152***	.453***	1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① 내적 동기	.409***	.489***	.481***	.295***	.299***	.335***	.254***	-.358***	-.403***	-.231***	.287***	.346***	1		
	② 확인된 조절 동기	.399***	.454***	.491***	.279***	.303***	.224***	.278***	-.164***	-.201***	-.244*	.225***	.277***	.526***	1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314***	.408***	.455***	.260***	.281***	.281***	.214***	-.174***	-.204***	-.112***	.363***	.358***	.627***	.525***	1

주 1) *p < .05, **p < .01 ***p < .001
2) 음영 표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의미함(p < .05).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불안의 관찰변인 중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 중 ① 자신에 대한 탐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및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의 평균은 남학생이 각각 3.193점, 3.183점으로 여학생보다 낮았다(각각 3.334점, 3.380점). ① 자신에 대한 탐색의 평균은 남학생이 3.204점으로 여학생 3.318점 보다 낮았다.

<표 Ⅳ-3>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인		전체 (n=463)	성별		t값
			남학생 (n=263)	여학생 (n=200)	
진로 선택 몰입	① 진로목표 선택	3.259 (.831)	3.293 (.838)	3.213 (.822)	1.032
	② 진로목표 동일시	3.675 (.648)	3.683 (.684)	3.664 (.600)	.312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3.609 (.640)	3.648 (.666)	3.557 (.601)	1.528
	진로선택몰입 전체	3.495 (.597)	3.524 (.628)	3.456 (.554)	1.205
가족 지지	① 정서적 지지	3.990 (.733)	4.022 (.690)	3.946 (.784)	1.085
	② 평가적 지지	4.054 (.688)	4.086 (.688)	4.012 (.688)	1.144
	③ 정보적 지지	3.970 (.702)	3.990 (.701)	3.943 (.704)	.728
	④ 물질적 지지	4.159 (.688)	4.163 (.674)	4.153 (.708)	.151
	가족지지 전체	4.036 (.652)	4.059 (.638)	4.005 (.669)	.893
취업 불안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3.254 (.704)	3.193 (.725)	3.334 (.668)	-2.140 *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3.268 (.659)	3.183 (.670)	3.380 (.628)	-3.221 **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2.288 (.801)	2.294 (.765)	2.279 (.848)	.203
	취업불안 전체	2.914 (.601)	2.868 (.597)	2.975 (.603)	-1.904
진로 탐색 행동	① 자신에 대한 탐색	3.253 (.540)	3.204 (.533)	3.318 (.544)	-2.270 *
	② 직업에 대한 탐색	2.718 (.680)	2.766 (.681)	2.655 (.675)	1.745
	진로탐색행동 전체	2.948 (.535)	2.954 (.542)	2.939 (.526)	.286
자율적 진로 탐색 동기	① 내적 동기	3.332 (.862)	3.349 (.879)	3.310 (.842)	.480
	② 확인된 조절 동기	3.900 (.698)	3.888 (.705)	3.915 (.691)	-.414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3.546 (.805)	3.565 (.815)	3.523 (.794)	.557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전체	3.593 (.665)	3.600 (.691)	3.583 (.630)	.288

주: $^{*}p < .05$, $^{**}p < .01$ $^{***}p < .001$

2)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선택몰입의 관찰변인 중 ① 진로목표 선택, 가족지지의 관찰변인 중 ① 정서적지지, 취업불안의 관찰변인 중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 중 ② 직업에 대한 탐색,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관찰변인 중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① 진로목표 선택의 평균은 4학년 이상이 3.5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학년(3.233점), 1학년(3.177점), 2학년(3.111점) 순으로 높았다. ① 정서적 지지의 평균은 4학년 이상이 4.1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학년(4.103점), 1학년(3.926점), 3학년(3.868점) 순으로 높았다.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의 평균은 3학년이 2.4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 이상(2.423점), 2학년(2.191점), 1학년(2.066점) 순으로 높았다. ② 직업에 대한 탐색은 4학년 이상이 2.9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학년(2.817점), 2학년(2.612점), 1학년(2.494점)으로 높았다.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의 평균은 3학년의 평균이 3.6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 이상(3.609점), 1학년(3.455점), 2학년(3.383점) 순으로 높았다.

<표 Ⅳ-4>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인		전체 (n=463)	학년				F값
			1학년 (n=116)	2학년 (n=100)	3학년 (n=137)	4학년 이상 (n=110)	
진로 선택 몰입	① 진로목표 선택	3.259 (.831)	3.177 (.825)	3.111 (.868)	3.233 (.797)	3.510 (.801)	4.946 **
	② 진로목표 동일시	3.675 (.648)	3.773 (.613)	3.643 (.632)	3.628 (.674)	3.659 (.663)	1.231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3.609 (.640)	3.552 (.641)	3.567 (.586)	3.620 (.631)	3.692 (.695)	1.094
	진로선택몰입 전체	3.495 (.597)	3.478 (.593)	3.424 (.582)	3.472 (.568)	3.605 (.643)	1.843

<표 계속>

<표 Ⅳ-4> 계속

변인		전체 (n=463)	학년				F값
			1학년 (n=116)	2학년 (n=100)	3학년 (n=137)	4학년 이상 (n=110)	
가족 지지	① 정서적 지지	3.990 (.733)	3.926 (.710)	4.103 (.690)	3.868 (.775)	4.105 (.717)	3.317 *
	② 평가적 지지	4.054 (.688)	4.010 (.669)	4.140 (.608)	3.955 (.744)	4.144 (.693)	2.267
	③ 정보적 지지	3.970 (.702)	3.927 (.699)	4.055 (.618)	3.878 (.761)	4.052 (.691)	1.920
	④ 물질적 지지	4.159 (.688)	4.153 (.627)	4.200 (.646)	4.067 (.761)	4.240 (.688)	1.446
	가족지지 전체	4.036 (.652)	3.995 (.617)	4.120 (.600)	3.934 (.708)	4.130 (.645)	2.624
취업 불안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3.254 (.704)	3.160 (.744)	3.257 (.620)	3.278 (.684)	3.318 (.753)	1.050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3.268 (.659)	3.239 (.671)	3.289 (.607)	3.293 (.705)	3.246 (.638)	.215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2.288 (.801)	2.066 (.770)	2.191 (.858)	2.437 (.780)	2.423 (.748)	6.277 ***
	취업불안 전체	2.914 (.601)	2.800 (.610)	2.889 (.576)	2.984 (.624)	2.970 (.575)	2.392
진로 탐색 행동	① 자신에 대한 탐색	3.253 (.540)	3.218 (.554)	3.215 (.486)	3.318 (.544)	3.245 (.568)	.983
	② 직업에 대한 탐색	2.718 (.680)	2.494 (.641)	2.612 (.585)	2.817 (.725)	2.930 (.662)	10.102 ***
	진로탐색행동 전체	2.948 (.535)	2.804 (.522)	2.870 (.447)	3.032 (.563)	3.065 (.547)	6.581 ***
자율적 진로 탐색 동기	① 내적 동기	3.332 (.862)	3.392 (.870)	3.208 (.827)	3.354 (.864)	3.355 (.883)	.938
	② 확인된 조절 동기	3.900 (.698)	3.901 (.754)	3.760 (.624)	3.974 (.691)	3.932 (.702)	1.947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3.546 (.805)	3.455 (.832)	3.383 (.720)	3.693 (.779)	3.609 (.852)	3.689 *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전체	3.593 (.665)	3.583 (.720)	3.450 (.588)	3.674 (.635)	3.632 (.692)	2.377

주 1) $^{*}p < .05$, $^{**}p < .01$ $^{***}p < .001$

2) 관찰변인 사후검정(Scheffe) 결과

- 진로선택몰입의 ① 진로목표 선택: 4학년 이상 > 2학년 및 1학년
- 가족지지의 ① 정서적지지: 사후검증 차이 없음.
- 취업불안의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4학년 이상 > 1학년, 3학년 > 1학년
- 진로탐색행동의 ② 직업에 대한 탐색: 4학년 이상 > 2학년 및 1학년, 3학년 > 1학년
-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3학년 > 2학년

3) 전공 계열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전공 계열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선택몰입의 관찰변인 중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취업불안의 관찰변인 중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및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 중 ② 직업에 대한 탐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평균은 자연·공학계열이 3.672점으로 인문·사회계열 3.542점보다 높았다.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및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의 평균은 자연·공학계열이 각각 3.148점, 3.183점으로 인문·사회계열보다 낮았다(각각 3.365점, 3.357점). ② 직업에 대한 탐색의 평균은 자연·공학계열이 2.797점으로 인문·사회계열 2.635점보다 높았다.

<표 Ⅳ-5> 전공 계열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인		전체 (n=463)	성별		t값
			남학생 (n=263)	여학생 (n=200)	
진로 선택 몰입	① 진로목표 선택	3.259 (.831)	3.293 (.824)	3.222 (.839)	.914
	② 진로목표 동일시	3.675 (.648)	3.700 (.693)	3.649 (.597)	.845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3.609 (.640)	3.672 (.678)	3.542 (.592)	2.182 *
	진로선택몰입 전체	3.495 (.597)	3.533 (.625)	3.454 (.565)	1.431
가족 지지	① 정서적 지지	3.990 (.733)	4.038 (.730)	3.938 (0.734)	1.461
	② 평가적 지지	4.054 (.688)	4.092 (.694)	4.013 (0.681)	1.248
	③ 정보적 지지	3.970 (.702)	3.998 (.728)	3.940 (0.674)	.887
	④ 물질적 지지	4.159 (.688)	4.203 (.690)	4.112 (0.685)	1.416
	가족지지 전체	4.036 (.652)	4.076 (.660)	3.994 (0.641)	1.359
취업 불안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3.254 (.704)	3.148 (.681)	3.365 (0.711)	-3.350 ***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3.268 (.659)	3.183 (.662)	3.357 (0.644)	-2.853 **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2.288 (.801)	2.305 (.781)	2.269 (0.823)	.491
	취업불안 전체	2.914 (.601)	2.861 (.599)	2.970 (0.600)	-1.960
진로 탐색 행동	① 자신에 대한 탐색	3.253 (.540)	3.234 (.543)	3.274 (0.538)	-.792
	② 직업에 대한 탐색	2.718 (.680)	2.797 (.675)	2.635 (0.677)	2.581 *
	진로탐색행동 전체	2.948 (.535)	2.984 (.538)	2.909 (0.531)	1.523
자율적 진로 탐색 동기	① 내적 동기	3.332 (.862)	3.381 (.884)	3.280 (0.838)	1.264
	② 확인된 조절 동기	3.900 (.698)	3.936 (.709)	3.861 (0.687)	1.152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3.546 (.805)	3.539 (.817)	3.554 (.795)	.208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전체	3.593 (.665)	3.619 (.674)	3.565 (0.655)	.866

주: $^{*}p < .05$, $^{**}p < .01$ $^{***}p < .001$

4)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의 모든 관찰변인(① 정서적 지지, ② 평가적 지지, ③ 정보적 지지, ④ 물질적지지),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 중 ② 직업에 대한 탐색,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관찰변인 중 ② 확인된 조절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지지의 모든 관찰변인(① 정서적 지지, ② 평가적 지지, ③ 정보적 지지, ④ 물질적지지)은 수도권이 각각 3.862점, 3.948점, 3.815점, 4.084점으로 비수도권보다 낮았다(각각 4.086점, 4.134점, 4.087점, 4.215점). ② 직업에 대한 탐색 또한 수도권이 2.624점으로 비수도권 2.790점 보다 낮았다. ② 확인된 조절 동기의 평균은 수도권이 4.083점으로 비수도권 3.795점 보다 높았다.

<표 Ⅳ-6>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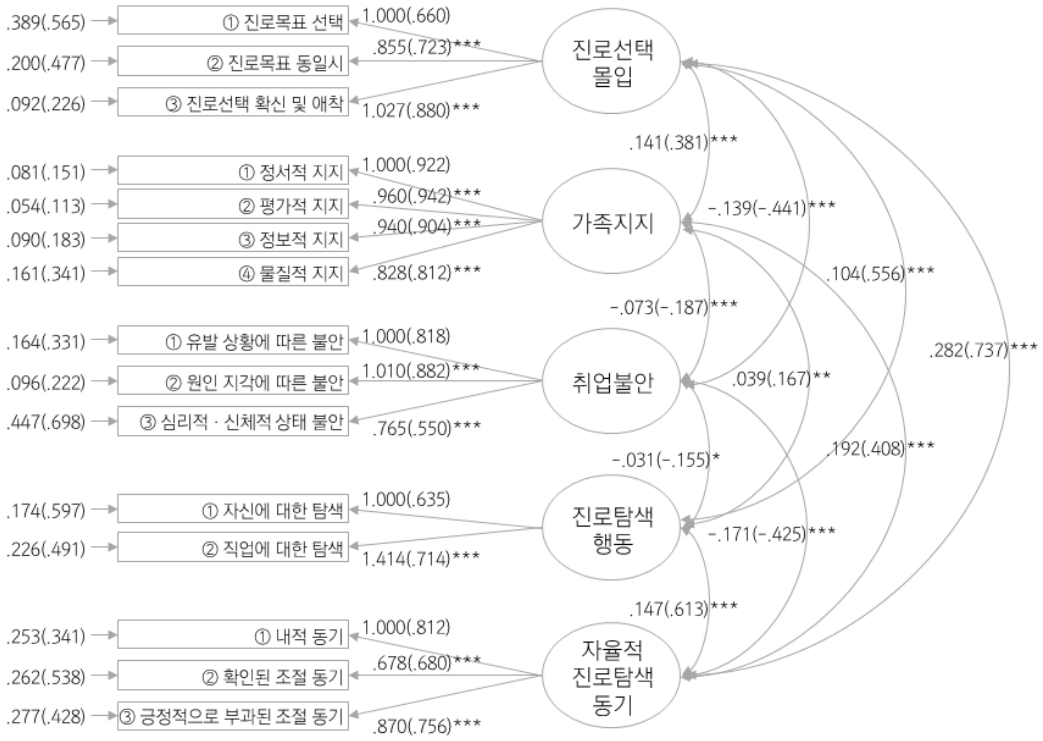
변인		전체 (n=463)	성별		t값
			남학생 (n=263)	여학생 (n=200)	
진로 선택 몰입	① 진로목표 선택	3.259 (.831)	3.214 (.780)	3.293 (.868)	-1.015
	② 진로목표 동일시	3.675 (.648)	3.692 (.632)	3.662 (.661)	.484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3.609 (.640)	3.583 (.631)	3.629 (.647)	-.768
	진로선택몰입 전체	3.495 (.597)	3.475 (.564)	3.510 (.622)	-.631
가족 지지	① 정서적 지지	3.990 (.733)	3.862 (.753)	4.086 (.703)	-3.297 **
	② 평가적 지지	4.054 (.688)	3.948 (.697)	4.134 (.672)	-2.917 **
	③ 정보적 지지	3.970 (.702)	3.815 (.722)	4.087 (.664)	-4.211 ***
	④ 물질적 지지	4.159 (.688)	4.084 (.709)	4.215 (.668)	-2.039 *
	가족지지 전체	4.036 (.652)	3.918 (.659)	4.125 (.633)	-3.435 ***
취업 불안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3.254 (.704)	3.195 (.729)	3.298 (.682)	-1.566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3.268 (.659)	3.231 (.675)	3.295 (.646)	-1.033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2.288 (.801)	2.217 (.761)	2.341 (.828)	-1.659
	취업불안 전체	2.914 (.601)	2.860 (.609)	2.955 (.593)	-1.693
진로 탐색 행동	① 자신에 대한 탐색	3.253 (.540)	3.277 (.560)	3.235 (.525)	.813
	② 직업에 대한 탐색	2.718 (.680)	2.624 (.714)	2.790 (.645)	-2.619 **
	진로탐색행동 전체	2.948 (.535)	2.904 (.573)	2.981 (.503)	-1.514
자율적 진로 탐색 동기	① 내적 동기	3.332 (.862)	3.283 (.873)	3.370 (.854)	-1.079
	② 확인된 조절 동기	3.900 (.698)	4.038 (.679)	3.795 (.696)	3.758 ***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3.546 (.805)	3.538 (.874)	3.553 (.750)	-.204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전체	3.593 (.665)	3.619 (.670)	3.573 (.661)	.747

주: *p < .05, **p < .01 ***p < .001

2. 측정 모형 분석 결과

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15개의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측정 모형을 구성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345.37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설정된 측정모형이 표본의 상관행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외 적합도 지수는 RMSEA가 .085, SRMR이 .056, CFI가 .933, TLI가 .912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측정 모형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림 Ⅳ-1] 측정 모형 분석 결과

주 1) $^{*}p < .05$, $^{**}p < .01$ $^{***}p < .001$
2)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3) χ^2=345.373(df=80, $p < .001$)

나. 개념 타당도 분석 결과

개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 및 잠재변인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잠재변인별 관찰변인들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기준치 .5 이상을 만족시켜 집중 타당도를 확보하였다(.550~.942).

<표 Ⅳ-7>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요인적재량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진로선택 몰입	① 진로목표 선택	1.000	.660	-	-
	② 진로목표 동일시	.855	.723***	.027	26.641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1.027	.880***	.021	42.015
가족지지	① 정서적 지지	1.000	.922	-	-
	② 평가적 지지	.960	.942***	.008	121.289
	③ 정보적 지지	.940	.904***	.010	87.796
	④ 물질적 지지	.828	.812***	.017	47.163
취업불안	①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1.000	.818	-	-
	②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1.010	.882***	.025	34.877
	③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	.765	.550***	.037	14.879
진로탐색 행동	① 자신에 대한 탐색	1.000	.635	-	-
	② 직업에 대한 탐색	1.414	.714***	.047	15.301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① 내적 동기	1.000	.812	-	-
	② 확인된 조절 동기	.678	.680***	.031	22.117
	③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870	.756***	.026	28.629

주: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p < .05), 상관계수는 .8 이하였다(<표 Ⅳ-8> 참조). 이는 관찰변인들이 해당하는 잠재변인을 다른 잠재변인과 일정 수준 구별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8>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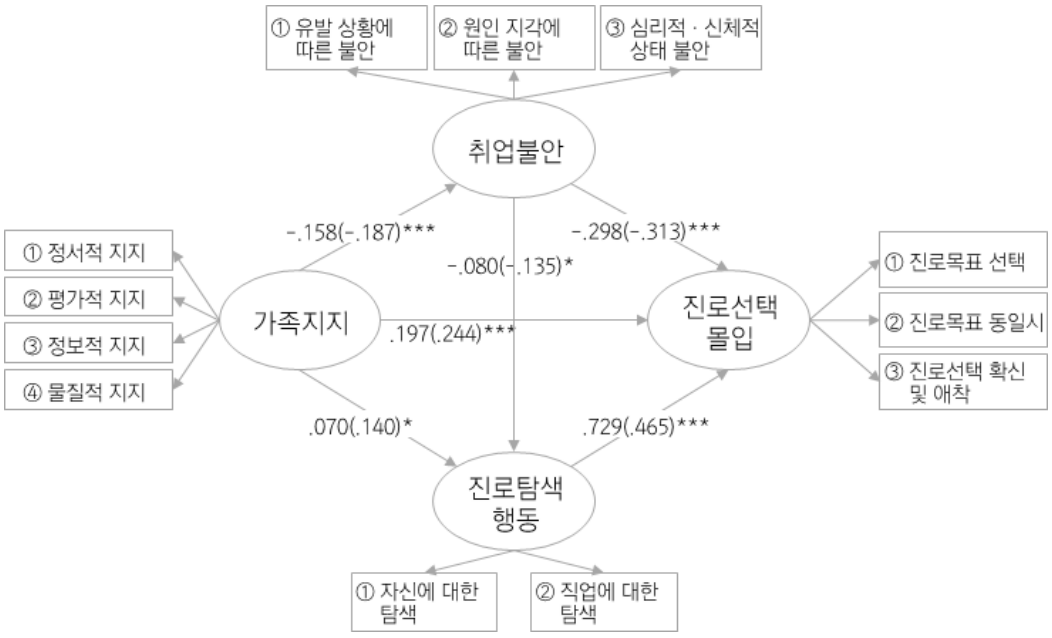
구분	진로선택 몰입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 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진로선택몰입	1				
가족지지	.381***	1			
취업불안	-.441***	-.187***	1		
진로탐색행동	.556***	.167**	-.155*	1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737***	.408***	-.425***	.613***	1

주: *p < .05, **p < .01 ***p < .001

3.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이 연구의 가설인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224.76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설정된 인과적 구조 모형이 표본의 상관행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외 적합도 지수는 RMSEA가 .089, SRMR이 .060, CFI가 .944, TLI가 .923으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모형 수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림 Ⅳ-2]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결과

주 1) $^{*}p < .05$, $^{**}p < .01$ $^{***}p < .001$
2)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3) χ^2=224.763(df=48, $p < .001$)

나. 직접효과 분석 결과

인과적 구조 모형을 기반으로 각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계수가 유의하였다(<표 Ⅳ-9> 참조).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β=.244, p〈.001)을 미쳤으며, 취업불안에 부적 영향(β=-.187, p〈.001)을, 진로탐색행동에는 정적 영향(β=.140, p〈.05)을 미쳤다.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 영향(β=-.135, p〈.05)을 미쳤으며, 진로선택몰입에도 부적 영향(β=-.313, p〈.001)을 미쳤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영향을 미쳤다(β=.455, p〈.001).

<표 Ⅳ-9>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가설 2-1.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197	.244***	.045	5.392
가설 2-2. 가족지지 → 취업불안	-.158	-.187***	.050	-3.733
가설 2-3.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070	.140*	.062	2.247
가설 2-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080	-.135*	.066	-2.035
가설 2-5.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298	-.313***	.047	-6.609
가설 2-6.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729	.455***	.052	8.769

주: *p〈.05, **p〈.01 ***p〈.001

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기반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0>과 같다.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β=.058, p〈.01), 진로탐색행동(β=.064, p〈.05)은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가설 3-1, 가설 3-2), 이는 델타 방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였다. 그러나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을 경유하여 가는 모든 매개효과, 즉 가족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취업불안의 매개효과(가설 3-3), 취업불안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가설 3-4),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의 이중 매개효과(가설 3-5)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10>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델타		부트스트래핑
			표준오차	z값	95% 신뢰구간[2] (하한 - 상한)
가설 3-1.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047	.058**	.018	3.259	(.024 - .093)
가설 3-2.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51	.064*	.030	2.143	(.001 - .126)
가설 3-3.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013	.025	.014	1.795	(-.009 - .059)
가설 3-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58	-.061	.030	-2.022	(-.131 - .009)
가설 3-5.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09	.011	.006	1.792	(-.004 - .027)

주 1) *p < .05, **p < .01 ***p < .001
2)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으로써,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4. 조절효과 분석 결과

가. 조절변인 투입 모형 분석 결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조절변인으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투입하고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다른 잠재변인(가족지지, 취업불안)의 상관을 제약하고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345.373(우도비: -5589.127)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설정된 조절변인 투입 모형이 표본의 상관행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외 적합도 지수는 RMSEA가 .085, SRMR이 .056, CFI가 .933, TLI가 .912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단,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지지와 취업불안의 직접효과(가설 2-3,

가설 2-4)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조절변인의 직접효과 및 상관관계 제약으로 인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Ⅳ-11> 조절변인 투입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직접효과	연구가설 2	가설 2-1.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093	.114*	.046	2.495
		가설 2-2. 가족지지 → 취업불안	-.160	-.187***	.050	-3.740
		가설 2-3.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050	-.098	.062	-1.576
		가설 2-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076	.127	.070	1.818
		가설 2-5.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172	-.181***	.050	-3.629
		가설 2-6.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340	.213**	.074	2.889
	조절변인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진로탐색행동	.347	.707***	.068	10.456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진로선택몰입	.379	.483***	.081	5.984
상관관계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가족지지	.192	.408***	.046	8.951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취업불안	-.140	-.355***	.048	-7.359

주 1) *p < .05, **p < .01 ***p < .001
2) 적합도 지수
- χ^2 : 345.373(df=80, p < .001) - 우도비: -5589.127 - RMSEA: .085
- SRMR: 056 - CFI: .933 - TLI: .912

나. 잠재조절 모형 분석 결과

조절변인 투입 모형에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취업불안을 곱한 상호작용항(동기×불안)과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곱한 상호작용항(동기×탐색)을 투입하여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모형의 자유도는 기존 모형의 자유도 55보다 2가 늘어난 57이 되었으며, 우도비는 -5582.467로 나타났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우도비(-5589.127)를 기준으로 잠재조절 모형의 카이제곱 값(χ^2)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13.320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유도 2, 유의성 .05를 기준으로 유의한 카이제곱 값 5.99보다 높았다. 이는 잠재조절 모형의 적합도가 조절변인 투입 모형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제시한다(<표 Ⅳ-12 참조>).

<표 Ⅳ-12>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구분	조절변인 투입 모형	잠재조절 모형
우도비	-5589.127	-5582.467
자유도	55	57
카이제곱(χ^2) 값 변화량	- 2[(-5589.127)-(-5582.467)] = 13.320	
모형 개선 기준치(자유도=2)	5.99	

이후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 투입 모형의 직접효과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Ⅳ-13> 참조). 그 결과,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취업불안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였으나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의하지 않은 상호작용항을 모형에서 제외한 최종 잠재조절 모형을 새롭게 도출하고 모델 적합도, 직접효과 및 상관관계를 재분석하였다.

<표 Ⅳ-13> 잠재조절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직접효과	연구가설 2	가설 2-1.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079	.042	1.878
		가설 2-2. 가족지지 → 취업불안	-.161***	.044	-3.664
		가설 2-3.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058	.030	-1.948
		가설 2-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070	.041	1.734
		가설 2-5.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166**	.052	-3.171
		가설 2-6.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282*	.137	2.055
	조절변인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진로탐색행동	.331***	.060	5.500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진로선택몰입	.438***	.084	5.239
	상호작용항	가설 4-1. 동기 × 불안[2] → 진로탐색행동	.155**	.056	2.784
		가설 4-2. 동기 × 행동[3] → 진로선택몰입	.172	.110	1.560
상관관계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가족지지	.193***	.026	7.566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취업불안	-.142***	.028	-5.014

주 1) *p〈.05, **p〈.01 ***p〈.001
2) 동기 × 불안은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취업불안의 상호작용항을 의미함.
3) 동기 × 행동은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상호작용항을 의미함.

다. 최종 잠재조절 모형 분석 결과

조절변인 투입 모형에 하나의 상호작용항(동기×불안)을 투입한 최종 잠재조절 모형 분석 결과, 모형의 자유도는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자유도 55보다 1이 늘어난 56이 되었으며, 우도비는 -5584.034로 나타났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우도비(-5589.127)를 기준으로 최종 잠재조절 모형의 카이제곱 값(χ^2)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10.186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유도 1, 유의성 .05를 기준으로 유의한 카이제곱 값 3.84보다 높았다. 이는 잠재조절 모형의 적합도가 조절변인 투입 모형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표 Ⅳ-14 참조>).

<표 Ⅳ-14> 최종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구분	조절변인 투입 모형	최종 잠재조절 모형
우도비	-5589.127	-5584.034
자유도	55	56
카이제곱(χ^2) 값 변화량	- 2[(-5589.127)-(-5584.034)] = 10.186	
모형 개선 기준치(자유도=1)	3.84	

최종 잠재조절 모형의 직접효과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5>와 같다.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취업불안의 상호작용항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53, p〈.05). 또한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B=.337, p〈.001). 하지만 조절변인만 투입했던 모형과 마찬가지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지지와 취업불안의 직접효과(가설 2-3, 가설 2-4)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직접효과 및 상관관계 제약으로 인해 유의하지 않았다. 단,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유의하였다는 점에서 취업불안의 직접효과는 조건부 효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모형에서 분석된 취업불안의 직접효과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수준이 0인 경우 나타나는 조건부 효과이며,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취업불안의 조건부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Ⅳ-15> 최종 잠재조절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직접효과	연구가설 2	가설 2-1.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233***	.039	5.987
		가설 2-2. 가족지지 → 취업불안	-.161***	.044	-3.670
		가설 2-3.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057	.031	-1.836
		가설 2-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075	.041	1.812
		가설 2-5.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333***	.055	-6.027
		가설 2-6.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293*	.140	2.093
	조절변인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진로탐색행동	.337***	.060	5.667
	상호작용항	가설 4-1. 동기 × 불안[2] → 진로탐색행동	.153*	.060	2.561
상관관계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진로선택몰입	.141***	.025	5.630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가족지지	.193***	.026	7.509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 취업불안	-.142***	.029	-4.994

주 1) *p < .05, **p < .01 ***p < .001
2) 동기 × 불안은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취업불안의 상호작용항을 의미함.

취업불안의 조건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건에 따른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Mplus 6.0 프로그램의 조건부(model constraint) 명령문을 활용하여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건을 '-2 표준편차, -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 2 표준편차' 로 구분하고 조건에 따른 단순 기울기(simple slope analysis)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 Ⅳ-16>과 같다.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잠재평균(점수: 0)보다 낮은 조건(-2 표준편차, -1 표준편차)에서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평균보다 높은 조건(2 표준편차, 1 표준편차)에서는 취업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Ⅳ-16>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건부 효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건	-2 표준편차	-.137	.086	-1.593
	-1 표준편차	-.032	.059	-.535
	평균	.074	.044	1.697
	1 표준편차	.179 **	.052	3.453
	2 표준편차	.285 ***	.077	3.720

주: *p < .05, **p < .01 ***p < .001

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여부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17>과 같다. 가설 1.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 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조건을 충족하여 채택하였다. 또한 가설 2의 모형 내 모든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하였다. 그러나 가설 3의 경우,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각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가설 3-1, 3-2), 이외 진로탐색행동과 취업불안의 직접효과를 포함하는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3-3, 3-4, 3-5). 또한 가설 4의 경우,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으나(가설 4-1),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4-2).

<표 Ⅳ-17> 가설별 채택여부 종합

구분		결과	채택 여부
가설 1.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기준 충족[1]	채택
직접 효과	가설 2-1.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β=.244, p〈.001	채택
	가설 2-2. 가족지지 → 취업불안	β=-.187, p〈.001	
	가설 2-3.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β=.140, p〈.05	
	가설 2-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β=-.135, p〈.05	
	가설 2-5.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β=-.313, p〈.001	
	가설 2-6.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β=.455, p〈.001	
매개 효과	가설 3-1.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선택몰입	β=.058, p〈.01	채택
	가설 3-2. 가족지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β=.064, p〈.05	
	가설 3-3.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β=.025, p〉.05	-
	가설 3-4.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β=-.058, p〉.05	
	가설 3-5. 가족지지 →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β=.009, p〉.05	
조절 효과[2]	가설 4-1. 취업불안 →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	B=.153, p〈.05	채택
	가설 4-2.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	B=.172, p〉.05	-

주 1) RMSEA: .089, SRMR: .060, CFI: .944, TLI: .923
2) 가설 4. 조절효과의 결과는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화 계수 및 유의성 검정 결과를 의미함.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차이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으로 정의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개발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정하였던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적절히 구성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자기개념과 동일시함으로써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Savickas, 2012; Schwartz et al., 2013; Waterman, 2015).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가 새롭게 개발되어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평균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진로선택몰입의 평균은 3.495점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진로목표 동일시(3.675점)’,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3.609점)’에 비해 ‘진로목표 선택(3.259)’의 평균이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시기가 이전 시기까지 형성해온 자신의 자기개념을 현실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Harren, 1979; Schwartz et al., 2013). 즉 대학생의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목표 선택’ 수준은 이들이 자기개념과 현실적인 요인(취업 가능성, 연봉 등)을 기준으로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해된다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선택몰입에 있어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고한 김지근, 이기학(2011)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여학생의 진로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희석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사회구조적 차이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을 수 있음이 예상된다(김지근, 이기학, 2011).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여학생의 경우, 미래의 결혼이나 육아 등의 진로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과 불일치한 해석이기도 하다(민지애, 유금란, 2015; 이현주, 2008). 더욱이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취업불안의 하위요인 중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및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차이를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학년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 중 ‘진로목표 선택’은 학년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1학년: 3.177점, 2학년 3.111점, 3학년 3.233점, 4학년 이상: 3.510점). 이러한 결과는 높은 학년의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목표를 선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따라 진로선택몰입을 형성한다고 설명한 몇몇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이미라, 2015; 정윤경 외,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외에 하위요인, 즉 ‘진로목표 동일시’ 및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 동안 ‘진로목표 동일시’ 및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이 적절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Brown et al., 2012; Jaensch et al., 2015; Santos et al., 2014). 더욱이 선행연구에서는 진로목표 선택이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동반하지 못한 경우, 취업이라는 요구 상황에서 이루어진 직업분야 선택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Luyckx et al., 2008; Waterman, 2015). 따라서 학년에 따라 ‘진로목표 동일시’ 및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목표 선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결과는 진로선택몰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상적 직업분야 선택일 수 있다(Blustein et al., 1989; Waterman, 2015). 또한 취업불안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은 학년에 따라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활 동안 진로선택몰입이 적절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홍월, 2017; 선혜연 외, 2012; 하정, 홍지영 2013).

전공 계열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공학계열 학생의 경우, 졸업 후 진출 분야가 인문·사회계열학생에 비해 어느 정도 뚜렷하기 때문에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다고 분석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다(이미라, 2015; 임은미 외, 2009). 하지만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 중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평균은 이론적 가정에 따라 자연·공학계열 대학생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은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보다 취업불안의 하위요인 중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및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고 ‘직업에 대한 탐색’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평균 차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대학생은 구직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및 대학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생이 긍정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가진다고 분석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다(류장수, 2005. 허균, 2016). 하지만 안수영(2008)의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의 대학생이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들보다 진로개발 활동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실제 이 연구에서도 지방대학의 대학생은 수도권의 대학생보다 직업에 대한 탐색 수준이 높았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의 차이가 없음을 분석하고 있다(성희진, 나승일, 2012; 이병식, 공희정, 김혜림,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대학소재지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차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진로선택몰입 관련 변인으로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을 설정하고 인과적 구조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변인 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잠재조절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모형은 허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라는 변인은 진로선택몰입을 적절히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측정모형의 RMSEA값 .085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경험적 기준 상 RMSEA값이 .1 이하이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래 RMSEA값은 .05를 기준으로 모집단에서 추정되는 적합도를 검정하기 때문이다(배병렬, 2016).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취업불안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의 요인적재량이 .550으로 기준치였던 .5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즉 취업불안의 측정에 있어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의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

구에서는 기존의 하위요인구성대로 취업불안을 측정하였다. 이는 심리적·신체적 상태불안의 요인적재량이 최소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취업불안 측정을 위해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왔기 때문이다(김지현, 2018; 윤성원, 2016).

한편,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인과적 구조 모형의 RMSEA값 .089,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RMSEA값 .085는 측정모형의 RMSEA값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의 오류가 없다는 가정 하에, 모형 내 잠재변인간의 영향관계가 표본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대표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잠재변인간의 영향관계는 신뢰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변인 별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다. 가족지지의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244, p〈.001), 취업불안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정적 영향(β=.058, p〈.01),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정적 영향(β=.064, p〈.05)를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진로선택에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이 정서적 안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이영선 외, 1999; Flum, 2001; Fouad et al., 2016; Larson & Wilson, 1998; Whiston & Keller, 2004). 또한 가족지지가 대학생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진로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발달과업인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Blustein et al., 1995; Downing & Nauta, 2010; Tokar et al., 2003).

가족지지의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높았다는 점은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안정 제공 및 진로탐색행동 촉진과 구분된 가족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이 진로선택몰입을 설명하는데 중요함을 제시하기 때문이다(Leal-Muniz & Constantine, 2005). 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가족지지는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 평가 및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을 수 있다. 실제 Fouad 외(2016)는 가족지지가 대학생에게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로발달 관련 전반적인 영역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Taveira & Moreno, 2003), 가족의 재정적 지원은 이러한 도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이해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Blustein, 2008; Blustein & Noumair, 1996).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이 집단주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가족지지의 직접적 영향이 높을 수 있다. Leal-Muniz와 Constantine(2005)는 집단주의 문화를 공유한 대학생은 다른 문화를 공유한 대학생에 비해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부모지지의 영향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부모의 기대 및 주변 환경에 부응하고자 진로선택을 수행하는 대학생이 다수 존재함을 분석하고 있다(유기은, 2016; 조아라, 2017). 이러한 대학생은 부모의 기대 및 주변 환경의 요구를 적절히 이해하여 이러한 기대 및 요구를 자기개념과 동일시함으로써 진로선택몰입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Ryan & Deci, 2000, 2006).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가족지지의 직접효과가 높았다는 점과 구분하여 간접효과가 낮았다는 점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간접효과가 낮게 나타나난 이유는 취업불안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가족지지의 영향이 유의하긴 하였으나 이론적 기대보다는 낮았기 때문이라 풀이된다(취업불안: β=-.187, p〈.05, 진로탐색행동: β=.140, p〈.05).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지지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낮은 이유는 취업불안이란 개념이 상태불안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이라 이해된다(소용준, 박준성, 2016; 윤성원 2016; 조규판, 2008). 즉 취업불안은 대학생이 처한 취업환경과 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정서적 상태이기에 가족지지의 영향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가정하면 가족지지를 통해 취업이라는 상황에 불안을 경험하는 성

향이 낮은 대학생, 즉 특성불안이 낮은 대학생일지라도 취업문제에 직면하면 취업불안을 일정 수준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낮은 영향은 진로탐색행동이 동기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이해된다(최동선, 2003; Taveira & Moreno, 2003). 진로탐색행동은 본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 및 해석하는 행동으로써 자신의 호기심 및 자기실현을 위해 수행되는 행동이다(Blustein, 1992, 1997). 이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본질적으로 외부환경의 영향보다는 필요성 인식에 따라 발현됨을 의미한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취업이라는 요구에 직면하여 비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가정하였지만(Porfeli & Skorikov, 2010; Zikic & Hall, 2009), 이 또한 자신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행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다(최동선, 2003; Stumpf et al., 1983). 따라서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로탐색행동의 동기 요인을 촉진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지지의 영향이 낮을 것이라 이해되며 취업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에게는 이러한 경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Vignoli et al., 2005).

한편, 이 연구는 가족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취업불안의 매개효과(가설 3-3),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이중 매개효과(가설 3-5)를 가정하였지만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취업불안의 부적 영향이 낮았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취업불안의 부적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Park et al., 2017; Vignoli, 2015), 매개효과가 없을 수 있음이 예상된다.

라. 취업불안의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를 미쳤다(β=-.313, p〈.001). 이러한 결과는 만성적인 진로미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을 지목하여 왔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Brown et al., 2012; Gati et al., 1996; Saka et al., 2008). 따라서 국내 대학생의 높은 취업불안은 취업의 어려움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불편함 및 긴장 상태로써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연하

고, 그 결과 진로선택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Hardin et al., 2006).

또한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다(β=-.135, p〈.05). 이러한 결과는 불안이 진로탐색행동 성과에 대한 낮은 기대를 유발하고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저해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김경태, 2003; 오은주, 2014; Park et al., 2015; Vignoli et al., 2005). 따라서 국내 대학생의 높은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낮은 기대, 비관적 사고를 유발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설명과 비교하여 대학생의 취업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β=-.135)은 이론적 기대보다 낮은 편이라 해석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취업불안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3학년: 2.437, 4학년 이상: 2.423점, 2학년: 2.191점, 1학년, 2.066점),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직업에 대한 탐색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분석하였다(4학년 이상: 2.930점, 3학년: 2.817점, 2학년: 2.612점, 1학년: 2.494점).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취업불안의 부적 영향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실증한 몇몇 연구는 이론적 가정과 달리 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주명진, 김정남, 2011; Reed et al., 2004; Vignoli, 2015). 즉 취업불안은 대학생에 따라 진로탐색행동 참여 동기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설명을 위해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취업불안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가설 3-4)를 가정하였지만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취업불안의 부적 영향이 낮았다는 점, 두 변인간의 관계가 대학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마. 진로탐색행동의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β=.455, p〈.00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해 필요한 과업으로 진로탐색행동을 강조하여 왔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Blustein et al., 1994; Robitschek & Cook, 1999; Taveira & Moreno,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는 행동으로써 진로선택몰입의 전제조건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진로탐색행동의 영향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에 이론적인 예측보다 낮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Cheung & Arnold, 2014; Porfeli & Skorikov, 2010; ; Storme & Celik, 2018; Xu & Tracey, 2014).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대학생의 자기개념 형성을 전제하여 왔다(Cheung & Arnold, 2014; Flum & Blustein, 2000; Porfeli & Skorikov, 2010; Taveira & Moreno, 2003). 대학생은 자기개념 형성을 통해 스스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진로결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탐색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는 자기개념 형성이라 볼 수 있으며, 진로결정은 간접적인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Cheung & Arnold, 2014; Porfeli & Skorikov, 2010).

이러한 해석을 가정할 때,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을 위한 인식 및 태도변인으로써(하정, 홍지영, 2013; Waterman, 2015), 진로탐색행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 중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자기개념에 기반해 진로목표 설정이 이루어진 수준 및 이에 따른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기개념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는 결과로써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자신에 대한 탐색이 진로목표 선택보다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진로목표 선택: r= .194, 진로목표 동일시: r= .269,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r= .304).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진로결정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몇몇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김지근, 이기학, 2011; Xu & Tracey, 2014). 따라서 진로탐색행

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영향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정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조절하였다(B=.153, p〈.05). 이러한 결과는 외부 자극을 내재화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학생을 바라본 자기결정이론의 설명을 지지하였다(Reeve, 2015; Ryan & Deci, 2000, 2006). 또한 이러한 결과는 취업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해석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즉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낮은 대학생의 경우,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간 선행연구는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동기형성의 맥락을 적용하여 왔다(주명진, 김정남, 2011; 천석준, 이기학, 2008). 예를 들어 Vignoli(2005)는 특성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행동에 대한 낮은 기대 및 비관적 사고를 형성하기 때문이라 해석하였다. 한편 Park 외(2015)는 특성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특성불안이 상태불안을 자극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라 해석하였다. 하지만 개인이 인식하는 취업불안은 상황에 대한 반응(상태불안)과 이에 대한 경향성(특성불안)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조규판, 2008). 따라서 취업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불안 자체의 특성보다는 어떠한 맥락에서 불안이 동기를 활성화하거나 저해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수준이 평균인 경우, 취업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

는데, 이는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동기 형성의 맥락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기결정이론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동기가 양적인 수준(참여 의도 수준)이 아닌 질적인 수준(참여 의도의 이유)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이유, 즉 질적 수준에 따라 외부 자극 및 불안을 인식하는 경향이 다름을 제시하여 왔다(Reeve, 2015; Ryan & Deci, 2000, 2006; Vansteenkiste et al., 2009). 진로탐색행동 수행 이유가 외적 보상, 사회적 요구 충족에 있는 대학생과 달리 자신의 흥미 및 관심 충족에 있는 대학생은 불안을 '자신의 심리적 욕구 충족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진로탐색행동 동기의 양적 수준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근거할 때,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낮은 대학생에게 취업불안은 낮은 기대, 비관적 사고를 유발하는 동기 저해요인으로 진로탐색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높은 대학생에게 취업불안은 동기 촉진 요인으로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조절변인이 아닌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으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역할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실증연구에서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할 것이라 가정하여 왔고(최동선, 2003; 박소영, 정영숙, 2011; 김지근, 이기학, 2016),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직접적인 영향(B=.337, p〈.001)이 상호작용항의 효과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들은 진로탐색행동의 독립변인으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직접적인 영향이 이론적인 예측보다 낮거나 없음을 보고하여 왔다는 점에서(박고운, 이기학, 2007; 송현심, 홍혜영, 2010), 조절효과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는 직접효과와 더불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절변인의 직접효과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조절효과는 조절변인 이외에 다른 두 변인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킨 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이형권, 2018; 홍세희, 정송, 2014).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직접효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

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평균보다 높은 대학생 집단에서는 취업불안이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1 표준편차: B=.179, p〈.01, 2 표준편차: B=.285, p〈.001), 낮은 집단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1 표준편차: B=-.032, p〉.05, -2 표준편차: B=-.137, p〉.05). 물론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평균보다 낮은 집단에서의 부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기에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조절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에서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수준에 따라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는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직접효과와 더불어 조절효과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행동을 의도성에 따라 자율적인 행동과 비자율적인 행동으로 구분하고, 진로탐색행동의 성과 차이를 예측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Zikic & Hall, 2009).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차이에 대해 논의하면, 크게 두 가지 논의사항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진로선택몰입과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개념적 유사성으로 인해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이 고려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취업이라는 요구에 따라 비자율적인 의도로 수행되는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진로결정에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Blustein, 1997; Porfeli & Skorikov, 2010; Zikic & Hall, 2009). 하지만 이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의 결과변인으로 선정한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태도로써 진로결정과는 구분되는 면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진로목표 동일시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Waterman, 2015). 이렇게 볼 때,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진로선택몰입과 유사한 개념일 수 있다. 실제 이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진로선택몰입의 상관관계가 .737로 나타나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이와 관련하여 Flum과 Blustein(2000)은 비자율적인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는 대학생 또한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을 경험할 수 있기에 종국에는 자율적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정체성 관련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향한 몰입의 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목표 지향 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Berzonsky, 1989; Schwartz et al., 2013). 이러한 선행연구의 설명을 고려할 때,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진로선택몰입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Taveira & Moreno, 2003).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 자율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율적 동기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도 고려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율적 동기(내적 동기+확인된 조절 동기) 하위요인 점수에서 통제된 동기(부과된 조절 동기+외재적 동기) 하위요인 점수를 뺀 자율성 지수(RAI: Relative Autonomy Index)를 산출하여 활용하여 왔다(박고운, 이기학, 2007; 송현심, 홍혜영, 2010; Guay, 2005; Guay et al., 2006).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율적 동기와 통제된 동기의 관련성을 단순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율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된다(Van den Broeck et al., 2013; Weinstein et al., 2012).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동기의 하위요인만을 측정하고 합한 값을 자율적 동기 수준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김은영, 성소연, 최명구, 2014; 장현진, 2011; Ryan & Connell, 1989). 그 결과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상관관계는 .61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자율성의 영향이 비교적 낮거나 없을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다(박고운, 이기학, 2007; 송현심, 홍혜영, 2010; 최동선, 2003).

이를 통해 볼 때, 이 연구에서 측정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자율적 동기도 높고 통제된 동기도 높은 학생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여 동기의 양적 수준만을 측정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되는데, Ryan과 Connell(1989)은 자율적 동기를 높게 측정한 대학생은 통제된 동기를 낮게 측정할 것이므로 자율적 동기만을 측정함으로써 자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측정에 있어 통제된 동기를 고려하지 못함은 일반적인 동기의 양

적 수준만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측정은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와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상관관계를 강화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통제된 동기를 반영하여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의 능동적인 취업준비를 위해 진로선택몰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로선택몰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대학생 진로선택 관련 이론 및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진로선택을 위한 자기개념 형성의 중요성 및 진로탐색의 필요성을 고찰하였고, 진로선택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취업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대학생관련 진로이론 및 정체성 이론의 설명을 고찰하여, 자기개념에 기반한 진로목표 선택이 진로선택몰입의 핵심 기제임을 확인하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진로선택몰입 형성과정의 중요한 변인으로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선정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종합함으로써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 고찰 및 연구 모형 설정을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영향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은 서로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검정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설정하였다.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층화표집, 군집 표집, 비율 표집을 활용하였고 총 7개 대학, 49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중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였는데, 내적 일치도 계수가 .85~.93 이었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론적 하위요인에 따라 문항이 구분되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외에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연구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7개 대학에 75부(표집크기 70부+여분 설문지 5부)씩 525부가 배부되었으며, 490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결측치,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46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t검정, F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Mplu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가설에 따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자가 설정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간의 인과적 구조 모형은 실증 자료를 타당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β=.244)을 미쳤으며, 취업불안에는 부적 영향(β=-.187)을, 진로탐색행동에는 정적 영향(β=.140)을 미쳤다.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 영향(β=-.135)을 미쳤으며, 진로선택몰입에도 부적 영향(β=-.313)을 미쳤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영향(β=.455)을 미쳤다.

셋째,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β=.058), 진로탐색행동(β=.064)은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가족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취업불안의 매개효과, 취업불안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의 이중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유의한 조절효과(B=.153)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을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진로선택몰입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기준에 적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진로선택몰입을 형성하는데 있어 진로목표와 자기개념을 동일시하는 심리적 과정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대학생은 진로목표와 자기개념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고자 확신하고 진로목표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을 예측하는데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취업불안을 느끼는 경향성을 낮추고,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정한 결과, 적합도가 타당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은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취업불안 및 진로탐색행동, 각각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가족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이 간접적인 영향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가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는데 있어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인 측면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지지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진로선택몰입, 진로탐색행동 각각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친다. 취업불안은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연하고, 그 결과 진로선택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취업불안은 진로탐색행동 성과에 대한 낮은 기대 및

비관적 사고를 유발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저해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취업불안 수준은 취업난 등의 외부 상황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정서적 상태라는 점에서 개입이 어려운 변인이다. 특히 취업불안에 미치는 가족지지의 영향이 낮았다는 점은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취업이라는 문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반응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취업불안 수준 자체를 낮추는 개입과 더불어 취업불안의 부적 영향을 낮추는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은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선택몰입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진로탐색행동의 영향은 다른 변인의 영향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등가제약모형(equality constrained model) 검정 등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진로선택몰입 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발달과업으로써 진로탐색행동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 풀이된다. 따라서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로탐색행동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 분석 결과,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직업에 대한 탐색은 학년에 따라 높아지나 자신에 대한 탐색은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자신에 대한 탐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대학생의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취업불안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조절한다.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높은 대학생은 취업불안을 변화의 신호로 이해함으로써 진로탐색행동 참여 의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취업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대학생 진로지도 실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자신에 대한 탐색’을 촉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 중 진로목표 동일시를 강조하였다. 진로목표 동일시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와 자기개

념의 일치감을 인식하는 수준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진로목표 동일시는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자신에 대한 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탐색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행동으로써 자기개념 형성을 위한 근본적인 발달과업이기 때문이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한편,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직업에 대한 탐색은 학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자신에 대한 탐색은 차이가 없었다. 이와 더불어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 중 진로목표 선택은 학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절한 자신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해,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또한 형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대학생이 취업불안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촉진해야 한다. 최근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의 만성적 진로미결정 요인으로 취업관련 불안을 제시하고 있다(Brown et al., 2012; Kelly & Lee, 2002; Saka et al., 2008). 하지만 이 연구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취업불안이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진로지도는 대학생이 취업불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취업불안이란 정서적 불편함을 변화의 신호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대학생의 자발적인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정서적 문제에 효과적인 처치로써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Daniels, Steewart, Stupnisky, Perry, & Lo Verso, 2011; Vignoli, 2015), 인지적 요인으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촉진하여 취업불안의 영향을 낮추는 관점의 대학생 진로지도는 취업불안 수준 자체를 낮추는 관점의 진로지도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가족지지가 부족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간 선행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을 해석함에 있어 정서적 안정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여 왔다(Flum, 2001; Fouad et al., 2016; Larson & Wilson, 1998; Whiston & Keller, 2004).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가족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이 정서적 측면의 영향, 즉 취업불안의 매개효과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가 낮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서적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구적, 평가적, 물질적 지원 등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한편, 가족지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써 대학생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다(Blustein, 2011; Dik & Duffy, 2009). 특히, Fouad 외(2016)는 가족지지의 하위요인 중 물질적 지지(financial support)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물질적 지지는 가족환경에 따라 편차가 큰 요인으로써 대학생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목표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을 경험하는 대학생은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 중 진로목표 동일시를 적절히 형성하지 못해 종국에는 피상적인 진로선택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Blustein, 2011; Dik & Duffy, 2009). 따라서 가족지지가 부족한 대학생이 현실적인 제한을 넘어, 다양한 진로목표 대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직업에 대한 탐색'을 촉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공 계열에 따라 관찰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연·공학계열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탐색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연·공학계열 대학생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에 비해 졸업 후 진출 분야가 어느 정도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면이 있다(이미라, 2015; 임은미 외, 2009). 비교적 진출분야가 뚜렷한 자연·공학계열 대학생은 탐색할 직업분야가 일정 수준 설정되어 있어 해당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은 탐색할 직업분야를 설정하기가 어려워 직업에 대한 탐색 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가정할 때,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탐색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진로지도가 요구된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탐색이 낮은 이유가 '탐색할 직업분야 설정의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할 때, 우선 이들이 다양한 탐색활동에 개방적으로 참여하여 직업분야 설정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Krumboltz et al., 2013).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진로선택몰입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 중 진로목표 선택은 학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이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가능케 한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은 취업요구에 직면하여,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을 동반하지 못한 피상적인 진로목표 선택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Luyckx et al., 2008; Waterman, 2015). 물론 이러한 해석은 동일 시점에서 다른 특징을 갖는 집단, 즉 학년에 따른 서로 다른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기에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별 잠재성장모형 분석 방법 등을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가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관련 변인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불안 및 진로탐색행동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간접효과의 크기는 이론적 예측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불안 및 진로탐색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족관련 변인 이외에 다른 차원의 환경요인이 더욱 적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취업불안 및 진로탐색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측정 및 활용에 있어 통제된 동기의 영향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비교적 낮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다(박고

운, 이기학, 2007; 송현심, 홍혜영, 2010; 최동선, 2003).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측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통제된 동기를 고려하지 않아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영향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여 모형에 투입하는 방법, 자율적 동기와 통제된 동기를 모두 모형에 투입하는 방법, 자율적 동기와 통제된 동기를 잠재집단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업불안을 보다 면밀히 측정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불안을 측정함에 있어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조규판, 2008). 이러한 하위요인 구성은 신뢰도 분석 및 측정모형 분석결과, 기준치 이상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은 다른 두 하위요인과 이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과 다른 하위요인 간의 상관은 비교적 낮았으나(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444,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 .481),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의 상관은 .724로 높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은 학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은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은 성별,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두 하위요인은 여학생 및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의 경우, 학년에 따라 높아지는 취업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만 유발 상황에 따른 불안, 원인 지각에 따른 불안은 취업이라는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의 차이(성별, 전공계열)가 반영되기 때문이라 이해되는 면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요인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심리적·신체적 상태 불안과 다른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법, 새로운 관점으로 취업불안의 하위요인을 구분하는 방법 또한 활용가능 할 것이다(김지현, 2018; 윤성원, 2016).

다섯째, 대학소재지(수도권/지방)에 따른 대학생 진로발달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설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층화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

의 대학생이 지방대학의 대학생에 비해 진로선택몰입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진로선택몰입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은 지방대학의 대학생에 비해 가족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수준이 낮았고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 중 직업에 대한 탐색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이 지방 대학의 대학생보다 진로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갖는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다(류장수, 2005. 허균, 2016). 하지만 최근 대학의 진로지도 강화에 따라 지방대학의 대학생 또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임현정, 김양분, 김난옥, 2015), 진로발달에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성희진, 나승일, 2012; 이병식, 외, 2013).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대학생은 수도권 대학생과 달리 같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받아 진로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소재지(수도권/지방)에 따른 대학생 진로발달 차이에 대한 후속연구는 이와 같은 가정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경연, 박숙경, 이제경. (2015). 대학생 졸업유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34**(2), 31-51.

고길곤. (2014). 설문순서에 따른 응답오차의 유무와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 168-189.

고재성. (2006).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 준거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고홍월. (2017). 조기 진로 목표 결정 대학생의 진로 재탐색-재결정 과정 분석. **상담학연구, 18**(1), 267-286.

고홍월, 김계현. (2009). 진로상담 : 진로의사결정 측정도구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10**(2), 967-987.

공윤정. (2014).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15**(1), 27-43.

권성호. (2011). 스포츠심리학 용어사용의 개념적 혼란 사례: flow와 Commitment를 대상으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4), 157-168.

김경태. (2003). **특성불안과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 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김계수. (2011). **조사연구방법론**.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김나래, 김대원, 이기학. (2013). 자기개념 명확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24-424.

김대업. (2008). AMOS A to Z. 파주: 학현사.

김미영, 이재신, 이지혜. (2015).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3**(2), 1-19.

김민규, 박수정. (2017). 몰입과 여가중독의 관계: flow와 Commitment를 중심으로. **한국여가크리에이션학회지, 41**(4), 55-67.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제2판). 서울: 학지사.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김연수. (2002). **인지갈등의 불안 유형과 귀인의 동기 심리학적 요인에 따른 학생의 물리 개념 변화 특성**.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유리, 이제경.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상담학연구, 17**(5), 331-356.

김은영, 성소연, 최명구. (2014). 자기결정동기 유형에 따른 부모의 자율성지지 환경,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동기, 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 연구, 21**(5), 1-27.

김은애, 진성미. (2015). 대학생들이 진로탐색 과정에서 겪는 경험: 근거 이론적 접근. **직업교육연구, 34**(3), 67-90.

김정숙, 서리나, 탁정미. (2006).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9**(4), 5-14.

김종욱. (2018).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 **한국노동리뷰, 157**. 85-88.

김지근, 이기학. (2011).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 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김지근, 이기학. (2016).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 및 성격 관련 진로 어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7**(3), 205-223.

김지영. (2015).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이 대학생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직업교육연구, 34**(2), 75-108.

김지현. (2018).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역기능적 상위인지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김진숙. (2004). 대학생들의 일의 개념. **상담학연구, 5**(4), 973-991.

김형수, 방희명. (2014).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선택몰입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9**, 375-397.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5). **취업/진로에 대한 청년층 인식 조사**. 서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류근관. (2005). **통계학**. 파주: 법문사.

류장수.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1-27.

류지은, 정진철. (2017). 국내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20**(1), 27-56.

류진숙. (201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문선아. (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민지애, 유금란. (2015).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45-63.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박미경, 김은하. (2016).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207-225.

박소영, 정영숙. (2011).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17**(1), 18-39.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박한샘, 조희진.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신경증, 다차원적 완벽주의 및 부모 진로지지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9**(2), 213-236.

박현미. (2011).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환보. (2011).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개인배경과 대학 특성의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25.

박환보, 김성식. (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3), 77-98.

방희원, 조규판, (201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불안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4**(2), 101-116.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배병렬. (2016).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2016). **서울대학교 학부생 진로의식 조사 결과**. 서울: 서울대학교.

서진숙. (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선혜연, 이제경, & 김선경. (2012).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결과. **아시아교육연구, 13**(2), 1-24.

성희진, 나승일. (2012).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력개발역량과 경력탐색행동 및 대학경력개발지원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 83-108.

성태제. (199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소용준, 박준성. (2016). 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진로연구, 6**(4), 23-44.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 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안수영. (2008). **지방대 여학생의 취업장벽과 취업준비**.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오보영. (2012).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오은주. (2014). 대학생의 특성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2), 85-107.

유기은. (2016). **사회비교경향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유혜승. (2016).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7**(2), 283-309.

윤성원. (2016).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확증편향, 취업불안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이경아, 김진현. (2015).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인식. **간호학의 지평, 12**(1), 42-49.

이득연, 홍경자. (2004). 가족의 심리 사회적 변인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 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109-120.

이미라. (2015).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8767-8775.

이병식, 공희정, 김혜림. (2013). 대학생의 진로역량개발에 대한 대학 특성 요인의 영향 분석: 층위 간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1**(4), 213-247.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 **상담학연구, 15**(3), 1163-1181.

이부영. (2002). **분석심리학 : e.G. Jung 인간심성론.** 서울 : 일조각.

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및 진로정체성과 진로성숙에 관계에 대한 성차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37-53.

이상희, 심희준. (2014). 진로정체감 유예 지위에 대한 고찰. **청소년상담연구, 22**(1), 71-91.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순영, 정창숙. (2017).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143-152.

이아라, 이주영. (2016).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및 진로관련 정서, 인지 및 행동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상담학연구, 17**(6), 241-265.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이종범. (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주현. (2011). 설문조사시 질문순서가 응답결과에 미치는영향.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7-308.

이지연, 정숙영, 방혜진(2009). 사이버 진로상담 장기내담자 유형 및 효과적 상담 접근 방식 탐색. **상담학연구, 10**(4), 2169-2186.

이지은, 이제경. (2015). 진로상담: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6**(5), 171-192.

이현주. (2008). 개인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활동 수준의 효과, 일부 지역소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1**(3), 119-135.

이현주. (2009). 비합리적 신념과 상태불안의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2), 101-116.

이형권. (2016).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 및 매개된 조절분석의 오해와 진실. **관광연구, 31**(3), 213.

이형권. (2018). **M-Plus를 이용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파주: 신영사.

이훈영. (2010). **이훈영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청람.

임용자. (1995).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에 관한 고찰. **교육연구,** 14, 465-481.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임은미, 박승민, 엄영숙. (200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전공 만족도, 전공 및 직장선택 기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6**(10), 33-50.

임현정, 김양분, 김난옥. (2015). 대학 입학전후 진로성숙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직업능력개발연구, 18**(3), 27-56.

임효신. (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장현진. (2011). **기업 사내자격 소지자의 자격 취득 동기와 인적자원개발 효과 변인의 인과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장현진. (2017).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윤경, 나현미, 이지은, 임해경. (2017). **고등교육단계의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철영. (1997). 진로지도의 의의와 실태. **교육개발, 110**, 28-31.

조규형. (2018).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조규형, 임정훈, 송수종, 정철영, 김진모. (2016). 서울지역 대학생의 자발적 졸업연기에 대한 질적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2), 105-128.

조규판. (2008).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교육학연구, 46**(2), 53-75.

조아라. (2017).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주명진, 김정남. (2011).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7**, 157-174.

천석준, 이기학. (2008). 신경증, 불안, 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경로모형 검증: 조절초점이론의 관점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93-110.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최동선. (2005). 평생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방향의 탐색. **직업과 인력개발, 8**(2), 120-127.

최수정, 정철영. (2007).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2), 161-183.

최영임, 임정섭. (2013). 의사결정유형과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390-390.

최윤정, 구본정.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하위요인에 의한 진로결정 수준의 차별적 진단. **상담학연구, 11**(4), 1657-1672.

탁진국. (2011).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하정, 홍지영. (201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353.-374.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7 교육통계연보**. 충북: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4년제 대학생의 스펙 쌓기 실태**. Krivet issue brief.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진로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허균. (2016). 다층분석을 통한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영향 요인 탐색: 대학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중심으로.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56-267.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1**(4), 1-24.

황매향. (2009). Gottfredson 제한-타협 이론의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가능성 탐색. **진로교육연구, 22**(1), 1-17.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2**(3), 675-699.

Adams, G. R., & Marshall, S. (1996)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identity: understanding the person in context. *Journal of Adolescence, 19*(1), 1-14.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Allen, N. & Meyer, J.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irma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1), 1-18.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480.

Arnett, J. J. (2006). Socialization in emerging adulthood: From the family to the wider world, from socialization to self-socialization. In J. Grusec & P.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pp.208-231). New York, NY: Guilford Press.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1), 68-73.

Assor, A., Vansteenkiste, M., & Kaplan, A. (2009). Identified versus introjected approach and introjected avoidance motivations in school and in sports: The limited benefits of self-worth striving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2), 482-497.

Balistreri, E., Buschrossnagel, N. A., & Geisinger, K. F. (199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ce, 18*(2), 179-192.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ecker, H. S. (1960). Note on the concept of commit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6*(1), 32-40.

Berzonsky, M. D. (1989). Identity styl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3), 268-282.

Blustein, D. L. (1988). A canonical-analysis of career choice crystallization and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3), 294-297.

Blustein, D. L. (1992). Applying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career exploration 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2), 174-184.

Blustein, D. L. (1994) "Who am I?": The question of self and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In M. L. Savickas & R. W. Lent (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pp. 139-154).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60-274.

Blustein, D. L. (2008). The role of work in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 A conceptual, historical, and public policy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63*(4), 228-240.

Blustein, D. L. (2011). A relational theory of wor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1-17.

Blu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 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rocess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3), 342-378.

Blustein, D. L., & Noumair, A. (1996). Self and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5), 433-441.

Blustein, D. L., & Palladino, D. E. (1991). Self and identity in late adolescen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tegr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4), 437-453.

Blustein, D. L., Pauling, M. L., Demania, M. E., & Faye, M. (1994). Relation between exploratory and choice factors and decisional progr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4*(1), 75-90.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Blustein, D. L., Walbridge, M., Friedlander, M., & Palladino, D.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Boehm, A., & Cohen, A. (2013). Commitment to community practice among social work students: Contributing Factor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9*(4), 601-618.

Bosma, H. A. (1985).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ts: Coping with commitm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roningen.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NY: Basic Books.

Braunstein-Bercovitz, H., Benjamin, B. A., Asor, S., & Lev, M. (2012). Insecure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pessimis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2), 236 - 244.

Brown, S. D., Hacker, J., Abrams, M., Carr, A., Rector, C., Lamp, K., Telander, K., & Siena, A. (2012).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 3-21.

Caporoso, R. A., & Kiselica, M. S. (2004). Career Counseling With Clients who Have a Severe Mental Ill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2*(3), 235-245.

Carson, K. D. & Bedeian, A. G. (1994). Career commitment: Construction of a measure and examination of its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4*(3), 237-262.

Chartrand, J. M., Robbins, S. B., Morrill, W. H., & Boggs, K.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491-501.

Cheung, R., & Arnold, J. (2014). The Impact of Career Exploration on Career Development Among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5*(7), 732-748.

Cheung, R., & Jin, Q. P. (2016). Impact of a career exploration course on career decision making, adaptability, and relational support in Hong Ko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481-496.

Cheung, C. K., & Liu, E. S. C. (2017).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volunteering to career commitment with friend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22*(7), 754-771.

Colarelli, S. M., & Bishop, R. C. (1990). Career commitment, functions, correlates, and management.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15*(2),158-176.

Cox, D. W. (2008). *The operationalization of occupational engage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s.* Ph.D., University of Kansas.

Creed, P. A., Fallon, T., & Hood,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person and situation variables, and career concerns in you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219-229.

Creed, P. A., & Hood, M. (2015).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acale to assess career goal discrepanc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2), 308-317.

Crocetti, E., Rubini, M., & Meeus, W. (2008). Capturing the dynamics of identity formation in various ethnic group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31*(2), 207-222.

Crossley, C. D., & Stanton, J. M. (2005). Negative affect and job search: Further examination of the reverse causation hypothe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549-560.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 1*(1), 16-29.

Daniels, L. M., Steewart, T. M., Stupnisky, R. H., Perry, & Lo Verso, T. (2011). Relieving career anxiety and indecision: the role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ceived control and faculty affiliation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4*(3), 409 - 426.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 - 268.

Deci, E. L., & Vansteenkiste, M. (2004).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basic need satisfacti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in positive psychology. *Ricerche di Psichologia, 27*(1), 17-34.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Downing, H. M., & Nauta, M. M. (2010). Separation-individuation, exploration, and identity diffusion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3), 207 - 227.

Duffy, R. D., & Dik, B. J. (2009). Beyond the Self: External Influences i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1), 29-43.

Duffy, R. D., Dik, B. J., & Steger, M. F. (2011). Calling and work-related outcomes: Career commit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2), 210-218.

Duffy, R. D., & Sedlacek, W. E. (2007).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a calling: Connection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3), 590 - 601.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 x 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501 - 519.

Emmerling, R. J., & Cherniss, C. (2003).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areer choice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153-167.

Epstein, S. (1994). Integration of the cognitive and the psychodynamic unconscious. *American Psychologist, 49*(8), 709 - 724.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Farmer, H. S., & Chung, Y. B. (1995). Variables related to career commitment, mastery Motivation, and level of career aspir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4), 265-278.

Ferrari, L., Ginevra, M. C., Santilli, S., Nota, L., Sgaramella, T. M., & Soresi, S. (2015). Career exploration and occupational knowledge in Italia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5*(2), 113-130.

Ferrari, L., Nota, L., Soresi, S., Blustein, D. L., Murphy, K. A., & Kenna, A. C. (2009). Constructions of Work Among Adolescents in Transi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1), 99-115.

Flum, H. (2001). Relational dimension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59*(1), 1-16.

Flum, H., & Blustein, D. L.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3), 380-404.

Fouad, N. A., Kim, S. Y., Ghosh, A., Chang, W. H., & Figueiredo, C. (2016). Family Influence on Career Decision Making: Validation 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1), 197-212.

Fuqua, D. R., Seaworth, T. B., & Newma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2), 175-186.

Gati, I., & Asher, I. (2001). Prescreening, in-depth exploration, and choice: From decision theory to career counseling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2), 140-157.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Germeijs, V., & Verschueren, K. (2006).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A longitudinal study of one choi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2), 189-204.

Germeijs, V., Verschueren, K., & Soenens, B. (2006). Indecisiveness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Longitudinal associations and the mediational role of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397-410.

Giffords, E. D. (2003). An examination of organizational and professional commitment among public, not-for-profit, and proprietary social service employee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7*(3), 5-23.

Giffords, E. D. (2009). An examination of w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rofessional commitment and the relationship to work environment, demographic and organizational factors. *Journal of Social Work, 9*(4), 386-404.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Gordon, V. N. (2007). *The undecided college student: An academic and career advising challenge*. Springfield, IL: Thomas.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Monograph, 28*(6), 545-579.

Greenhaus, J. F., & Sklarew, N.D.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1-12.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Grotevant, H. D. (1987). Toward a process model of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3), 203 - 222.

Guan, Y. J., Wang, F. X., Liu, H. Y., Ji, Y. T., Jia, X., Fang, Z., Li, Y. M., Hua, H. J., & Li, C. D. (2015).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A three-wave investigation among Chinese under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6*, 95-103.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77-97.

Guay, F., Ratelle, C. F., Senécal, C., Larose, S., & Deschê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35-241.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2), 165-177.

Guichard, J. (2009). Self-construct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51-258.

Gupta, A., Chong, S. H., & Leong, F. T. L.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ocational identity measur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79-90.

Hardin, E. E., Varghese, F. P., Tran, U. V., & Carlson, A. Z. (2006).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self-constru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2), 346-358.

Harren, V. A. (1979).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Harren, V. A.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Heinz, W. R. (2002). Transition discontinuities and the biographical shaping of early work care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2), 220 - 240.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1280-1300.

Hinkelman, J. M., & Luzzo, D. A. (2007). Mental health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2), 143-147.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 - 1200.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Jaensch, V. K., Hirschi, A., & Freund, P. A. (2015). Persistent career indecision over time: Links with personality, barriers,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1*, 122-133.

Jepsen, D. A., & Dilley, J. S. (1974). Vocational decision-making models: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4*(3), 331-349.

Jiang, Z. (2016).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ediating Roles of Goal Commitment and Professional Commitment.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53*(1), 30-47.

Jin, L., Watkins, D., & Yuen, M. (2009). Personal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ommitment to the career choices process among Chinese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1), 47-52.

Jones. K. L.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486.

Jordaan, J. P. (1963). Exploratory behavior: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s. In D. E. Super (Ed.),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pp. 42 - 78).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Kahneman, D. (2003). A perspective on judgment and choice. Mapping bounded rati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58*(9), 697 - 720.

Kaplan, D. M., & Brown, D. (1987). The role of anxiety in career indecisiveness(2).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2), 148-162.

Kashdan, T. B., Rose, P., & Fincham, F. D. (2004). Curiosity and exploration: Facilitating positive subjective experiences and personal growth opportun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3), 291-305.

Kelly, K. R. & Lee, W. C. (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2), 302-326.

Krejcie, R.V., & Morgan, D.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607-610.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75-290.

Kroger, J., & Marcia, J. E. (2011). The identity statuses: Origins,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31-53). New York, NY: Springer.

Krumboltz, J. D. (1996).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counseling*.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Krumboltz, J. D., Foley, P. F., & Cotter, E. W. (2013). Applying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to Involuntary Career Transiti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1), 15-26.

Krumboltz. J. D., & Thoresen, C. E. (1964). The effect of behavioral counseling in group and individual settings on information-seeking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4). 324-333.

Ladany, N., Melincoff, D. S., Constantine, M. G., & Love, R. (1997). At-risk urban high school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6*(1), 45-52.

Larson, J. H., & Wilson, S. M. (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young adult career decision problems: A test of Bowenian theor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39-53.

Leal-Muniz, V., & Constantine, M. (2005). Predictors of the career commitment process in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2), 204 - 215.

Lent, R. W., Ezeofor, I., Morrison, M. A., Penn, L. T., & Ireland, G. W. (2016). Apply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1), 47-57.

Lips-Wiersma, M., & Wright, S. (2012). Measuring the Meaning of Meaningful Wo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mprehensive Meaningful Work Scale (CMWS).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7*(5), 655-685.

Littman-Ovadia, H., Oren, L., & Lavy, S. (2013). Attachment and autonomy in the workpla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4), 502-518.

Locke, E. A., & Latham, G. P. (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Lovibond, P. F., & Lovibond, S. H. (1995). The structure of negative emotional states: Comparis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 with the Beck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3), 335-343.

Luyckx, K., Duriez, B., Green, L. M., & Negru-Subtirica, O. (2017). Identity Processe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Goal Pursuits: Directionality of Effect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8), 1758-1771.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 Beyers, W. (2006). Unpacking commitment and exploration: Preliminary validation of an integrative model of late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3), 361-378.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Luyckx, K., Soenens, B., Berzonsky, M. D., Smas, I., Goossens, L., & Vansteenkiste, M. (2007). Information-oriented identity processing, identity consolidation, and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autonomy, self-reflection, and self-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099-1111.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udo/escent psychology* (pp. 159-187). New York: Wiley.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2), 63 - 78.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9), 954-969.

Mayer, J.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 Personality, 9*(3), 185-211.

Mayseless, O., & Scharf, M. (2003). What does it mean to be an adult? The Israeli experience. *New Directions in Child and Adolescence Development, 100*(1), 5-20.

McLean, K. C., Syed, M., & Shucard, H. (2016). Bringing identity content to the fore: Links to identity development processes. *Emerging Adulthood, 4*(5), 356-364.

Moller, A. C., Deci, E. L., & Ryan, R. M. (2006). Choice and ego-depletion: The moderating role of autonom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8), 1024-1036.

Mowday, R. T., Steer, R. M., & Porter, L. W. (1979).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224-247.

Murphy, K. A., Blustein, D. L., Bohlig, A. J., & Platt, M. G. (2010). The College-to-Career Transition: An Exploration of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8*(2), 174-181.

Nelson, L. J., Badger, S., & Wu, B. (2004). The influence of culture in emerging adulthood: Perspectives of Chinese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1), 26-36.

Nota, L., Ferrari, L., Solberg, V. S., & Soresi, S. (2007). Career search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with Italian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 181-193.

Nurmi, J. E. (1993). Adolescent development in an age-graded context: The role of personal beliefs, goals, and strategies in the tackling of developmental tasks and standard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6*(2), 169 - 189.

Paa, H. K., & McWhirter, E. H. (2000). Perceived influences on high school students' current career expectati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1), 29 - 44.

Park, K., Woo, S., Park, K., Kyea, J., & Yang, E. (2017).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4*(5), 440-452.

Paixao, O., & Gamboa, V. (2017). Motivational Profil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5*(3), 207-221.

Phillips, S. D., & Blustein, D. L. (1994). Readiness for career choices: Planning, exploring, and decid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1), 63-73.

Pisarik, C. T., Rowell, P. C., & Thompson, L. K.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areer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5*(4), 339-352.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Porfeli, E. J., & Skorikov, V. B. (2010). Specific and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46-58.

Pott, T. (2015). Mature Students Speak Up: Career Exploration and the Working Alliance.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4*(3), 225-242.

Praskova, A., Creed, P. A., & Hood, M. (2015).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91-106.

Puffer, K. A. (2011).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alient predictor for collegian's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2), 130-150.

Reed, M. B., Bruch, M. A., & Haase, R. F. (2004).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3), 223 - 238.

Reeve, J. (2015).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6th ed.). NJ: Wiley.

Richardson, J., & Zikic, J. (2007). The darker side of an international academic caree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2*(2), 164 - 186.

Robitschek, C., & Cook, S. (1999). The influence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and coping styles on career exploration and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1), 127-141.

Roe, A. (1957). Early determinant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 212-217.

Rosso, B. D., Dekas, K. H., & Wrzesniewski, A. (2010). On the meaning of work: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review. In A. P. Brief & B. M. Staw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An Annual Series of Analytical Essays and Critical Reviews*, Vol 30 (Vol. 30, pp. 91-127).

Russell, D., & Cutrona, C. (198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to stres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Toronto, Canada.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Ryan, R. M., & Deci, E. L. (2006). Self-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autonomy: Does psychology need choice, self-determination, and will?.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57-1586.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s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Santos, P. J., Ferreira, J. A., & Goncalves, C. M. (2014). Indecisiveness and career indecision: A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1), 106-114.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Savickas, M. L. (2010). Re-viewing scientific models of career as social constructions. Revista Portuguesa de Pedagogia Psychologica: *Numero Conjunto Comemorativo, 30*, 33 - 43.

Savickas, M. L.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0*(1), 13-19.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 P., Duarte, M. E., Guichard, J. Soresi, S., Vans Esbroeck, R., & van Vianen, A. E. M.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39-250.

Schwartz, S. J., Mullis, R. L., Waterman, A. S., & Dunham, R. M. (2000). Ego identity status, identity style, and personal expressivenes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ree convergent construc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4), 504 - 521.

Schwartz, S. J., Zamboanga, B. L., Luyckx, K., Meca, A., & Ritchie, R. A. (2013). Identity in emerging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1*(2), 96-113.

Scott, D. J., & Church, A. T. (2001). Separation/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328-347.

Serafini, T. E., & Maitland, S. B. (2013). Validating the functions of identity scale: Addressing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matters. *Psychological Reports, 112*(1), 160-183.

Serling, D. A., & Betz, N. E. (199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asure of fear of commi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91-97.

Sheldon, K. M., & Elliot, A. J. (1998). Not all personal goals are personal: Comparing autonomous and controlled reasons for goals as predictors of effort and attain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5), 546 - 557.

Sheldon, K. M., Osin, E. N., Gordeeva, T. O., Suchkov, D. D., & Sychev, O. A. (2017). Evaluating the Dimensionality of Self-Determination Theory's Relative Autonomy Continuu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3*(9), 1215-1238.

Spielberger, C. (1972). Experimental approaches to test anxiety; Attention and the uses of information.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2), N. Y: Academic press.

Storme, M., & Celik, P. (2018).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The Moderating Role of Creative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6*(3), 445-456.

Strauss, K., Griffin, M. A., & Parker, S. K. (2012). Future work selves: how salient hoped-for identities Motivate Proactive Career Behavio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3), 580-598.

Stryker, S. (2003). Whither symbolic interaction? Reflections on a personal odyssey. *Symbolic Interaction, 26*(1), 95-109.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 - 226.

Sumner, R., Burrow, A. L., & Hill, P. L. (2015). Identity and Purpose as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n Emerging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3*(1), 46-54.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16*(3), 282-298.

Super, D. E. (1990). A life 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2nd ed., pp. 197-261).San Francisco: Jossey Bass.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9*(2), 194-201.

Taveira, M. D. C., & Moreno, M. L. R. (2003). Guidance theory and practice: the status of career explora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1*(2), 189-207.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Thoits, P. A. (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Epidemi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4), 341-362.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3 - 19.

Urbanaviciute, I., Pociute, B., Kairys, A., & Liniauskaite, A. (2016).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vocational outcomes among university undergraduates: Exploring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12-21.

Vansteenkiste, M., Sierens, E., Soenens, B., Luyckx, K., & Lens, W. (2009). Motivational Profiles From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The Quality of Motivation Matt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3), 671-688.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oenens, B., & Matos, L. (2005). Examining the impact of extrinsic versus intrinsic goal framing and internally controlling versus autonomy supportive communication style upon early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76*(2), 483 - 501.

Van den Broeck, A., Lens, W., De Witte, H., & Van Coillie, H. (2013). Unraveling the importance of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workers' motivation for well-being: A person-centered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1), 69 - 78.

Vertsberger, D., & Gati, I. (2016).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nd help-seeking among Israeli young adul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3*(2), 145 - 159.

Vianen, A. E. M., De Pater, I. E., & Preenen, P. T. Y. (2009). Adaptable Careers: Maximizing Less and Exploring Mor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4), 298-309.

Vignoli, E. (2015).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exploration among older French adolescents: The specific role of general trait anxiety and future school and career anxie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 182-191.

Vignoli, E., Croity-Belz, S., Chapeland, V., de Fillipis, A., & Garcia, M. (2005).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ts: The role of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53 - 168.

Vroom, V.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Vuolo, M., Mortimer, J. T., & Staff, J. (2014). Adolescent precursors of pathways from school to work.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4*(1), 145 - 162.

Wang, N., Jome, L. M., Haase, R. F., & Bruch, M. A. (2006). The role of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career choice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3), 312 - .332.

Waterman, A. S. (1990). The relevance of Aristotle's conception of eudaimonia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happiness.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Psychology, 10*(1), 39 - 44.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78 - 691.

Waterman, A. S. (2015). What does it mean to engage in identity exploration and to hold identity commitments?: A methodological critique of multidimensional measures for the study of identity processes. identity-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5*(4), 309-349.

Waterman, A. S., Schwartz, S. J., Goldbacher, E., Green, H., Miller, C., & Philip, S. (2003). Predicting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intrinsic motivation: The roles of self-determination, the balance of challenges and skills, and self realization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1), 1447 - 1458.

Weinstein, N., Przybylski, A. K., & Ryan, R. M. (2012). The index of autonomous functioning: Development of a scale of human autonom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4), 397-413.

Werbel, J. D. (2000). Relationships among career exploration, job search intensity, and job search effectiveness in graduat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 379-394.

Whiston, S. C., & Keller, B. K. (2004).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4), 493-568.

Xu, H., & Tracey, T. J. G. (2014). The role of ambiguity tolera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1), 18-26.

Young, R. A., & Popadiuk, N. E. (2012). Social constructionist theories in vocational psychology. In P. McIlveen & D. E. Schultheiss (Eds.), *Social constructionism in vocational psychology and career development* (pp. 9-28). Rotterdam,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Young, R. A., Valach, L., & Collin, A. (2002). A contextualist explanation of career. In D. Brown and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206-25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Zanardelli, G., Shivy, V. A., & Perrone-McGovern, K. M. (2016). Predicting Behavioral Career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With Attachment and Separation Relationship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53*(4), 162-173.

Zikic, J., & Hall, D. T. (2009). Toward a More Complex View of Career Explorat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2), 181-191.

[부록 1]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개발 과정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 절차는 다음의 [그림 부록 1-1]과 같다.

1. 구인화

↓

2. 기존 측정도구 문항수집

① Blustein 외(1989)의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VECS)
② Colarelli와 Bishop(1990)의 Career Commitment Scale(CCS)
③ 고향자(1992)의 직업선택확신 검사
④ Balistreri 외(1995)의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EIPQ)
⑤ Crocetti 외(2008)의 Utrecht-Management of Identity Commitments Scale(UMICS)
⑥ Luyckx 외(2008)의 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DIDS)
⑦ Porfelli 외(2011)의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VISA)

↓

3. 인터뷰를 통한 추가 문항 수집 및 문항 작성

• 대상
  - 창업 및 학술동아리 활동을 참여하여 취·창업을 준비중인 학생 5명
  - 대학 내 연구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학을 준비중인 학생 5명
• 기간: 2018. 10. 8.(월) ~ 10. 12.(금). 개인 당 약 30분 소요
• 인터뷰 내용: 진로선택몰입 하위요인에 따라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한 인식

↓

4. 문항 검토

• 지시문, 응답양식 작성 후 문항 검토
• 내용 타당도: 진로지도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인에게 개념 정의에 따른 문항 타당도 검토 의뢰
• 안면 타당도: 대학생 10명에게 문항 이해도 검토 의뢰

↓

5. 예비조사 및 타당도, 신뢰도 확인

• 대상: 수도권 4년제 대학생 145명
• 분석방법: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

↓

6. 본조사 및 타당도, 신뢰도 확인

• 대상: 전국 4년제 대학생 463명
• 분석방법: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

[그림 부록 1-1]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개발 과정

1. 구인화

먼저,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을 진로선택몰입의 특징에 따라 ① 진로목표 선택, ② 진로목표 동일시,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적 특징, 이전 측정도구 문항별 행동의 특징을 종합한 것이었다(<표 Ⅱ-3>, (<표 Ⅲ-4>참조). 또한 이러한 구분은 진로목표로써 직업분야를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향후 담당할 직업역할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 실현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이란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을 표현한다(Blustein et al., 1989; Farmer, 1985; Harren, 1979; Waterman. 2015).

2. 기존 측정도구 문항 수집

문항 작성을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진로선택몰입 기존 측정도구 문항 중 앞서 설정한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인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부록 1-1>과 같다.

<표 부록 1-1> 기존 측정도구 문항 수집 결과

구분	원문	번역 및 수정	도구	비고
① 진로 목표 선택	1. I have a good deal of information about the occupational fields that are most interesting to me.	1.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Blustein 외(1989)	-
	2. I worry about my ability to make effective educational and career decisions.	2. 진학 및 진로와 관련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역 문항
	3. 나의 관심분야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할 수가 없다.	3. 나의 관심분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	고향자 (1992)	
	4. 나는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4.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1]		
	5. I have definitely decided on the occupation I want to pursue.	5.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명확히 결정했다.	Balistreri 외(1995)	-

<표 계속>

<표 부록 1-1> 계속

구분	원문	번역 및 수정	도구	비고
② 진로 목표 동일시	6. 나의 직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6. 취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2]	고향자 (1992)	역 문항
	7. 나의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7. 나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3]		
	8. My plans for the future match with my true interests and values.	8.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진정한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4]	Luyckx 외(2008)	-
	9. Becoming a worker in my chosen career will allow me to become the person I dream to be.	9. 취업을 통해 내가 꿈꿔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5]	Porfelli 외(2011)	
	10. My career will help me satisfy deeply personal goals.	10. 취업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한다.[6]		
③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11. I feel confident in my ability to achieve my career goals.	11. 진로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나의 능력에 자신 있다.	Blustein 외(1989)	-
	12. 나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에 확신이 있다.	12.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에 확신이 있다.[7]	고향자 (1992)	
	13. 앞으로 나의 진로가 분명해져서 정말 기쁘다.	13. 향후 나의 진로가 분명해서 기쁘다.[8]		
	14. My education gives me security for the future.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에게 안정감을 부여한다.[9]	Crocetti 외(2008)	
	15. No one will change my mind about the career I have chosen.	15. 내가 선택한 진로를 누구도 바꿀 수 없다.	Porfelli 외(2011)	

주 1) 진로목표 선택이란 맥락에 맞게 '진로'를 '취업할 직업분야'로 수정
2) 대학생이 문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을 통해'라는 표현으로 문항 수정
3) '정말로' 부사 삭제
4) 진로라는 맥락에 맞게 '미래계획'을 '진로계획'이란 표현으로 수정하고 '흥미'를 '신념'으로 수정
5) '내가 선택한 진로에 직장인이 되는 것'이란 표현을 '취업을 통해'로 수정하여 문항을 현재시제로 수정
6) '진로'라는 용어를 '취업을 통해'로 수정하여 문장을 현재시제로 수정
7) '나는'이란 용어 삭제
8) '정말' 부사 삭제
9) 진로라는 맥락에 맞게 '교육'을 '진로계획'이란 표현으로 수정

3. 인터뷰를 통한 추가 문항 수집 및 문항 작성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문항을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현재 자신의 진로준비를 위해 실천적인 외부활동(창업 및 학술동아리, 전공 관련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적 특징에 부합하는 질문을 순차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개요는 다음 <표 부록 1-2>와 같다.

<표 부록 1-2> 문항 수집 인터뷰 개요

구분	내용
기간	2018. 10. 8.(월) ~ 10. 12.(금). 개인당 약 30분 소요
대상 (10명)	• **창업 및 학술동아리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로의 창업 및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 5명 • **대학 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 5명
질문	• **진로목표 선택** - 현재 자신이 향후 취업할 직업분야 및 진학분야를 선택하였나요? - 이러한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진로목표 동일시** - 그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 자신에게 있어 졸업 후 취업, 진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 향후 취업 및 진학할 분야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나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 현재 자신의 선택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졸업 후 취업 및 진학할 분야를 선택했다는 점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나요?
방법	• **인터뷰 일정 및 장소 확정** • **인터뷰 도입** - 자기소개 및 인터뷰 목적 설명을 통해 인터뷰자 관심 및 흥미 유발 - 동기부여, 답변 내용 비밀보장 확인 및 녹음 양해 의뢰 • **인터뷰 내용을 순차적으로 질문하여 답변 유도** - 답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 및 이에 따른 느낌을 추가 질문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 문항 도출 - 학생의 답변이 현재 연구의 의도와 매우 일치한다고 동의함으로써 추가적인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인터뷰 종결** - 최종 요약·정리 및 확인 -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 표시

인터뷰 이후,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진로선택몰입 하위요인의 정의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문항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진로목표 선택 13문항, 진로목표 동일시 16문항,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28문항의 총 57문항이 도출되었다.

<표 부록 1-3> 인터뷰를 통한 문항 수집 결과

구분		① 진로목표 선택	② 진로목표 동일시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창업 및 학술 동아리 활동	①	1. 일단은 현재 이 진로를 시도하고자 한다.	1.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진로를 선택했다. 2.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벅차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3. 직업은 삶의 의미, 자아다(사회구성원으로써 필요한 수단).	1. 현재 선택한 진로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될 것이다. 2. 다른 진로에 대한 미련이 없다. 3. 진로선택을 위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 4. 감당할 수 있을까란 생각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5.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더욱 보람있다.
	②	2. 나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3.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4. 현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통해 분야를 선택했다.	4. 최종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로를 선택했다. 5. 전문성 향상, 학습을 위해 현재 진로를 선택했다. 6. 죽었을 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진로를 선택했다.	6. 나의 진로선택은 나에게 성공을 안내할 것이다. 7.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선명하다.
	③	-	7. 전문가로써의 역할이 고려된다.	8. 나의 진로목표는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④	5.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	8. 직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갖게 하는 수단이다. 9. 직업을 통해 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9. 나의 진로목표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10. 나의 진로목표는 준비를 위한 효율성을 달성케 한다.
	⑤	6. 오랫동안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10. 고려하는 분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했다. 11.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싶기에 전문성을 쌓고 싶다.	11.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나에게 경험이 될 것이다. 12. 나의 진로목표는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한다. 13. 나의 진로목표는 안정감을 부여한다. 14. 나의 진로목표는 체계적인 준비를 가능케 한다. 15. 가족에게 나의 진로목표를 자신 있게 이야기 한다.

<표 계속>

<표 부록 1-3> 계속

구분		① 진로목표 선택	② 진로목표 동일시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대학 내 학생 지원 프로그램 연구 활동	⑥	7. 멋있어 보여서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8. 더욱 나은 결과를 생각하여 진학을 선택했다.	12.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16. 대학원 진학은 나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기에 확신한다. 17. 현재 선택한 길로 가는 것은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다. 18.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⑦	9.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10.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	19. 진로목표가 없을 때는 불안했다. 20. 나의 진로목표는 불안함 속에서도 도전을 가능케 한다. 21. 나의 진로목표는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한다.
	⑧	11. 나의 경험상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했다.	13. 나의 진로목표를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22. 나의 진로목표는 나를 열심히 살게 한다(보람, 성취감). 23. 나의 진로목표를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⑨	12. 흥미 및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과 가치에 맞는 직업선택을 고려했다.	14. 사회인으로써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 15.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직업(전문가)을 선택했다.	24. 나의 진로목표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 25. 나의 진로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뿌듯한다.
	⑩	13. 재미있어 보여서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6.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했다.	26. 선택하지 못한 길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 27.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본다. 28. 직업생활에서 재미있고, 보람차고 나름 뿌듯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종적으로 기존 측정도구 고찰을 통해 수집한 문항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문항을 비교·검토하고 비슷한 인터뷰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하위요인 별 8문항씩, 총 24문항을 작성하였다(<표 부록 1-4> 참조). 단,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문항 중 기존 측정도구 문항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문항은 최종 문항으로 작성하였고(※ 표시 참조), 찾아 볼 수 없던 문항은 2명 이상의 학생이 제시한 문항만 활용하였다.

<표 부록 1-4> 최종 문항 작성 결과

구분	문항 작성 결과	기존 측정도구 문항 수집 결과	인터뷰를 통한 문항 수집 결과	비고
① 진로 목표 선택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5.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명확히 결정했다.	-	• '명확히'란 표현이 확신 및 애착과 중복되기에 삭제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 현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통해 분야를 선택했다.	• 결정이 현재 자신의 특징과 적합성 판단을 통해 이루어짐 표현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	2. 나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	7. 멋있어 보여서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3. 재미있어 보여서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1. 나의 경험상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했다.	
	5. 관심이 가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3. 나의 관심분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	6. 오랫동안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9.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 응답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기존 역문항을 일반 문항으로 수정
	6. 만족할 수 있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	3.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4. 현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통해 분야를 선택했다. 8. 더욱 나은 결과를 생각하여 진학을 선택했다.	• 선택의 이유로 제시된 '더욱 나은 결과'를 '만족할 수 있는'으로 수정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4.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	-
	8. 취업할 직업분야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2. 진학 및 진로와 관련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	• 문항의 통일성을 위해 '취업할 직업분야'로 수정

<표 계속>

<표 부록 1-4> 계속

구분	문항 작성 결과	기존 측정도구 문항 수집 결과	인터뷰를 통한 문항 수집 결과	비고
② 진로 목표 동일시	9. 나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7. 나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	-
	10. 취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6. 취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	-
	11. 취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9. 취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	-
	12. 취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10. 취업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한다.	1.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진로를 선택했다. 2.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벅차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10. 고려하는 분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했다. 14. 사회인으로써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 16.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했다.	• 직업생활을 통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삶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식을 문항에 표현
	13. 취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14. 취업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한다.	-	5. 전문성 향상, 학습을 위해 현재 진로를 선택했다. 7. 전문가로써의 역할이 고려된다. 9. 직업을 통해 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11.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싶기에 전문성을 쌓고 싶다. 15.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직업(전문가)을 선택했다.	•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쌓고 싶다는 인식을 문항에 표현
	15. 나의 진로계획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한다.	※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 나는 나 자신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luyckx et al., 2008).	3. 직업은 삶의 의미, 자아다. 6. 죽었을 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진로를 선택했다.	• Waterman(2015)이 제시한 자기표현적 몰입을 문항에 표현
	16.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8.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진정한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표 계속>

<표 부록 1-4> 계속

구분	문항 작성 결과	기존 측정도구 문항 수집 결과	인터뷰를 통한 문항 수집 결과	비고
③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17.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이 있다.	11. 진로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나의 능력에 자신 있다. 12.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에 확신이 있다.	6. 나의 진로선택은 나에게 성공을 안내할 것이다. 17. 현재 선택한 길로 가는 것은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다.	• 자신이 추구해야할 진로목표를 굳게 믿고 있는 상태를 표현
	18. 가족 및 친구들에게 나의 진로목표를 자신 있게 이야기 한다.	※ 나의 친구들에게 이 진로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Colarelli & Bishop, 1990).	15. 가족에게 나의 진로목표를 자신 있게 이야기 한다.	• 확신에 근거하여 주변 사람들이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음을 표현
	19.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도전하고자 한다.	15. 내가 선택한 진로를 누구도 바꿀 수 없다.	4. 감당할 수 있을까란 생각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20. 나의 진로목표는 불안함속에서도 도전을 가능케 한다.	• 진로목표 달성 과정에서 존재하는 어려움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표현
	20.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에게 안정감을 부여한다.	9. 나의 진로목표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
	21.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	7.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선명하다. 8. 나의 진로목표는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10. 나의 진로목표는 준비를 위한 효율성을 달성케 한다. 14. 나의 진로목표는 체계적인 준비를 가능케 한다.	• 자신의 진로목표가 현재 나의 생활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표현
	22.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23.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	13. 향후 나의 진로가 분명해서 기쁘다.	5.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더욱 보람있다. 18.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25. 나의 진로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뿌듯하다. 22. 나의 진로목표는 나를 열심히 살게 한다.	• 자신의 진로목표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정 표현
	24.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	1. 현재 선택한 진로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될 것이다. 11.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나에게 경험이 될 것이다. 16. 대학원 진학은 나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기에 확신한다. 23. 나의 진로목표를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 자신의 진로목표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표현

주: ※ 표시는 기존 측정도구의 문항 중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의미하여 추가 수집함.

4. 문항 검토

문항을 작성한 이후에는 실제 설문조사에 임하기 위해 최종 문항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문항 지시문은 '현재 여러분의 인식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응답양식은 기존 정체성 몰입측정도구가 5점 Likert척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이후 진로지도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3인과 문항의 적절성 및 지시문, 응답양식의 적절성을 7점 Likert 척도로 검토 받았다(<표 부록 1-5> 참조).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평균 값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단, 검토의견이 중첩되고 비교적 낮은 점수의 문항(5점 이하)은 보완 및 삭제하여 하위요인 별 7개, 총 21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표 부록 1-5> 내용 타당도 검토 결과 및 수정사항

구분	문항	검토 결과					수정 사항
		평정(7점 만점)				공통 의견	
		①	②	③	평균		
① 진로 목표 선택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6	6	7	6.33	-	-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7	6	7	6.67	-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7	6	7	6.67	-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7	4	7	6.00	-	
	5. 관심이 가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3	4	7	4.67	관심과 흥미 중복	문항 삭제
	6. 만족할 수 있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3	6	7	5.33	직업역할 동일시와 중복	• 지금까지의 경험상 최선이라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5	6	7	6.00	-	-
	8. 취업할 직업분야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5	4	7	5.33	-	

<표 계속>

<표 부록 1-5> 계속

구분	문항	검토 결과					수정 사항
		평정(7점 만점)				공통 의견	
		①	②	③	평균		
② 진로 목표 동일시	9. 나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5	4	5	4.67	인생이란 표현이 포괄적임	문항 삭제
	10. 취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6	4	7	5.67	'직업을 통해'로 수정	'직업을 통해'로 수정
	11. 취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6	7	7	6.67		
	12. 취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6	6	7	6.33		
	13. 취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6	6	7	6.33		
	14. 취업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한다.	6	5	5	5.33	'전문가'의 의미 구체적 표현 필요	•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15. 나의 진로계획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한다.	5	4	7	5.33	-	-
	16.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5	7	7	6.33	-	
③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17.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이 있다.	7	7	7	7.00	-	
	18. 가족 및 친구들에게 나의 진로목표를 자신 있게 이야기 한다.	7	6	5	6.00	응답에 있어 개인의 성향차이 존재 가능	•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19.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도전하고자 한다.	7	6	7	6.67	-	-
	20.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7	6	6	6.33	-	
	21.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7	6	7	6.67	-	
	22.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7	6	7	6.67		
	23.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	7	4	7	6.00	22번 문항과 중복	문항 삭제
	24.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7	5	7	6.33	-	-

또한 대학생 10명에게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준을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5점 Likert 척도로 검토 받았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표 부록 1-6> 참조). 단, 검토의견이 중첩되고 비교적 낮은 점수(4점 이하)의 문항은 수정・보완 하였다.

<표 부록 1-6> 안면 타당도 검토 결과

구분	문항	평정(5점 만점)											검토 의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균	
① 진로 목표 선택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5	4	5	5	5	5	5	4	5	5	4.80	-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5	4	5	5	5	5	4	4	5	4	4.60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5	3	5	5	5	5	3	3	4	4	4.20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5	3	5	5	5	5	4	4	5	2	4.30	
	5. 지금까지의 경험상 최선이라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5	2	3	5	4	5	3	3	4	3	3.70	• 경험상 최선이라는 판단의 의미가 모호함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5	3	5	5	5	3	4	5	5	3	4.30	-
	7. 취업할 직업분야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5	4	2	5	4	4	3	3	5	4	3.90	•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는 표현이 모호함
② 진로 목표 동일시	8. 직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5	4	5	3	5	5	3	5	4	5	4.40	-
	9. 직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5	4	5	3	5	5	4	5	5	4	4.50	
	10.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5	4	5	3	5	5	4	5	4	4	4.40	
	11.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5	4	5	3	5	4	4	5	4	3	4.20	
	12.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5	4	5	2	5	3	5	2	2	4	3.70	• 전문가의 의미가 모호함
	13. 나의 진로계획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한다.	4	4	5	5	4	3	2	5	3	3	3.80	• 나 자신이라는 의미가 모호함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5	4	5	5	5	5	5	5	4	3	4.60	-
③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15.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이 있다.	5	4	5	5	5	5	5	5	4	2	4.50	
	16.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5	4	5	5	5	4	2	5	4	3	4.20	
	17.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도전하고자 한다.	5	5	5	5	5	5	5	5	5	4	4.90	
	18.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5	4	5	5	5	4	3	5	5	3	4.40	
	19.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4	4	5	5	5	3	5	4	5	3	4.30	
	20.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5	5	5	5	5	4	5	5	4	4	4.70	
	21.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5	4	5	5	5	3	5	4	4	3	4.30	

이상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예비조사 문항은 21개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아래 <표 부록 1-7>과 같다.

<표 부록 1-7> 예비조사 문항

구분	문항	비고
① 진로 목표 선택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역문항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② 진로 목표 동일시	8. 직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9. 직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
	10.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11.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12.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13.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③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15.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이 있다.	
	16.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17.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도전하고자 한다.	
	18.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19.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20.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21.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5. 예비조사 및 타당도, 신뢰도 확인

본조사에 임하기 전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준거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문항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 부록 1-8>과 같다. 17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검토 기준에 적합하였다. 단, 17번 문항의 경우 표준편차가 .740으로 기준치 .75보다 낮았다.

<표 부록 1-8> 예비조사 문항 분석 결과

하위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전체 상관	하위요인 상관		
							①	②	③
① 진로목표 선택	1	3.400	1.023	-.199	-1.070	.710***	.857***	.384***	.476***
	2	3.428	.991	-.208	-.924	.714***	.831***	.447***	.461***
	3	3.276	.894	-.041	-.686	.706***	.838***	.386***	.486***
	4	3.345	.923	-.313	-.408	.615***	.758***	.326***	.395***
	5	3.138	.962	-.091	-.568	.596***	.747***	.278***	.402***
	6[2)]	2.979	1.145	.041	-.956	.732***	.813***	.441***	.537***
	7[2)]	2.745	1.147	.236	-.925	.741***	.781***	.495***	.551***
② 진로목표 동일시	8[2)]	3.366	1.092	-.283	-.641	.590***	.489***	.586***	.437***
	9	3.793	.889	-.362	-.552	.587***	.316***	.801***	.455***
	10	3.945	.753	-.404	-.014	.491***	.205*	.720***	.410***
	11	3.786	.747	-.440	.153	.524***	.265***	.697***	.442***
	12	3.814	.920	-1.029	1.221	.445***	.253***	.586***	.347***
	13	3.766	.773	-.848	1.095	.549***	.313***	.715***	.432***
	14	3.648	.778	-.102	-.359	.637***	.461***	.682***	.511***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15	3.538	.965	-.415	-.482	.711***	.530***	.549***	.740***
	16	3.786	.765	-.368	-.037	.692***	.568***	.465***	.717***
	17[3)]	3.966	.740	-.362	-.078	.641***	.405***	.567***	.697***
	18	3.276	1.115	-.260	-.720	.533***	.386***	.286***	.682***
	19	3.559	.927	-.333	-.521	.727***	.509***	.528***	.828***
	20	3.662	.852	-.314	-.444	.646***	.395***	.486***	.792***
	21	3.752	.795	-.784	1.249	.535***	.256***	.455***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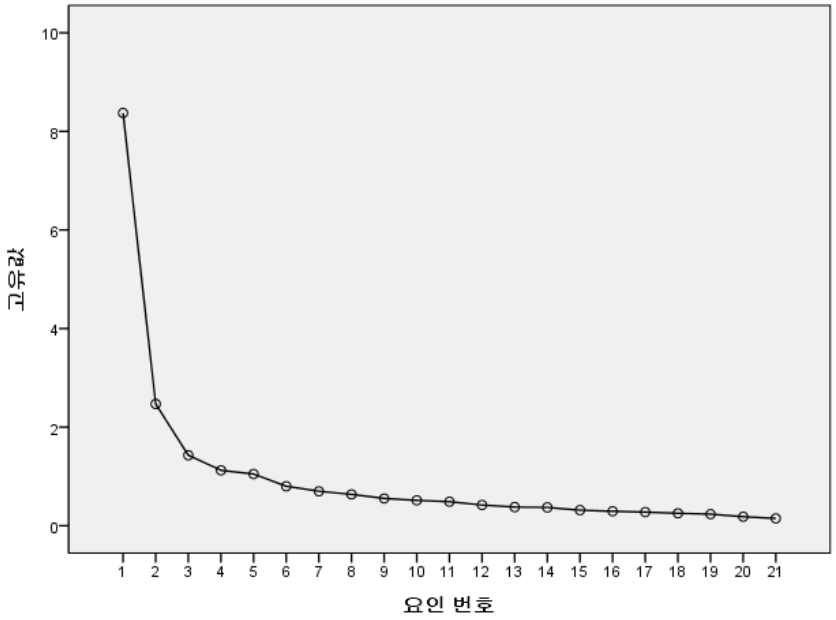
주 1) 검토 기준(임효신, 2015; 조규형 2018)
- 평균 1.5-4.5
- 표준편차: .75 이상
- 첨도 및 왜도: < ±2
- 문항-전체 상관: .3 이상
- 문항-하위요인 상관: 이론적으로 해당하는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가 다른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보다 높음

2) 역문항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3) 표준편차가 .740으로 기준치 미만임.
4) 음영표시된 상관계수는 하위요인별 상관계수 중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의미함.
5) $^{*}p < .05$, $^{**}p < .01$ $^{***}p < .001$

이후 수집된 자료를 표본으로 가정하는 최대우도법과 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하지 않는 베리맥스(varimax)회전 방식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김계수,

2011). 하위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도출한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Kaiser-Meyer-Okin의 표본 적절성 측정치는 .898,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1690.798(df=210, p=.000)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보하였다.

단,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수 결정은 ‘고유값 1 이상’ 기준과 동시에 이론적 설명, 스크리 도표를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통계적 기준 하에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모델을 찾지만, 문항간의 모든 상관을 가정하기에 측정오차에도 민감하기 때문이다(탁진국, 2011). 이에 따라 스크리 도표를 확인한 결과, 요인 수 3을 기준으로 고유값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점([그림 부록 1-2]),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선택몰입의 요인 수가 3개라는 점(① 진로목표 선택, ② 진로목표 동일시,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3개로 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표 부록 1-9> 참조).



[그림 부록 1-2]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표 부록 1-9>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성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842	.067	.125	.729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809	.220	.064	.706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838	.116	.112	.728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698	.139	.088	.515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712	-.009	.152	.530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719	.122	.255	.598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663	.187	.278	.552
8. 직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2]	.283	.338	.310	.290
9. 직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125	.790	.131	.656
10.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035	.723	.175	.554
11.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024	.652	.220	.474
12.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101	.464	.146	.247
13.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143	.607	.176	.420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304	.552	.189	.432
15.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이 있다[3]	.452	.370	.350	.464
16.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360	.354	.437	.446
17.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도전하고자 한다.[3]	.242	.534	.358	.472
18.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안정감을 부여한다.	.198	.111	.581	.390
19.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304	.293	.691	.656
20.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119	.318	.745	.669
21.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047	.347	.624	.512
고유값	4.776	3.577	2.687	-
설명변량(%)	22.743	17.031	12.797	
누적변량(%)	22.743	39.774	52.272	

주 1) 검토 기준(탁진국, 2011)
- 요인적재량: .4 이상
- 이론적으로 문항이 해당하는 하위요인에 가장 높은 적재량 도출

2) 요인적재량 기준 미만
3) 이론적으로 문항이 해당하는 하위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가장 높은 적재량 도출
4) 음영표시된 요인적재량은 하위요인별 적재량 중 가장 높은 요인적재량을 의미함.

분석결과, 총 3개 요인의 누적 설명 변량은 약 52.3%로 전체 변량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다수의 문항이 요인적재량 .4 이상으로 해당하는 하위요인을 나타내고 있었다. 단, 8번 문항은 요인적재량이 기준치 보다 낮았고 15번, 17번 문항은 본래 하위요인(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과 다른 요인에서 적재량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모든 문항들이 이론적 요인에 맞게 적재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의 문항을 앞서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박사학위 소지자 3인과 논의하여 수정・보완하고 기존 21개의 문항을 유지하여 본조사에 임했다.

<표 부록 1-10>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한 문항 수정

구분	예비조사 문항	수정 문항	수정 근거
요인 적재량 .4 이하	8. 직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8. 취업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 '무엇'이라는 표현을 '목적'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화 • 고향자(1992) 문항에서 '취업을 통해'라 표현
이론적 설명과 일치 하지 않은 요인적재량	15.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이 있다.	15. 내가 추구해야할 가치로써 나의 진로목표를 확신한다.	• '달성하겠다'는 표현은 향후 자신의 모습에 대한 표현으로써 규범적인 진술문이라 판단됨. • 확신(confidence)을 활용한 문항 존재(Blustein et al., 1989; Crocetti, 2008; Luyckx 외, 2008)
	17.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도전하고자 한다.	17.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 수정 전 문항의 표준편차가 기준치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범적인 진술문이라 판단됨. • 나의 진로선택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란 표현으로 수정

준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부록 1-11>과 같다. 진로선택몰입은 준거변인인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동기, 취업불안, 가족지지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상관계수 또한 .244~.547로 비교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훈영, 2010). 신뢰도 분석 결과 진로선택몰입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기준치 .7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1이었다.

<표 부록 1-11> 예비조사 준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상관 계수				신뢰도 (Cronbach's α)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① 진로목표 선택(7문항)	.169*	-.334***	.212*	.307***	.907
② 진로목표 동일시(7문항)	.136	-.378***	.206*	.553***	.797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7문항)	.297***	-.394***	.318***	.534***	.853
진로선택몰입 전체(21문항)	.244**	-.447***	.297***	.547***	.921

주: *p < .05, **p < .01 ***p < .001

6. 본조사 및 타당도, 신뢰도 확인

본조사를 통해 문항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부록 1-12>와 같다. 8번 문항 및 15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검토 기준에 적합하였다. 8번 문항과 15번 문항은 각각 ② 진로목표 동일시와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이라는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위요인(8번 문항: ① 진로목표 선택, 15번 문항: ② 진로목표 동일시)과의 상관이 높았다. 이 문항은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수정되었던 문항이기에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판단하였다.

<표 부록 1-12> 본조사 문항 분석 결과

하위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전체	하위요인 상관		
							①	②	③
① 진로목표 선택	1	3.417	1.043	-.381	-.698	.700***	.867***	.317***	.453***
	2	3.449	1.001	-.381	-.464	.758***	.854***	.443***	.511***
	3	3.346	.961	-.268	-.344	.725***	.852***	.373***	.494***
	4	3.391	.951	-.276	-.383	.706***	.803***	.390***	.495***
	5	3.305	.958	-.167	-.466	.692***	.806***	.350***	.492***
	6[2)]	3.089	1.112	-.147	-.896	.658***	.789***	.279***	.484***
	7[2)]	2.814	1.097	.186	-.803	.622***	.756***	.254***	.441***

<표 계속>

<표 부록 1-1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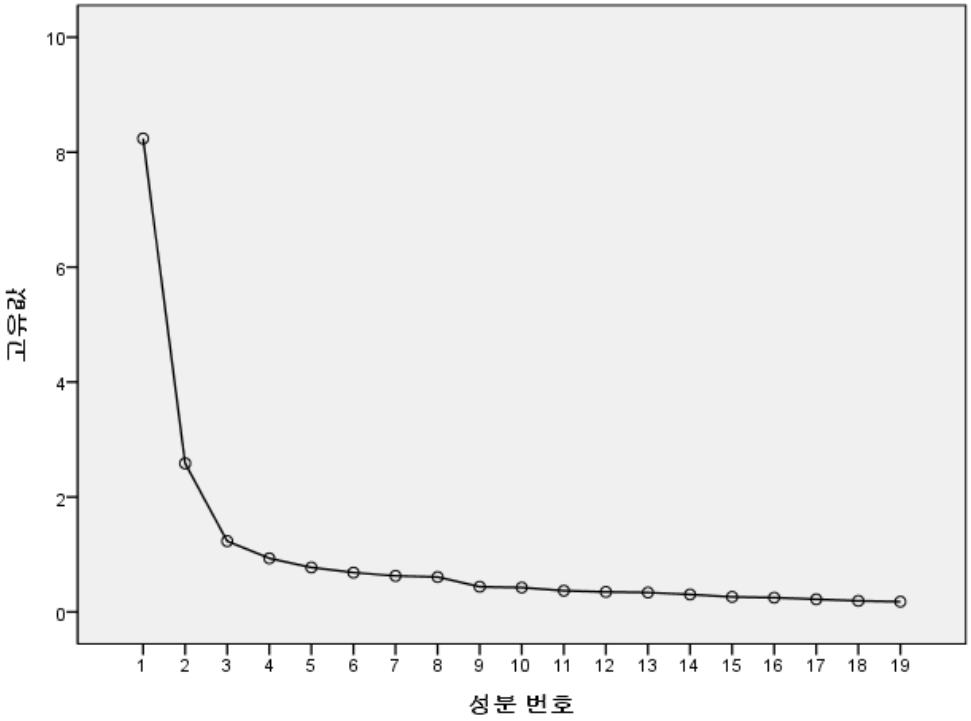
하위 요인	문항	평균	편차	왜도	첨도	전체	하위요인 상관		
							①	②	③
② 진로목표 동일시	8[2)]	3.117	1.075	-.003	-.783	.559***	.501***	**.431*** **	.457***
	9	3.674	.902	-.271	-.352	.575***	.276***	.790***	.467***
	10	3.760	.841	-.292	-.250	.605***	.270***	.842***	.508***
	11	3.687	.805	-.272	-.212	.590***	.260***	.821***	.490***
	12	3.778	.840	-.529	.267	.559***	.380***	.623***	.452***
	13	3.693	.822	-.458	.240	.642***	.357***	.794***	.530***
	14	3.458	.839	.012	-.364	.658***	.386***	.751***	.554***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15	3.380	.903	-.222	-.156	.707***	.474***	.631***	.606***
	16	3.678	.785	-.038	-.484	.704***	.491***	.561***	.734***
	17	3.689	.839	-.289	-.121	.613***	.375***	.518***	.704***
	18	3.449	.970	-.156	-.539	.586***	.452***	.340***	.721***
	19	3.579	.846	-.066	-.389	.695***	.505***	.460***	.818***
	20	3.568	.847	-.096	-.483	.708***	.455***	.572***	.815***
	21	3.689	.772	-.224	.028	.646***	.397***	.534***	.765***

주 1) 검토 기준(임효신, 2015; 조규형 2018)
- 평균 1.5-4.5
- 표준편차: .75 이상
- 첨도 및 왜도: < ±2
- 문항-전체 상관: .3 이상
- 문항-하위요인 상관: 이론적으로 해당하는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가 다른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보다 높음

2) 역문항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3) 음영표시된 상관계수는 하위요인별 상관계수 중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의미함.
4) $^{*}p < .05$, $^{**}p < .01$ $^{***}p < .001$

예비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최대우도법과 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하지 않는 베리맥스회전 방식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도출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Kaiser-Meyer-Okin의 표본적절성 측정치는 .922,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5475.987(df=171, p=.000)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보하였다. 요인 수 결정을 위해 스크리 도표, 이론적 설명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요인 수 3을 기준으로 고유값이 급격하게 낮아짐을 확인하였다([그림 부록 1-3]). 또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선택몰입의 요인 수가 3개

라는 점(① 진로목표 선택, ② 진로목표 동일시,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3개로 확정하였다.



[그림 부록 1-3]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분석결과, 총 3개 요인의 누적 설명 변량은 약 63.4%로 전체 변량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였다(<표 부록 1-13> 참조). 또한 모든 문항이 요인적재량 .4 이상으로 해당하는 하위요인을 설명하고 있었다. 단, 6번, 7번, 16번, 17번, 20번, 21번 문항은 본래 하위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하위요인에서도 적재량 .4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재량은 진로선택몰입이라는 개념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풀이되며, 개별 문항이 해당하는 하위요인에 요인적재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최종 문항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 활용될 문항은 진로선택몰입을 설명하는 문항으로 ① 진로목표 선택 7문항, ② 진로목표 동일시 6문항,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6문항, 총 19문항이었다.

<표 부록 1-13>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성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851	.108	.187	.771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827	.304	.130	.793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847	.211	.144	.783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777	.253	.149	.690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771	.171	.215	.670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659	-.022	.451	.638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630	-.050	.436	.589
8. 취업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항 삭제			
9. 직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111	.796	.104	.657
10.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070	.844	.165	.745
11.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072	.824	.151	.707
12.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87	.487	.201	.360
13.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173	.706	.257	.595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185	.629	.338	.544
15. 내가 추구해야할 가치로써 나의 진로목표를 확신한다.	문항 삭제			
16.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290	.418	.534	.544
17.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174	.434	.488	.457
18.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안정감을 부여한다.	.263	.097	.685	.548
19.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264	.236	.753	.692
20.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190	.416	.686	.680
21.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144	.410	.635	.592
고유값	4.634	4.171	3.248	-
설명변량(%)	24.391	21.955	17.097	
누적변량(%)	24.391	46.345	63.443	

주 1) 검토 기준(탁진국, 2011)
- 요인적재량: .4 이상
- 이론적으로 문항이 해당하는 하위요인에 가장 높은 적재량 도출

2) 음영표시된 요인적재량은 해당 문항의 가장 높은 요인적재량을 의미함.

준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부록 1-14>와 같다. 진로선택몰입은 준거변인인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동기, 취업불안, 가족지지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상관계수 또한 .311~.601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훈영, 2010). 신뢰도 분석 결과 진로선택몰입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기준치 .7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5이었다.

<표 부록 1-14> 본조사 준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상관 계수				신뢰도 (Cronbach's α)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① 진로목표 선택(7문항)	.189***	-.333***	.377***	.443***	.916
② 진로목표 동일시(7문항)	.280***	-.258***	.279***	.536***	.862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7문항)	.346***	-.322***	.379***	.564***	.851
진로선택몰입 전체(21문항)	.311***	-.369***	.413***	.601***	.925

주: *p < .05, **p < .01 ***p < .001

[부록 2]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측정도구 번역 결과

하위요인	영문 문항	1차 번역	최종 수정	비고
내적 동기 (intrinsic)	1. because I enjoy X	1. 행동이 즐겁기 때문이다.	1. 행동을 즐기기 때문이다.	• enjoy라는 동사의 의미 부각 필요
	2. because X is fun	2. 행동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2. 행동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
	3. because it is a pleasure to do X	3. 행동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3. 행동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 pleasure를 만족(인식)이 아닌 감정으로 표현 필요
	4. because X is interesting	4. 행동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4. 행동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
확인된 조절 동기 (identified)	5. because I strongly value X	5. 행동이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행동이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6. because X is personally important to me	6. 행동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 행동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7. because it is my personal choice to do X	7. 내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7.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 문장 구조 상 행동이 아닌 선택 강조 필요
	8. because X is meaningful to me	8. 행동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이다.	8. 행동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이다.	-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 (positive introjection)	9. because I want to feel proud of myself	9. 행동을 통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9. 행동을 통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
	10. because I want to prove to myself that I am capable	10. 행동을 통해 나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10. 행동을 통해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 capable은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능력으로 번역 필요
	11. because X boosts my self-esteem	11.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11. 행동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이다.	-
	12. because I want to feel good about myself	12. 행동을 통해 나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12. 행동을 통해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 good(좋은)은 positive(긍정적)라는 감정과 차이가 있음

[부록 3] 예비조사용 설문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이 **자신의 특성과 진로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 결과는 **대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10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에 들어있는 **모든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수준이 아닌 귀하께서 보시기에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수준**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활용할 수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나 제언이 있으시면 아래 연구자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김 태 환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 880-4667, e-mail: galman21@snu.ac.kr

Ⅰ

다음은 **진로목표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인식**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인식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이전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을 통해 내가 꿈꿔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도전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안정감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가족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인식**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인식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가족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가족은 내가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가족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가족은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가족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가족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가족은 내가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나를 이해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가족은 내가 한 행동이 잘 했는지, 잘 못 했는지를 바르게 평가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가족은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가족은 나의 결정을 인정해 주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의 가족은 나를 존중해 주며 대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가족은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가족은 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가족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가족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가족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잘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가족은 내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가족은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가족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가족은 내가 꼭 필요로 하면 돈, 물건 등의 물질적 자원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가족은 나의 일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귀중한 물건이라도 빌려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가족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가족은 내가 아파서 누웠을 때,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취업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감정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언론매체를 통해 취업이 어렵다는 내용을 접할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수님이나 선배들로부터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이 졸업 후 장래에 대해 물으실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는 사람이 취업을 해서 잘 되는 경우를 볼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졸업한 선배들이 취업을 못하고 놀고 있는 것을 볼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취업걱정을 하는 것을 볼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 졸업이 다가올수록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연할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경기침체로 인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취업준비생은 많으나 일자리가 부족하여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노력에 비해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남들에 비해 뚜렷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낮은 성적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저조한 영어실력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족한 취업준비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족한 능력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취업만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취업만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2.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다른 일을 하는 순간에도 집중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3.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취업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5. 취업만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6. 취업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예민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7. 취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⑤
28. 취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앞서 설문한 행동, 즉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로 가질 수 있는 인식**들입니다. **현재 자신의 인식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보 기]

만약, 당신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데 흥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동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제, 자매, 또는 사촌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상담가를 찾아가 나의 특성과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한 인간으로써의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해당 분야의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서나 홍보물, 팜플렛 등을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를 찾아가 참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상담이나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서 유심히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4.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련된 직장이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편지나 전자우편(E-mail)을 보냈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6.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7.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활동, 인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앞서 설문한 행동, 즉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로 가질 수 있는 인식**들입니다. **현재 자신의 인식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보 기]

만약, 당신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데 흥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동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나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1. 행동을 즐기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행동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행동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행동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행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행동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행동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행동을 통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행동을 통해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행동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행동을 통해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V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 되지 않으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이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정확한 숫자 및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학생 ② 여학생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3.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이상
4. 귀하의 전공 계열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5. 귀하의 세부전공은? (직접 기입)	_____
6. 귀하의 군복무 경험은? (남성만 응답)	① 군필자(현역, 보충역 제대) ② 미필자 ③ 비대상(면제)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4] 본조사용 설문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취업불안, 가족지지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이 **자신의 특성과 진로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 결과는 **대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10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에 들어있는 **모든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수준이 아닌 귀하께서 보시기에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수준**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활용할 수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나 제언이 있으시면 아래 연구자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김 태 환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 880-4667, e-mail: galman21@snu.ac.kr

Ⅰ

다음은 **진로목표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인식**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인식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취업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추구해야할 가치로써 나의 진로목표를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들입니다. 각 문항에 나타난 행동들을 **지난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자주 실행하였는지**를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보 기]

만약, 당신이 **"지난 6개월 동안 과제 준비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에 매우 자주 방문하였다" 면** 다음과 같이 **"매우 그렇다"** 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과제 준비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①	②	③	④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제, 자매, 또는 사촌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상담가를 찾아가 나의 특성과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한 인간으로써의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해당 분야의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서나 홍보물, 팜플렛 등을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관련기관/부서(예: 경력개발센터 등)을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를 찾아가 참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상담이나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서 유심히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4.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련된 직장이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편지나 전자우편(E-mail)을 보냈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6.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7.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활동, 인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앞서 설문한 행동, 즉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로 가질 수 있는 인식**들입니다. **현재 자신의 인식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보 기]

만약, 당신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데 흥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동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나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1. 행동을 즐기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행동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행동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행동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행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행동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행동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행동을 통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행동을 통해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행동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행동을 통해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IV

다음은 **취업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감정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언론매체를 통해 취업이 어렵다는 내용을 접할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수님이나 선배들로부터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이 졸업 후 장래에 대해 물으실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는 사람이 취업을 해서 잘 되는 경우를 볼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졸업한 선배들이 취업을 못하고 놀고 있는 것을 볼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취업걱정을 하는 것을 볼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 졸업이 다가올수록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연할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경기침체로 인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취업준비생은 많으나 일자리가 부족하여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노력에 비해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남들에 비해 뚜렷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낮은 성적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저조한 영어실력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족한 취업준비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족한 능력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취업만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취업만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2.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다른 일을 하는 순간에도 집중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3.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취업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5. 취업만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6. 취업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예민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7. 취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⑤
28. 취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V

다음은 **가족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인식**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인식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가족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가족은 내가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가족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가족은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가족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가족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가족은 내가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나를 이해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가족은 내가 한 행동이 잘 했는지, 잘 못 했는지를 바르게 평가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가족은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가족은 나의 결정을 인정해 주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의 가족은 나를 존중해 주며 대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가족은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가족은 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가족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가족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가족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잘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가족은 내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가족은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가족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가족은 내가 꼭 필요로 하면 돈, 물건 등의 물질적 자원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가족은 나의 일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귀중한 물건이라도 빌려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가족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가족은 내가 아파서 누웠을 때,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서 응답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V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 되지 않으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이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정확한 숫자 및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학생 ② 여학생 → **2번으로** **1-1. 귀하의 군복무 경험은?** ① 군필자(현역, 보충역 제대) ② 미필자 ③ 비대상(면제)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3.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이상
4. 귀하의 전공계열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이공계열
5. 귀하의 세부전공은? (직접 기입)	_____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By Taewhan Kim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9

Major Advise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identify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re as follows: First,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 model of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econd, to identify direct effect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Third, to identify mediating effects of employment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ourth, to identify moderating

effects of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Target population of this thesis was undergraduate students attending four-year universities. The sample size was 490 at seven universities by using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and cluster sampling. Measures used in this thesis were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Measure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and it was regarded as possessing appropriate internal consistency(Cronbach's α=.85~.93) and validity. Other measures developed from prior studi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context of this thesis. These measures were also regarded as possessing appropriate internal consistency and valid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22 to October 31, 2018, and 490 out of 525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463 data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IBM SPSS Statistics 21.0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F-test. Mplus 6.0 was used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through this thesis. First, career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is composed of three factors; a) decideness of vocational option, b) identification with vocational role, and c) certainty & attachment toward career choice. Second,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ere apt to predict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of undergraduate students. Third, family support of undergraduate students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indirect effects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mediated by employment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respectively. Fourth, employment anxiety of undergraduate students has direct negative effects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ifth,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ixth,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career guida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First, self-exploration of career exploration behavior has to be facilitated to improve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econd,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has to be facilitated for university student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employment anxiety in a positive way.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areer guidance for undergraduate students with low family support. Fourth, environment-exploration of career exploration behavior has to be facilitated to improve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or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research. First, longitudinal study is needed in order to identify the process of developi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cond, future research should take into account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long with family support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Third, future research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nfluence of controlled motivation in measuring and utilizing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Fourth,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measure employment anxiety more precisely. Fifth,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career develop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according to locations of universities(capital/regional).

Key Word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employment Anxie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utonomous Motivation on Career Exploration, Undergraduate Students,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2013-30319

감사의 글

대학원 과정을 거쳐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의 부족한 생각은 논문이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빌려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시작하는데 있어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짚어 주신 나승일 교수님, 논문의 필요성을 다양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김진모 교수님, 힘들고 지칠 때 마다 논문의 불씨를 살려주신 이찬 교수님, 논리의 흐름과 맥락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주신 정진철 교수님,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드러나지 못한 숨은 전제를 발견해주신 최수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진심어린 조언과 세심한 배려로 논문을 지도해주신 정철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생각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 수 있었습니다. ‘최선’이란 단어를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교수님,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을 검토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이 검토된 이론적 배경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김봉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실제적 필요성을 질문하여 주셨던 고재성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연구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제만을 지적하고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신 김종우 박사님, 고민을 통해 쓰는 글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보여주신 최동선 박사님, 복잡한 생각을 직관적으로 서술하라고 조언해 주신 김성남 박사님, 일상 속에서도 연구문제에 대해 고민해야함을 조언하신 전영욱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상의 맥락에서 전제를 의심해보라고 조언해주신 주홍석 박사님, 경험과 통찰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남중수 박사님, 구조적인 생각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신 정동열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는데 있어,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초고가 완성될 때 마다 글을 읽어주고 오류를 검토해준 영훈 형님, 부족한 생각을 보완해주고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마다 조언해준 정훈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논문을 쓰면서 부족한 선배 챙기느라 고생한 지은이, 막막했던 설문조사를 자기 일인 것처

럼 도와준 선근, 준호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자경이, 부족한 논문의 오탈자 보느라 고생한 선영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친동생처럼 입학진로정보실 업무를 도와준 소현이, 영광이, 승엽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 동안 힘이 되어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방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신 창완 형님, 저의 첫 과제를 이끌어 주신 영아 누님, 항상 밝은 웃음으로 격려해 주신 효신 누님, 잘하고 있다고 활기를 넣어 주신 영준 형님, 대학원 생활의 모범을 주여 주신 종선 형님, 힘들 때 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장욱 형님, 옆에서 내 투정을 받아준 규형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가족처럼 느껴지게 된 연구실의 유우 누나, 로미 누나, 승희 누나, 한려, 신희, 동주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입학진로정보실 조교를 수행하면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전창후 부학장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의 귀감이 되어주신 윤혜정 부학장님,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들에게는 배려해야함을 알려주신 김용노 부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간 저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김영실, 성지화, 정진희, 문삼은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친 형 같은 동현이 형, 효상이 형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묵묵히 지원해준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부족한 친구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준 태주, 영미, 성웅, 우형아 고맙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형을 지켜주는 동생으로 힘이 되어준 민철, 재영아 고맙다. 언제나 나의 일을 자기 일 같이 챙겨주는 훈아, 힘들 때 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서 고맙다. 그리고 바쁠 때 마다 입학진로정보실로 찾아와서 도와준 재헌, 태진, 현태, 영진, 지성, 승우 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형, 누나, 할머니,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올바르게 길러주셔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한결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9년 1월

김 태 환